김정숙녀사에 대한 추억





김정숙녀사에 대한 추억

(김정숙녀사의 탄생 100돐을 맞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문출판사

주체 106(2017)년

차　　례

머 리 말

해마다 12월 24일이 오면 조선인민은 류다른 추억속에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를 마음속으로 그려보군 한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조선이 일제의 군사적강점하에 있던 시기인 주체6(1917)년 오산덕의 추녀낮은 초가집, 빈농가의 가정에서 수난받는 조국의 딸로 탄생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어린시절부터 나라잃은 설음과 쓰디쓴 생활의 고달픔을 겪으시는 나날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원쑤를 미워하는 마음을 때이르게 체감하시였다.

김정숙동지의 가정은 끊임없는 불행과 상실의 아픔을 당하면서도 민족적, 계급적모순에 항거하여 굴함없이 투쟁한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이였다.

너무도 일찌기 부모님들과 오빠와 동생모두를 잃으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이 땅을 피바다로 만들고 사랑하는 혈육들을 무참히 살륙하는 불구대천의 원쑤 일제에 대한 천백배의 복수를 다짐하며 혁명투쟁의 길에 한몸을 다바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전개하신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단련되고 세련된 열렬한 혁명투사로 성장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항일대전의 나날 항일의 녀성영웅으로 명성을 떨치시였다.

최고사령관동지의 친위전사, 백발백중의 명사수, 용감한 전투원, 능숙하고 세련된 정치공작원…

참으로 김정숙동지는 항일의 전구에서 그 용맹과 지략을 남김

없이 과시한 불요불굴의 혁명가, 백두의 녀장군이시였을뿐아니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위업을 받들어 조선혁명사에 뚜렷한 생의 흔적을 남기신 빛나는 생의 귀감이시였다.

김정숙동지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받들어나갈 훌륭한 계승자로 키우신 조선의 어머니, 혁명의 어머니이시였다.

하기에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김정숙동지에 대하여 자주 회고하시면서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항상 마음속에 안고사시였다.

우리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 100돐을 맞으며 위인들의 그 추억의 세계를 펼쳐보려고 한다.

1. 제일동지, 혁명전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숙동무는 나의 가장 친근한 전우였습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장 친근한 혁명전우, 제일동지이시였다.

동지, 이 부름은 사상과 뜻을 같이하고 같은 목적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전우들사이에서 불리우는 영예롭고 고귀한 칭호이며 혁명전우에 대한 최대의 믿음과 사랑의 표시로 된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길지 않은 생애를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혁명에 대한 숭고한 책임감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데 고스란히 바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하시였다.

《우리는 혁명을 하는 과정에 서로 알게 되였고 백두산을 넘나들면서 생사고락을 함께 나누는 사이에 벗이 되고 동지가 되고 한생을 같이하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매혹과 흠모로부터 시작된 김정숙동지의 충정의 마음은 추호의 변심도 사심도 없었으며 이 세상 그 무엇에도 비할바없는 아름다움과 고상함의 극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가장 귀중하고 친근한 동지로, 잊을수 없는 혁명전우로 살아계시였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간중의 인간이시고 녀성중의 녀성이시였으며 제일동지, 혁명전우이신 김정숙동지를 한평생 잊지 못해하시였다.

잊지 못할 고향 회령에서

주체 48(1959)년 3 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령역에 머무르고있는 렬차안에서 이곳 군당위원회의 사업을 지도하고 계시였다.

그러던 어느날 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렬차에서 밤을 지새우며 일하시다가 소풍을 하시려고 밖으로 나오시였다.

삼태성도 이미 기울고 멀리 어디선가 두만강의 여울물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듯 묵묵히 철길우를 거니시던 수령님께서는 뒤따르는 부관에게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김정숙동무가 고향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인 회령에 대한 자랑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김정숙동무의 고향인 회령에서 이렇게 하루밤을 보냅니다.》

감회깊은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용히 노래를 부르시였다.

내 고향을 떠나올 때 나의 어머니
문앞에서 눈물 흘리며 잘 다녀오라
하시던 말씀 아 귀에 쟁쟁해
…

하많은 추억을 불러내는 노래였다.

《사향가》의 은은한 선률이 새벽바람에 실려 오산덕으로 흘러갔다. **《사향가》**는 항일전의 나날 김정숙동지께서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즐겨부르시던 노래였다.

수령님께서는 그날 긴장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느라 김정숙동지의 고향집에는 종시 들리지 못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회령을 다시 찾으신것은 주체70(1981)년 5월 어느날이였다.

현지지도일정이 매우 바쁘신 속에서도 겨우 시간을 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날 오전 회령을 찾으시였다.

먼저 김정숙동지의 동상앞에 이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상의 전경을 오래도록 바라보시다가 감개무량하신듯 조용한 음성으로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김정숙동무의 동상을 군복을 입은것으로 형상하니 조선옷을 입은것으로 형상하였을 때보다 더 보기 좋습니다.》

그러시고는 한걸음한걸음 동상가까이로 다가서시였다.

대돌우에는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라는 글발이 새겨져있었다.

그 글발을 조용히 읽어보시던 수령님께서는 깊은 추억에 잠기

시여 동상앞을 몇번이고 오가시였다.

이윽하시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가라앉으신 음성으로 **《자, 김정숙동무의 동상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읍시다.》**라고 하시며 동행한 일군들과 강사들을 불러주시였다.

일군들과 강사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김정숙동지를 함께 모시고 사진을 찍는것만 같아 저절로 마음이 숭엄해졌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위대한 수령님께서 떠나실 시간이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차에 오르시면서도 김정숙동지의 동상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고 차문을 열어놓으신채 오래도록 앉아계시였다.

그때로부터 10년세월이 흐른 주체80(1991)년 8월 어느날 함경북도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령식료련합회사(당시)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이곳에서 김정숙동지의 고향집까지는 불과 10리도 못되였다.

동행한 일군이 위대한 수령님께 김정숙동지의 고향집이 지척에 있다고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늘 바삐 보내다나니 김정숙동무의 고향집을 찾아보지 못했는데 오늘은 한번 가보자고 하시였다.

고향집마당에 들어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뜨락에서 잠시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어린시절 김정숙동지의 작은 발자욱이 수없이 찍혀졌을 토방에 올라서시여 방안을 유심히 살펴보시였다.

가난의 흔적이 너무도 짙게 서린 작은 곁방을 이윽토록 바라보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천천히 토방을 내리시였다.

마당에서 다시금 생가를 바라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산덕에 있는 김정숙동무의 생가에 와보니 김정숙동무의 일가가 결방살이를 하면서 어렵게 살았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라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김정숙동지의 생가앞에서 사진을 찍으시였다.

이어 수령님께서는 김정숙동지의 동상을 찾으시였다.

동상앞에 이르신 수령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친위전사의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시였다.

산뜻한 군복차림으로 활짝 피여난 진달래를 어루만지시며 밝은 미소를 짓고계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

《저기 부각한 꽃이 무슨 꽃입니까?》

동상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물으시였다.

《진달래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올린 일군이 동상에 부각한 진달래의 줄기는 12개이고 꽃봉오리는 24개인데 이것은 김정숙동지의 탄생일을 상징한것이며 216개의 꽃송이는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일을 상징한것이라고 설명해드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령혁명사적지를 찾아오는 참관자수가 한해동안에만도 30만명이 넘는다는 일군의 보고를 받으시고는 회령혁명사적지를 찾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면 좋은 일이라고, 살아있을 때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아오던 녀전사가 죽어서도 인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있으니 얼마나 좋은가고 뜨겁게 뇌이시였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의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김정숙동지의 생전의 모습이 떠날줄 모르시였다.

아 동 단 지 도 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하시였다.

《내가 김정숙의 이름을 처음으로 들은것은 소왕청 마촌에 있을 때였다. 왕우구 북동에 있다가 왕청에 온 연예대원들이 참새처럼 재잘거리는 말마디들속에 윤병도의 이름과 함께 그의 이름이 두간두간 튀여나왔다. 그 나비같은 아이들은 자기네 아동단지도원에 대해 굉장한 환상을 가지고있었다.

그후에는 연길현 아동국장으로 사업하다가 왕청현 아동국장으로 소환되여온 리순희가 종종 김정숙을 회상하였다. 윤병도도 이따금 그를 화제에 올리였다. 어느 동네에 가나 한두명씩은 꼭꼭 만나게 되는 〈정숙〉이라는 그 평범한 이름은 그렇게 되여 내 기억속에도 자리를 잡게 되였다. 김정숙에 대한 뭇사람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그가 대단히 담차고 이악하면서도 마음씨가 무척 곱고 동정심이 남달리 강한 처녀라는것을 알수 있었다. 김정숙에 대한 왕청시절의 나의 지식은 대체로 이런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연길현 아동단연예대가 왕청에 왔을 때 나는 그들에게 40 개의 붉은넥타이를 선물로 보내주었다. 그때 8 구공청위원 겸 현 아동단연예대 책임자로 활동하던 김정숙은 그 선물을 받고 몹시 감격하였다고 한다.》

《원래 그는 부암동에 있을 때부터 아동단지도원사업을 하였다. 아이들이 유격구시절부터 그를 몹시 따랐다고 하였다.》

주체 21(1932)년 5 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소사하회의에서 적들의 야수적인 공격과 탄압으로부터 청소한 유격대와 혁명군중을 보호하며 혁명력량을 급속히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해방지구형태의 유격근거지를 빨리 꾸릴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그에 따라 부암동 상촌에도 유격구가 꾸려져 그 주변마을들에서 살던 혁명군중이 집단적으로 혹은 개별적으로 새로 꾸려지는 유격구로 이동하고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도 동생 김기송동지와 함께 그해 가을에 유격구로 들어가시였다.

그이께서는 유격구에 오신지 얼마 안되여 8 구공청위원회 위원으로 선거되시였다. 공청조직에서는 그이께 8 구아동단사업을 지도할데 대한 책임을 맡기였다.

아동단은 1930 년대 전반기 두만강연안의 넓은 지역에 무어졌다. 여기에는 원쑤들에게 부모를 잃은 혁명렬사유자녀들과 로동자, 농민의 아들딸들로서 조국을 사랑하고 원쑤에 대한 적개심이 강하며 적과 용감하게 싸울것을 각오한 어린이들(8～15 살까지)이 망라되였다. 아동단의 기본임무는《조선의 독립과 전세계무산계급의 해방을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라는 혁명적구호를 높이 들고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전사로 튼튼히 준비하며 조선인민혁명군을 도와 조국해방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것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아동단원들에게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이야기를 매일같이 들려주시면서 그들의 가슴속에 티없이 깨끗한 충정의 마음을 심어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어느날 아침체조를 하려고 마당에 줄지어

서있는 아동단원들에게 오늘 아침에는 해돋이구경을 하자고 하시면서 그들을 데리고 뒤산에 오르시였다. 산마루에 오르신 김정숙동지께서는 붉게 솟아오르는 아침해를 바라보시다가 아동단원들에게 모두 태양의 고마움에 대해 생각하는것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하시였다.

그러자 아동단원들은 저마끔 한마디씩 하였다. 한 어린이는 태양은 밝고 따뜻한 빛을 준다고 했고 한 어린이는 태양이 있기때문에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다고 했으며 또 어떤 어린이는 비가 온 뒤에 고운 무지개를 만들어준다고 하였다.

아동단원들의 말을 주의깊게 들으신 김정숙동지께서는 태양은 헤아릴수 없이 많은 혜택을 준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세상만물이 태양이 없이는 살지 못하는것처럼 우리는 **김일성**장군님의 품을 떠나서는 살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늘의 태양과 같은분은 바로 **김일성**장군님이십니다.

우리들에게 나라찾는 투쟁의 길을 밝혀주시고 우리들을 근거지의 품에 안아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면서 혁명가로 키우시는 **김일성**장군님은 우리모두의 태양이십니다.

아동단원동무들은 **김일성**장군님을 높이 받들고 장군님만을 따르는 참된 전사가 되여야 합니다.》

장엄한 해돋이를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김정숙동지의 절절한 말씀은 아동단원들의 순결한 가슴마다에 위대한 장군님만을 믿고 따르는 깨끗한 흠모심이 뿌리내리게 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동단원들에게 조국의 아름다움과 풍부한 자연부원에 대해서,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

여 싸운 우리 민족의 슬기로운 투쟁력사와 찬란한 민족문화에 대해서, 일제의 착취와 압박밑에서 조선인민이 당하고있는 불행과 고통에 대해서 들려주시면서 조국에 대한 사랑, 미래에 대한 푸른 꿈을 키워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아동단원들을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흠모심과 애국심으로 교양하는것과 함께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굳세게 키워나가시였다.

아동단원들은 배낭속에 언제나 미시가루가 든 식량주머니와 소금, 내의, 모포, 바늘, 봇나무껍질에 싼 딱성냥, 공책, 연필 등을 가지고다니였고 배낭뒤에는 곤봉을 두개씩 달고다니였다. 그들은 단순한 어린 소년, 소녀가 아니라 근거지를 사수하고 혁명을 지키는 어린 전투원들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렇게 준비된 아동단원들과 함께 《토벌》대놈들이 달려들면 유격대원들을 도와 싸움에 나서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아동단원들을 입히고 먹이고 돌보시기에 어느 하루도 편히 지내신적이 없었다. 땔나무가 떨어지면 솔선 앞장서 산으로 가시였으며 학습장과 연필이 떨어지면 위험을 무릅쓰시고 적구에까지 나가 구해오시였다. 밤이면 아동단원들을 잠재우시고 늦도록 그들의 옷도 빨아주고 기워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 아동단원들을 얼마나 훌륭히 키워내시였는가 하는것은 다음과 같은 일제의 보도자료에서도 충분히 찾아볼수 있다.

《…이번의 토벌때에도 8 도구부근에서 일본군에 체포된 12 살 난 한 소녀는 품속에 수십매의 반전삐라를 감추고있었는데 심문에 대답하기를 죽음을 당하는 순간에 일본군병사들에게 그것을 보여

선전할 작정이였다고 대담한 언사를 던진 사실이 있었다.》

우리 인민들에게 널리 알려졌고 당시 국제당에서 발간하는 잡지 《공산국제》와 중국의 《구국신보》를 비롯한 여러 나라 출판물에 실려 세상사람들을 감동시킨 아동단원 김금순이도 연길현 아동단연예대에서 활동하던 소녀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아동단사업을 지도하시면서 연예대활동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장재촌의 아동단원들로 첫 아동단연예대를 무으시였다. 그러시고는 친히 공연종목들을 선정하시고 연습을 지도하시였다. 이렇게 준비된 연예대는 여러번 장재촌인민들앞에서 공연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주체22(1933)년의 설맞이공연도 조직하시고 5.1절경축행사에서 아동단원들의 꽃체조, 연예공연, 분렬행진도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아동단연예대의 공연에서 친히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정신이 담긴 시《진달래》를 읊으시여 관중들에게 커다란 감명을 주시였다. 아동단연예대는 유격근거지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로 되였으며 그들의 랑랑한 노래는 유격구인민들에게 필승의 신념과 행복한 래일에 대한 희망을 안겨주었으며 만난을 이겨나가도록 힘을 주었다.

아동단연예대는 유격대와 유격근거지, 적통치구역 인민들만이 아니라 중국인반일부대에까지 찾아가 연예활동을 벌리였다.

연예대가 적구인 팔도구광산에 나갔을 때였다.

그들은 수많은 로동자들이 모인 앞에서 공연을 하였는데 공연

무대에는 합창과 독창, 무용 등이 올랐으며 마지막에 김정숙동지의 힘있는 선동연설로 끝났다.

수십개의 간데라불빛이 집중되는 속에서 울리는 격동적인 선동연설과 붉은넥타이를 날리는 아동단원들의 혁명적인 노래와 춤은 로동자들에게 슬픔과 울분에 짓눌려만 있을것이 아니라 투쟁에 일떠서야 한다는 자각을 안겨주었다.

특히 젊은 로동자들은 유격대입대를 탄원하였다. 후날 조선인민혁명군의 유능한 정치군사일군으로 활동한 조정철, 문봉상도 그때 광산에서 유격구로 들어온 청년로동자들이였다. 로동자들속에는 연예대의 공연을 부러운 눈으로 지켜보던 어린 광부도 끼여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자기의 이름도 가지고있지 못한 그 소년을 유격구로 데리고 들어오시여 최금산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시였고 훌륭한 아동단원으로 키우시였다. 최금산은 그후 조선인민혁명군 대원으로, 기관총수로 자라났다.

그후 김정숙동지께서는 현아동단연예대사업을 맡으시였다.

주체 23(1934)년 봄 연길현 아동단연예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계시는 왕청으로 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매 종목마다 박수를 쳐주시며 연길현 아동단연예대가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부른다고 하시면서 그들이 공연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앞으로 계속 공부를 잘하고 연예대선전도 잘하라고 뜨겁게 고무해주시면서 그들에게 40개의 붉은넥타이를 선물로 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아동단원들에게 붉은넥타이를 매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동무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혁명의 후비대로 더욱 억세게

자라라고 우리들에게 이 붉은넥타이를 보내주시였습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주신 붉은넥타이를 맨 동무들의 가슴은 언제나 장군님을 따르는 한마음으로 붉게 타야 합니다.》

그이께서 심혈을 기울여 교육교양하신 아동단원들은 그후 한사람같이 훌륭한 유격대원, 재능있는 정치공작원이 되여 조국해방을 위한 성전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웠다.

《정숙동무는 나를 구원해준 은인입니다.》

주체 24(1935)년 9월 18일 김정숙동지께서는 안도현 처창즈유격구에서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총을 굳게 틀어잡으며 굳은 결의를 다지시였다.

《나는 혁명선렬들의 피가 스며있고 인민들의 조국광복념원이 어리여있는 이 총을 잡고 **김일성**장군님께 끝까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 총 한자루를 백자루로 알고 잡으며 이 총알 한발을 백발로 알고 원쑤를 쏘겠습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사격훈련, 유격전술훈련, 정치학습 등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시였다.

원래 모든 일에 정열적이고 이악하신 그이께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혁명군대원으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갖추시였다.

이때부터 김정숙동지의 혁명적생애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였다.

주체39(1950)년 10 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한 일군에게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그는 성냥가치 하나를 놓고 단방에 쏴맞히는 백발백중의 명사수였소.》

그때 위대한 수령님의 눈가에 뜨거운 회억의 빛이 어리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있은 일이다.

고난의 행군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장거리추격전술》로 진드기처럼 달라붙는 적들을 물리치기 위해 저격수조를 편성하시였다.

유리한 지형을 리용하여 매복하였다가 집중사격으로 적들을 쏴눕혀야 하는 이 저격수조에 김정숙동지께서는 자진하여 들어가시였다.

한번은 적들이 군견무리를 앞세우고 달려들었다. 수십마리의 군견들이 으르렁거리며 달려오는 위급한 정황속에서도 김정숙동지께서는 련발사격으로 군견들의 숨통을 속속 끊어놓으시였다.

김정숙동지와 저격수조원들의 명사격솜씨에 의해 군견무리의 대부분은 너부러지고 살아남은것들도 슬금슬금 돌아서게 되자 적들은 더이상 추격하기를 포기하였다.

이때뿐만이 아니였다.

어느 전투에서인가는 사격명령이 내리자마자 첫방에 적지휘관놈부터 쏘아눕히고 그 다음엔 장교놈들만을 골라가며 명중시켜 적들의 지휘체계를 마비시키시였고 또 언젠가는 적들의 경비전화선을 단발사격으로 끊어버리시였다.

포대안에 들어박혀 사격하던 기관총수놈도, 눈속으로 굴을 뚫으며 접근해오던 놈들도, 갈대로 몸을 가리우고 살금살금 기여들던 놈들도 일단 김정숙동지의 시야에 들기만 하면 그 즉시에 황천객이

되군 했다는 기담들을 추억하면서 항일혁명투사들은 늘 《김정숙동지의 총알에는 눈이 달려있었다.》고 덧붙이군 하였다.

김정숙동지의 신비한 사격술에 대한 소문은 인민들속에도 날개가 돋쳐 퍼져갔다.

조국이 해방된 후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만경대에 가셨던 어느날 김정숙동지께서는 경위대원들로부터 하늘에 높이 나는 새매를 쏘아보여달라는 요청을 받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웃으며 사양하시였다. 그때 옆에 계시던 김보현할아버님께서도 하늘에 높이 나는 새를 어떻게 맞힌다고 그러느냐고 하시였다. 할아버님께서는 김정숙동지께서 총을 잘 쏘신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으시였으나 살같이 나는 새야 어떻게 맞힐수 있으랴 하고 우려하시였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하늘을 쳐다보시고나서 김정숙동지께 한번 쏴보라고 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수령님 말씀에 지체없이 경위대원에게서 보총을 받아드시였다. 하늘높이 뜬 새매는 하나의 점에 가까왔다. 그러나 한방의 총소리가 울리자 새매는 돌덩이처럼 땅에 떨어졌다.

이날 할아버님께서는 《과시 듣던바 그래로이군.》하시며 크게 머리를 끄덕이시였다.

주체36(1947)년 어느날 대동강가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일군들의 실탄사격이 있었다.

대동강물에 빈병들을 마개막아 띄워놓고 목표로 하였는데 조선에 와있던 이전 쏘련의 쓰띠꼬브대장이 김정숙동지께 한번 쏴보는 것이 어떤가고 제의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도 미소를 지으시며 이르시였다.

《한번 옛 솜씨를 내보지.》

《…안될것 같습니다.》

《실수할셈치구 한번 쏴보오.》

김정숙동지께서는 거듭되는 청에 권총을 들고 나서시였다.

잠시후 쏘면 쏘는대로 목표들이 순식간에 다 없어지자 쓰띠꼬브대장도 뛰여난 사격솜씨에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해방후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과 여담을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였다.

《김정숙동무는 정말 총을 잘 쏩니다. 정숙동무가 총을 잘 쐈기때문에 나는 몇번이나 위급한 순간에서 구원되였습니다.

정숙동무는 나를 구원해준 은인입니다.》

불보다 뜨거운 동지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하시였다.

《동지들과 공동위업에 대한 헌신성, 이것은 김정숙의 성격에서 핵을 이루는것이였으며 또한 그가 지니고있는 인간적매력이기도 하였다.

나는 림춘추, 김정필, 박수환을 비롯한 연길출신의 대원들에게서 반 〈민생단〉 태풍이 온 동만을 휩쓸던 시기 능지영에서 옥고를 치르고있던 〈민생단〉 혐의자들에게 매일같이 먹을것을 가만가만

날라다준 어린 처녀가 있었는데 바로 그 처녀의 덕에 억울하게 갇혔던 수난자들이 굶어죽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여러번 들었다. 그 어린 처녀가 김정숙이였다는것이다. 〈민생단〉혐의자들에게 음식을 가져다주는 사실이 드러나는 날에는 그도 〈민생단〉감투를 뒤집어 쓸수 있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주체23(1934)년 가을 삼도만 능지영에 있는 연길현 공청위원회로 소환되시였다.

팔구지역에서는 언제나 락망과 비관을 모르고 생기와 활력에 넘치시여 아동단원들에게는 친누나처럼, 근거지인민들에게는 친딸처럼 살뜰하면서도 적과 마주서면 서리발 같아지는 나어린 처녀공청위원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두해남짓한 기간의 공청생활 특히 팔구공청위원으로서의 김정숙동지의 활동은 혁명임무에 대한 높은 책임성과 무한한 헌신성, 능숙한 조직선동자적수완과 혁명가적품성으로 하여 사람들의 믿음과 존경심을 자아내게 하였고 보다 큰 범위의 청년사업도 훌륭히 감당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현공청위원회에서 주로 내부사업과 함께 적구공청조직들의 사업을 맡아보시게 되였다.

당시 동만의 유격구들에서는 배타주의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이 일으킨 극좌적인 반《민생단》투쟁바람이 살벌하게 휘몰아치고 있었다.

배타주의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북만원정을 하시는 기회를 리용하여 조선의 참다운 혁명가들을 《민생단》으로 몰아 박해하고 무참히 살해하는 참극을 벌려놓았다.

삼도만 능지영에서는 《성쉬군》이라는 별명을 가진 리상묵이

극좌적인 반《민생단》투쟁에 열을 올리고있었다. 그자는 밤새 보초를 서고 집에 들어가면서 배가 고프다는 말을 했다고 하여 《민생단》으로 모는가 하면 작식대원이 밥을 좀 태웠다고 하여 《민생단》으로 몰았고 《민생단》혐의에 걸린 동무를 동정하였다고 하여 《민생단》으로 몰았다.

사람들은 저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몰랐고 언제 어떤 참변을 당할지 몰라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있었다. 《민생단》혐의자로 감방에 갇혀있는 사람들중에는 김정숙동지께서 팔구에서부터 잘 알고계시는 현당책임자 구명복, 《도끼》라는 별호를 가진 용감하고 원칙성이 강한 유격대지휘관인 김동규도 들어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들이 《민생단》이라는것을 결코 믿지 않으시였으며 이곳에서의 반《민생단》투쟁이 나쁜놈들의 작간이라는것을 처음부터 느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미 지난해 봄에 그릇되게 진행되는 반《민생단》투쟁에 맞서싸운 경험을 가지고계시였다. 그때 부암지구에서는 《민생단》을 심판하는 군중모임이 있었는데 《민생단》으로 처형당하게 된 사람은 일찍부터 녀성공청원으로 일을 잘하여온 최희숙이였다. 협의자료는 그가 유격구생활이 곤난하다고 《불평》을 하였다는것이였다. 누구나 최희숙이 결코 《민생단》일수 없다는것을 알고있었으나 《민생단》련루자로 몰릴가봐 감히 입을 열지 못하고있었다.

그때 김정숙동지께서는 결연히 연단에 나가 그를 옹호해나서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최희숙동무가 혁명에 끝없이 충실한 동무라고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말 한마디를 가지고 어떻게 혁명동지를 《민생단》이라고 단언할수 있겠는가, 만일 우리가 혁명에 충실한

동무들을 《민생단》으로 몰아죽인다면 좋아할것은 적들밖에 없을것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그러자 군중들이 일제히 호응해나섰다. 심판석에 앉았던 배타주의자들도 더는 어쩌지 못하고 최희숙을 무죄로 선언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후 최희숙이 조선인민혁명군대오에서 잘 싸웠으며 적들에게 체포되여 두눈을 잃고서도 《나에게는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고 소리높이 웨쳐 조선혁명가들의 불굴의 의지와 혁명절개를 온 세상에 과시한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1년이 지난 이때에 와서는 사태가 더 험악해졌다. 그 어떤 론리정연한 변호도 유력한 증거도 소용없었다. 《민생단》혐의자들을 조금이라도 옹호하거나 도와주면 즉시 《민생단》으로 처형당해야 하는 실정이였다.

그러나 김정숙동지께서는 참다운 혁명가들을 《민생단》으로 몰아살해하며 혁명대렬안에 불신과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있는것을 보고 침묵을 지키고 계실수 없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두려움없이 공청원들에게 극좌적인 반《민생단》투쟁의 위험성을 깨우쳐주시면서 그자들의 책동에 경각성을 높이도록 일깨워주시였다. 그런 공청원들가운데는 현공청일군인 전희와 현당 통신처에서 일하는 리정인도 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리정인과 함께 매일같이 감시의 눈을 피해가며 《민생단》혐의로 《감방》에 갇혀있는 동지들에게 먹을것을 넣어주시였고 필요한 약품도 구해서 들여보내주시였다. 김정숙동지의 희생적인 노력으로 하여 《감방》안의 동지들은 굶어죽거나 앓아죽는 위험으로부터 구원될수 있었다. 그들은 발각되면 영낙없

이 《민생단》으로 처형당할 이 위험한 일을 하는것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다. 뜨거운 동지애의 손길은 매일같이 신심을 잃지 말라는 무언의 고무를 안고 미쳐왔으나 그것이 누구의 소행이였는가를 그들이 알게 된것은 적《토벌대》가 삼도만으로 밀려들었던 날에 이르러서였다.

그날 김정숙동지께서는 리정인과 함께 유격대원들의 점심식사를 준비하고 계시였다. 점심식사는 버섯을 넣고 끓인 좁쌀죽이였다. 가마가 한창 끓고있을 때 적《토벌대》의 총소리가 울렸다. 유격대원들은 급히 산으로 올랐고 적들은 골짜기와 산발을 타고 밀려들었다.

정황을 살피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얼른 풀을 뜯어 똬리를 트시고는 펄펄 끓는 죽가마를 뽑아 머리에 이고 산으로 달려오르시였다. 리정인도 작은 죽가마를 뽑아들고 뒤따랐다.

이 광경을 뒤늦게 발견한 《토벌대》놈들은 총을 쏘아대며 쫓아오기 시작하였다. 적탄이 귀전을 스치며 날아와 발치에 푹푹 박혔다. 가마에서는 더운 열기가 확확 풍기였다. 리정인은 너무도 급하여 죽가마를 내려놓고 피했다가 다시 내려와 가져가자고 소리쳤다.

그러나 김정숙동지께서는 흰김이 솟구치는 가마를 그냥 이신채 《정인동무, 조금만 더 참자요. 우리가 조금만 더 참으면 동무들을 굶기지 않을수 있어요.》라고 하시며 끝내 산마루까지 오르시였다.

여러 사람이 달려와 죽가마를 받아주었다. 그들은 《감방》에 갇혀있던 《민생단》혐의자들이였다. 《감방》열쇠를 가진 《성쉬

군》이 황황히 도망치는 바람에 그들은 문을 부시고 유격대가 싸우는 고지로 올라왔던것이다. 그들은 적《토벌대》놈들에게 돌벼락을 안기며 유격대원들과 함께 용감하게 싸웠다. 드디여 적《토벌대》놈들은 쫓겨갔다.

전투가 끝나자 김정숙동지께서는 소랭이에 죽을 담아드시고 유격대원들에게로 다가가 한사발씩 퍼주시였다. 죽에서는 아직도 뜨거운 김이 오르고있었다. 하지만 《감방》에서 나온 동지들은 슬금슬금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피해갔다.

《모두 여기에 와서 더운 죽을 드십시오. 죽을 가져왔는데 받지 않고 왜 자꾸 피하기만 합니까.》

이러시는 김정숙동지의 말씀에 그들은 발걸음을 멈추었지만 누가 보지 않는지 주위를 살피기부터 하였다.

《죽 한그릇때문에 동무들마저 〈민생단〉에 걸려든다면 그만큼 혁명에 더 손해를 주는것이니 그래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동무들의 그 마음을 혁명의 량식으로 삼고 어떠한 고통도 참으며 이겨나가겠소.》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동무들은 절대로 《민생단》일수 없다고 하시면서 그들한테 죽그릇을 안겨주시며 말씀하시였다.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동무들이 신념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몹시 가슴아파하실것입니다. 이제 장군님께서 이 엄중한 사태를 바로잡으실것입니다. 그러니 신념을 잃지 말고 끝까지 혁명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그들은 매일같이 위험을 무릅쓰고 고무의

손길을 보내준분이 바로 김정숙동지이시였음을 알게 되였다.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죽그릇을 받아들던 그들은 소스라쳐 놀랐다. 끓는 죽가마를 이고오시느라 김정숙동지의 머리는 절반이나 그슬려있었던것이다.

삼도만 능지영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하시였다.

《내가 김정숙을 처음으로 본것은 다홍왜회의를 하던무렵입니다. 회의후였던지 도중이였던지 삼도만에 갔습니다. 연길현에 속한 고장입니다. 삼도만 능지영이라는 곳에 당비서처가 있었는데 김정숙은 그 비서처에서 일하고있었습니다. 능지영에서 소집된 비서처일군들의 회의장소에서 김정숙을 만나보았습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극좌적으로 벌어지는 반《민생단》투쟁으로 혁명동지들이 억울하게 희생될 때마다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우리 혁명을 위기에서 구원해주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시였다.

일찌기 유격구창설의 첫 시기 쏘베트제창자들이 일체 사적소유를 페지하고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떠들어 인민들이 불안에 빠졌을 때 인민혁명정부를 세우시여 인민의 새세상을 펼쳐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고 공청사업에서 좌우경적편향을 범하고있을 때에도 왕청에서 공청일군회의를 여시고 제때에 바로잡아주신 **김일성**

장군님이시였다. 진정 김정숙동지께서 간직하신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흠모와 믿음은 절대적이며 열화같은것이였다.

하기에 이 엄혹한 시련의 나날 공포와 불안에 떠는 사람들의 가슴에 김정숙동지께서 심어주신것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믿음이였고 장군님께서 아시게 되면 곧 이 사태가 바로잡혀지리라는 굳은 신념이였다.

당시 유격대병원 군의로 있던 림춘추는 자기의 회상기에서 이렇게 썼다.

《…김정숙동지는 더욱 절절한 음성으로… 혁명의 이 난국을 타개하고 극좌적인 반〈민생단〉투쟁을 바로잡아주실분은 오직 조선혁명의 영명한 령도자 **김일성**동지뿐이신데 그이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그이께서는 이런 험악한 사태를 알고계시는지… 하며 소리없이 눈물짓는것이였다.

나도 속으로 함께 눈물지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

자나깨나 마음속으로 외우던 그이의 존함은 참으로 〈민생단〉바람에 기를 펴지 못하고 불안속에서 지내던 우리 조선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구원의 별이며 믿음이며 희망이며 승리의 상징이였다.》

드디여 북만원정에서 돌아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24(1935)년 2월 다홍왜회의에서 반《민생단》투쟁의 반혁명적본질을 밝히시고 그 후과를 가시기 위한 투쟁을 조직령도하고 계신다는 감격적인 소식이 이곳 삼도만 능지영에 전해졌다.

며칠후 김정숙동지께서는 오래전부터 품어오던 간절한 숙망이

실현되는 력사적인 날을 맞이하시였다. 지금껏 전설로만 들어오며 마음속으로 그리고 또 그려오시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3월 어느날 삼도만 능지영을 몸소 찾아주시였던것이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능지영에서 친히 소집하신 현당비서처 일군들의 회의에 참가하시였다.

봄날의 태양처럼 한없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미소, 배타주의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에게 향하실 때의 서리발같으신 안광, 천하를 울리는듯 한 우렁우렁하신 음성,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는 김정숙동지의 가슴은 끝없이 설레였다.

회의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삼도만유격구에서 벌어진 반《민생단》투쟁의 좌경적오유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혁명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배타주의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의 범죄행위를 낱낱이 폭로하시였으며 앞으로의 반《민생단》투쟁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방도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비범한 통찰력으로 모든 사태를 환히 꿰뚫어보시고 얽힌 문제들을 거침없이 풀어나가시는 장군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맺히고 옹쳤던 사람들의 울분을 풀어주었고 신념과 힘을 안겨주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감격의 눈물속에 그 귀중한 가르치심을 구절구절 가슴깊이 새기시며 한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장군님을 우러르시였다.

《저는 지금 저의 심정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장군님을 뵈옵고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고싶은것이 저의 소원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소원이 이루어졌으니 저처럼 행복한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회의가 끝나자 김정숙동지께서는 회의소식을 묻는 사람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알려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거듭거듭 뇌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오신 날부터 삼도만을 비롯한 현안의 유격구의 군민은 재생의 환희와 기쁨으로 들끓었다. 《민생단》루명을 쓰고 억울하게 갇혔던 사람들이 풀려나와 가족, 친우들과 얼싸안고 돌아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떠나가신 날 밤 김정숙동지께서는 동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참으로 위대하신분이예요.…

나는 언제 어디서나 오직 **김일성**장군님만을 믿고 싸우겠어요.

하루를 살아도 천년을 살아도 영원히 그이의 혁명전사답게 떳떳이 살며 억세게 투쟁하겠어요!》

김정숙동지의 이 말씀은 온갖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시면서 장군님만을 믿고 싸워온 자신의 고귀한 생활체험의 토로인 동시에 영원히 장군님만을 받들어모시고 따르려는 철석같은 신념의 분출이였다.

처창즈의 불사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하시였다.

《적들이 한때 수천명의 병력으로 처창즈유격구를 봉쇄한 일이 있는데 그때 그 고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아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혹심한 식량난과 적의 거듭되는 〈토벌〉로 사경에 이른 처창즈인민들을 결사전에로 불러일으킨것이 아동단원들이 부른 혁명가요였습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주체24(1935)년 3월 안도현 처창즈로 가시였다.

당시 처창즈유격구의 형편은 매우 어려웠다. 갑자기 각지에서 천여명의 군중이 모여온데다가 적들의 끊임없는 《토벌》공세와 《봉쇄》책동으로 하여 근거지는 엄혹한 식량난에 처해있었다. 거기에다 대오안에 숨어있던 암해분자들과 혁명의 배신자들이 처창즈인민들을 굶주림속에 몰아넣으려고 악랄하게 날뛰고있었다.

조선인민혁명군부대가 원정을 떠나면서 유격구인민들을 위해 두고간 적지 않은 자금이 있었으나 책임적인 자리에 앉아있던 배타주의자는 그것을 내놓지 않고 사욕을 채우고있었다. 이자는 적통치구역의 인민들은 물론 혁명조직성원들까지 《민생단》련루자라고 하면서 그들과의 일체 련계를 중지하게 하였다. 결국 근거지로는 한알의 식량도 들어올수 없게 되였다. 내외원쑤들의 책동으로 하여 처창즈는 아사직전의 기근지대로 되여가고있었다.

유격대원들이 피로써 구해온 식량은 수요에 비해 너무나 적어서 집집에 숟가락으로 나누어주는 형편이였다. 사람들은 이른 봄이라고 하지만 그대로 쌓여있는 눈속에서 풀뿌리를 캐고 도토리를 주었으며 나무껍질을 벗기고 마른 머루순을 뜯어먹었다. 소금도 없이 마른 머루순을 그대로 삶아먹을 때면 목구멍에서 피가 나왔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부족했다. 식량문제를 해결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유격구의 존망과 관련되는 운명적인 문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근거지에 들이닥친 이 엄혹한 시련을 뚫고나가기 위한 사업에 분연히 나서시였다.

드디여 처창즈유격구에 봄이 왔다. 쌓였던 눈도, 계곡의 얼음도 녹아내리고 파릇파릇한 풀들이 돋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처창즈인민들은 기근에서 벗어날수 없었다. 봄철씨붙임을 해야 했으나 사람들은 힘이 없어 일어서지도 못했다. 쓰러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려고 뛰여다니던 공청원들도 더는 움직일 힘이 없어 주저앉아버렸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들에게 절절히 호소하시였다.

《청년전위들인 우리 공청원들이 일어나지 못하면 굶어쓰러진 처창즈인민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처창즈의 혁명군중을 일으켜세우고 우리 혁명을 밀고나갈수 있습니다. 공청원들이 주저앉으면 근거지 인민들이 다 굶어죽고맙니다.》

김정숙동지의 호소에 따라 공청원들은 공청파종대를 조직하였으며 봄철씨붙임전투를 시작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한편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봄철씨붙임전투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풀을 뜯어먹으면서라도 밭에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그래야

유격근거지를 지키고 원쑤놈들을 물리칠수 있습니다. 모두 힘을 내여 일어납시다!》

근거지인민들은 이를 악물고 밭에 나가 공청파종대와 함께 씨를 뿌렸다. 그런데 밤을 지내고나니 씨를 뿌린 밭이 모두 파헤쳐져있었다. 유격구에 박혀있는 암해분자들의 작간이였다. 허기진 배를 그러안고 무릎걸음으로 씨를 뿌린 사람들은 너무도 기가 막혀 주저앉아버리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러한 광경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오늘의 파종은 말그대로 적들과의 치렬한 전투입니다.

처창즈땅에서의 파종은 먹고 살기 위한 단순한 씨붙임이 아니라 일제침략자들을 쳐물리치고 조국의 광복을 쟁취하는가 아니면 일제의 구두발에 짓밟혀 영영 식민지노예가 되는가 하는 심각한 투쟁입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들에게 장군님을 모시고 광복된 조국에 돌아갈 그날을 생각하자, 그때에는 우리가 처창즈에서 고생하던 일을 옛말삼아 이야기하자고 하시며 근거지인민들을 씨붙임전투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인민들은 일어날 힘이 없어 밭고랑을 기여다니면서 씨를 뿌렸다. 밭고랑에서 쓰러져 그대로 숨져버린 사람들도 있었다. 실로 처창즈의 땅에 뿌려진것은 단순한 씨앗이 아니라 처창즈인민들의 넋이였고 피와 땀이였으며 혁명승리에 대한 희망이였고 신념이였다.

뿌린 씨앗은 드디여 움터올라 처창즈의 밭들에는 보리, 감자,

조들이 푸르게 자라났다. 그러나 그것이 낟알로 여물 때까지는 아직 많은 시일이 걸려야 하였다. 기근은 극한점에 이르렀고 사람들은 개구리는 물론 개구리알까지 모두 건져먹었다. 굶어숨지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유격구에는 쥐와 뱀도 한마리 남지 않았고 풀도 제대로 남지 않았다.

그 고난을 처창즈에서 이겨낸 항일혁명투사 백학림은 후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처창즈사람들이 겪어온 항일전쟁시기의 참상을 모른다면 그 무슨 생활난에 대해서 감히 입밖에 내지도 말라. 처창즈의 군민이 봉쇄속에서 어떻게 기아를 이겨내고 추위를 이겨내고 적의 〈토벌〉을 이겨냈는가를 알지 못한다면 그 어떤 곤난극복에 대해서도 감히 자랑하지 말라!》

그때 처창즈사람들앞에 다른 길이 없는것은 아니였다. 고개를 한두개만 넘어가면 먹을것도 입을것도 있는 적구의 땅이 있었다. 적들은 유격구를 버리고 나오면 편안한 생활을 보장해준다고 떠들었다.

그러나 처창즈사람들은 굶주려 쓰러지면서도 배타주의자들의 모함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 시련의 땅, 기근의 땅을 떠나지 않았다. 쓰러져도 유격구에서 쓰러지고 죽어도 유격구에서 죽었다.

처창즈사람들은 비록 유격구에서 보낸 그 나날이 3년안팎의 짧은 세월이였으나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인민의 새세상, 왜놈과 지주, 자본가가 없는 자유의 세상이 너무도 소중하였기에, 유격구하늘가에 나붓기는 붉은기가 너무도 귀중하고 그 붉은기를

날리며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모시고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가게 될 승리의 날을 반드시 맞이하게 되리라는 굳은 신념이 있었기에 쓰러지면서도 죽으면서도 유격구의 땅을 그러안고있었다.

죽으면 죽었지 버릴수도 떠날수도 없는 우리 세상, 우리 주권, 우리 땅, 백번 쓰러져도 내리울수 없는 혁명의 붉은기 이 불굴의 정신을 지닌 처창즈인민들의 앞장에는 언제나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서계시였다. 김정숙동지는 처창즈인민들속에서 힘과 용기와 신념의 상징이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밭에 심은 보리가 파랗게 자라나자 그 파란 잎사귀를 뜯어가지고 집집마다 다니시며 《보세요. 벌써 보리가 이렇게 자랐어요.》라고 힘을 주시였고 보리이삭이 패자 그것을 눈앞에 내보이시며 이제 조금만 더 참고견디면 낟알을 털게 되니 기운을 내라고 말씀하시였다. 근거지인민들은 김정숙동지의 음성이 울리면 맥을 잃고 쓰러졌다가도 일어나군 하였다. 공청원들도 아동단원들도 언제나 신심에 넘쳐있는 김정숙동지를 보며 힘을 얻군 하였다.

어느날 밤 인민혁명군병실앞에서 아동단연예공연을 할 때였다. 《총동원가》를 부르며 유희를 하던 아동단원들가운데 제일 나이어린 소녀가 쓰러졌다. 혹심한 굶주림은 어린 소녀의 마지막기운마저 진해버리게 하였던것이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달려나가시여 소녀를 안아일으키시였다. 그러자 김정숙동지께 안긴 소녀는 눈물이나 신음소리대신 파랗게 질린 입술을 떨며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나가자 나가자 싸우러 나가자
용감한 기세로 어서 빨리 나가자
…

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은 눈물속에서 어린 소녀와 함께 노래를 불렀다. 불굴의 노래소리는 처창즈의 밤하늘에 울려퍼져 처창즈인민들의 가슴에 비장한 결사의 투쟁각오를 심어주었다.

그해 여름 처창즈유격구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부르심을 받고 왕청으로 갔던 중대가 돌아왔다. 그들중에는 오중흡도 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오중흡으로부터 위대한 장군님께서 1차북만원정의 어려운 길에서 몸소 지으신 **《반일전가》**를 듣게 되시였다.

노래에 깃든 사연은 김정숙동지께 끝없는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북만원정에서 돌아오시던 어려운 길, 적들의 추격과 포위속에서 촉한에 걸리신 몸으로 흐려지는 의식을 가다듬으시며 장군님께서 최후를 각오한 대원들에게 불러주신 **《반일전가》**!

김정숙동지께서는 **《반일전가》**는 처창즈사람들에게 있어서 몇만석의 쌀도 대신할수 없는 귀중한 선물이라고 하시면서 그 노래를 공청원들에게 정력적으로 배워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 배워주신 **《반일전가》**를 며칠후에는 온 처창즈가 부르게 되였다.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서라도 사랑하는 부모형제와 처자를 학살하고 온 조국땅을 피바다에 잠근 철천지원쑤 일제와의 결사전에로 부르는 이 투쟁의 노래를 부르며 처창즈인민들은 마지막시련의 고비를 넘었다. 피와 땀과 눈물로 씨를 뿌린 처창즈의 밭들에 햇곡식이 여물었다. 시련을 이겨낸 처창즈사람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어리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처창즈에서 1년도 채 못되게 계시였지만 한생을 두고 잊지 못하시였다. 해방후에도 녀성항일혁명투사들과 함께 처창즈유격구시절을 자주 회고하시였다.

무송땅이 전하는 위훈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무송현성전투때 김정숙동지께서 싸창을 량손에 들어쥐시고 기관총으로 련발사격하듯이 순식간에 십여명의 적을 쓸어눕힌 위훈을 회고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김정숙이 우리한테 온 후 무송현성전투가 있었는데 거기서 그가 녀투사로서의 담력과 지략을 남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무송현성전투에서 살아난것도 김정숙의 덕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 전투가 아주 심각한 전투였습니다. 김정숙은 전투장에서 좀 떨어져있는 잘루목에서 7～8명의 녀대원들을 데리고 아침식사준비를 하고있었습니다. 그 잘루목에 밥을 지을만 한 집이 한채 있었는데 연기가 나도 다른데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적들이 갑자기 녀대원들만 있는 잘루목에 달려들었습니다. 이 잘루목을 빼앗기게 되면 우리 부대가 앞뒤에서 얻어맞을수 있었습니다. 정황이 몹시 위급하다는것을 간파한 김정숙은 싸창을 뽑아들고 전우들과 함께 맹렬한 총격전을 벌렸습니다. 녀대원들의

드센 반격에 부딪친 적군은 숱한 주검을 남기고 퇴각하였습니다.

이 싸움이 있은 후부터 그는 더욱더 전우들의 총애를 받는 인물로 되였습니다.》

주체25(1936)년 8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백두산서북부일대의 적들을 완전히 제압하실 작전적의도로 무송현성전투를 조직지휘하시였다.

백두산주변의 여러 성시들가운데서 적들이 각별히 중요시하는 군사요충지였던 무송에는 관동군, 위만군, 경찰대 등 수많은 무력과 실전에서 단련되였다고 하는 다까하시의 정예부대도 주둔하고있었다.

성안의 적들은 무력을 총동원하여 완강히 저항해나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투가 오랜 시간 계속될것을 예견하시고 김정숙동지를 부르시여 녀대원들과 함께 동산포대가까이에 있는 잘루목을 차지하고 아침식사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주시였다. 잘루목은 연기를 피워도 적들의 눈에 띄지 않을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더우기 잘루목은 조선인민혁명군이 전투를 끝마친 후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지나가게 될 하나밖에 없는 외통길목이기도 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녀대원들과 함께 잘루목에 도착하여 경계조치를 취하시고 곧 아침식사준비를 하시였다.

이때 무송현성을 동쪽과 북쪽에서 공격하던 반일부대들이 적들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치자 제멋대로 퇴각하는 바람에 그쪽에 있던 적들이 소남문쪽으로 쏠리게 되였다. 소남문포대를 점령하기 위한 싸움은 예상외로 치렬해졌고 반일부대들의 무질서한 퇴각으로 매우 불리한 정황이 조성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적들을 끌어내다가 성밖에서 소멸할것을 결심하시고 부대를 동산과 소마록구릉선으로 철수시키시였다.

유인전술에 걸려든 적들은 성문을 열고 쏟아져나왔다. 그런데 그중 한개 소대의 적들이 잘루목을 앞질러 차지하려고 달려들었다. 잘루목은 성안에 돌입했던 부대들이 동산으로 철수하는데서 하나밖에 없는 통로였다. 만약 적들이 잘루목을 차지한다면 부대는 적의 포위에 들게 되고 소남문가까이에 자리잡은 사령부가 돌이킬수 없는 위험에 처할수 있었다. 적들은 녀대원들이 차지한 앞계선에 이르자 소남문쪽에서 철수하는 조선인민혁명군부대의 퇴로를 차단할 태세를 갖추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녀대원들에게 《우리모두 죽음을 각오하고 결사전을 벌립시다. 사령부의 안전을 목숨으로 사수합시다.》라고 호소하시며 사격을 시작하려는 적기관총수를 싸창으로 단방에 꺼꾸러뜨리시였다. 그와 함께 녀대원들은 일제히 명중탄을 퍼부었다. 불의의 타격을 받은 적들은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헛총질을 하다가 조선인민혁명군이 몇명 안된다는것을 알고는 소리를 지르며 돌격해왔다. 잘루목을 누가 차지하는가에 따라 전투의 운명이 좌우된다는것을 적들도 잘 알고있었던것이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싸창을 량손에 틀어쥐시고 연방 명중탄을 퍼부으시였다. 나무뒤에 숨어서 졸병들을 돌격에로 내몰던 적장교놈이 김정숙동지의 싸창에 맞아 쓰러졌다. 적들속에서 혼란이 일어났을 때 7련대 4중대가 달려와 교차사격으로 적들을 완전히 소멸해버렸다. 그사이에 부대주력은 무사히 철수하여 매복진을 폈고 추격해나온 악명높은 다까하시정예부대를 전멸시켰다.

이 무송현성전투는 김정숙동지께서 항일의 녀성영웅으로 위훈을 떨치신 전투였다.

무송원정의 나날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하시였다.

《무송원정이 힘든 원정이였다는것은 내가 여러번 말했습니다. 사실은 그때 나도 육체적으로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밤이면 대부분의 대원들이 다 잠에 곯아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김정숙만은 우등불곁에서 온밤 자지 않고 대원들의 해진 옷을 손질해주었습니다. 행군길이 하도 험하다나니 옷이 쉽게 해졌습니다. 신입대원인 마동희도 그 원정에 참가했다가 우등불에 모자를 태웠는데 김정숙이 새것처럼 기워놓았습니다.

후에도 체험한바이지만 김정숙은 무슨 일거리든지 손에 잡기만 하면 온 심혼을 다 바쳐 맵시있게 마무리를 해놓군 하였습니다. 그날밤 그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탄복하였습니다.

무엇에 탄복하였는가. 남을 돕지 않고서는 발편잠을 자지 못하는 그 남다른 성품과 인정미에 탄복하였습니다.

이 생활세부를 통하여 나는 녀성으로서의 김정숙을 깊이 파악하게 되였습니다.》

무송원정이 간고한 행군이였다는것은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령하 40℃를 오르내리는 강추위속에서 키를 넘는 생눈길을 헤치며 모진 기아를 이겨내야 하였던 행군, 어떤 날에는 강냉이 한알도 씹지 못하고 눈과 얼음으로 창자를 달래야 하였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송원정은 고난의 행군에 못지 않은 행군이였다고 교시하시였다.

해발이 2 000m라고 하는 되골령을 넘을 때였다.

행군대오의 선두가 령중턱에 이르도록 꼬리는 아직도 밑에서 헤매고있었다.

구대원들이 앞에서 길을 내면 신대원들이 따라서고 때로는 전대오가 눈밑으로 굴을 뚫고 전진하기도 하였다.

어느날 앞에서 행군대오를 이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잠시 대오를 멈춰세우시고 령아래를 내려다보시였다.

그런데 제일 아래에서 무엇인가가 움직이고있었다.

대원들은 곰이라느니, 나무등걸이라느니, 사람같다느니 하면서 자기나름대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좀 뒤늦게 올라온 녀동무가 영문을 알아차리고 김정숙동지께서 숱한 짐을 지고 올라오고 계신다고 알려주었다.

그때 행군대오에 짐이 많았던것은 사실이였다. 더우기 녀대원들의 경우에는 짐이 더 많았다. 재봉대는 재봉대대로, 작식대는 작식대대로 불가피하게 착용해야 할 물건들이 많았던것이다.

그러나 김정숙동지께서 감당하신 짐은 그 정도가 아니였다. 등에는 쌀과 부식물이 들어있는 배낭과 작식도구들이 매달려있었고 머리에는 10여개의 소랭이묶음, 거기다 어깨에는 신입대원들의 총과 물통까지 메워져있었다. 그 정도였으니 우에서 내려다보면 그런

정도로 착각할수밖에 없었던것이다.

잠시후 김정숙동지께서 올라오신 다음에 보니 사람보다 짐이 더 컸다.

모두다 감동을 금치 못하고있는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휘성원들을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우리 녀대원들은 정말 이악하오. 저렇게 짐을 잔뜩 올려놓고도 끝까지 따라다니고있소. 자기에게 맡겨진 혁명임무를 수행하려고 이악하게 애쓰는 녀대원들의 품성이야말로 모두가 본받아야 할 혁명가적풍모요.》

무송원정의 나날 누구보다 힘들어한것은 신입대원들이였다.

그들은 대다수가 장백지구에서 입대한 청년들이였다. 입대하자마자 그처럼 간고한 행군길에 올랐으니 그들은 여간만 힘겨워하지 않았던것이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밤이면 잠든 신입대원들이 마음놓이지 않으시여 이곳저곳 불무지들을 돌아보군 하시였다.

어느날 김정숙동지께서 한 불무지곁에 이르시였을 때였다.

장백에서 입대한 신대원이였던 마동희가 모자가 타는것도 모르고 자고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얼른 모자를 벗겨 눈무지에 비비시였다. 마동희는 잠결에 그것도 모르고 헛소리까지 치고있었다. 그 광경을 보던 대원들이 웃음을 참지 못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러는 대원들을 나무라시며 말씀하시였다.

《웃지들 말아요. 그 험한 눈길을 처음으로 걸어보는 동무가 여기까지 따라온것만도 얼마나 용한 일이예요. 저 동무에게는 첫

행군이 아니예요.

사령관동지께서는 우리 구대원들이 신입대원들을 잘 돌봐주고 이끌어주어야 한다고 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했어요.》

김정숙동지께서는 곧 바느실을 꺼내들고 모자를 깁기 시작하시였다. 귀덮개를 원상대로 곱게 기우신데 이어 빨간 색실로 모자앞에 오각별까지 수놓으시였다.

그때에야 마동희는 무슨 기척을 느꼈는지 잠에서 깨여났다.

영문을 알아차린 그는 어쩔바를 몰라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의 마음을 누잦혀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불티가 모자에 날렸던가봐요. 우리도 처음 입대했을적엔 이렇게 가끔 태워먹군 했답니다.》

김정숙동지의 따뜻한 말씀에 마음이 훈훈해진 마동희는 그이께 자기는 소학교때에도 모자를 써보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이 군모는 내가 난생처음 써본 모자입니다.》라고 하면서 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그는 소학교에 다닐 때 공부는 늘 1등을 하였으나 돈이 없어 모자를 써보지 못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선생이 권세있는 집아이에게 부당하게도 1등을 주는데 격분하여 마동희는 학교를 뛰쳐나왔는데 그날 그의 아버지가 장에 가서 학생모자를 사왔더라는것이였다. 그는 그것은 내가 쓸 모자가 아니였고 그 학교도 내가 다닐 학교가 아니였다고 하면서 유격대야말로 자기가 다녀야 할 혁명의 학교이고 혁명군의 군모야말로 자기가 써야 할 모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는 마동희에게 김정숙

동지께서는 모자에 빨간별까지 붙여 돌려주시면서 말씀하시였다.

《그러니 동무나 우리나 모두 조선혁명의 대학에서 공부하는 셈입니다.

자, 대학생동무! 조선혁명의 대학모를 받으십시오!

모자에 새긴 이 붉은별이 앞으로 간고한 투쟁의 길에서 사령관동지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가 되도록 동무를 이끌어주는 마음속의 별, 충성의 별이 될것을 바랍니다.》

그후 마동희는 적들에게 체포되였을 때 스스로 혀를 끊어 끝까지 백두산밀영에 대한 비밀을 지키고 장렬한 최후를 마쳤다.

500명의 인장이 찍힌 량민보증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하시였다.

《우리가 김정숙을 도천리에 파견한것은 1937년 3월, 서강회의전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엄옥순이라는 이름으로 무산에서 살다가 오는 이주민가족으로 가장하고 도천리에 내려가시였다.

자주색저고리에 곤색세루치마, 목이 긴 버선 그것이《무산집새애기》김정숙동지께서 도천리사람들에게 처음으로 보여준 차림새였다. 함경도사람들은 젊은 녀인들을 새애기라고 불렀다.

도천리는 신파대안에서 30리쯤 떨어져있는 산간마을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하시였다.

《김정숙은 농사일로 바쁘게 보내면서도 밤이면 나들이를 다니며 마을사람들과 얼굴을 익히였다. 얼굴을 익힌 다음에는 이름을 익혀두고 무슨 북청집이요, 갑산집이요, 흥남집이요 하는 집이름도 익혀두었다. 그가 후에 하는 말에 의하면 한주일동안에 마을사람들의 이름도 다 외우고 집이름도 다 외워두었다는것이였다. 김정숙은 이 별치 않은 일을 인민들속으로 들어가는 첫번째 공정으로 보았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지나가는 길에 잠간 들렸던 집에서도 그냥 앉았다가 일어서는 법이 없이 나무도 패주고 물도 길어주고 방아도 찧어주시였다. 마을사람들을 위해 바치는 김정숙동지의 정성은 참으로 돌우에 꽃이라도 피울수 있으리만큼 지극하였다. 이 과정에 로인들이 그이를 따르기 시작했다. 도천리혁명화의 돌파구는 이렇게 열리였다.

한번은 류가골지주가 열병에 걸린 부엌데기소녀를 산중초막에 내버린 일이 있었다. 아무도 그 불쌍한 소녀를 돌봐줄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그런 사연을 알게 된 김정숙동지께서는 꺼리낌없이 초막에 찾아가시여 소녀와 침식을 같이하며 병구완을 해주시였다.

그 소식을 듣고 동무들이 초막으로 달려갔다. 그들은 살릴 가망도 없는 아이 하나때문에 위험천만한 자선모험을 하다가 감염되여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사령부에서 준 큰 임무는 어찌하며 그 책임은 누가 지겠는가, 돌봐주더라도 침식을 같이하는것만은 제발 그만두라고 말리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웃으시면서 그들을 안심시키시였다.

《걱정말고 돌아가세요. 목숨이 두렵다고 아이 하나 살려 못낸다면 나라는 어떻게 찾고 인민은 어떻게 구원해내겠어요? 인민을 살리자고 내댄 목숨인데 두려울것이 없어요.》

김정숙동지께서는 끌끌내 그 불쌍한 소녀를 살려내시였다. 도천리사람들은 마침내 그이를 《우리 옥순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소금에 절인 고등어 한마리가 생겨도 그들은 《우리 옥순이》를 찾았고 갓난애기의 백날잔치를 차려도 《우리 옥순이》부터 찾았다. 김정숙동지는 그들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딸로 되였고, 손녀로 되였고, 누이로 되였고, 언니로 되였다.

1937년 여름에 김정숙동지께서는 적들에게 체포되였다.

도천리의 부녀회원들이 혁명군의 출판소에 보내려고 장만해두었던 종이퉁구리들이 정안군의 수색과정에 발견되였는데 그것이 화근으로 되였던것이다. 적들은 무작정 김정숙동지를 결박하여 자기들의 본부가 있는 요방자로 끌고갔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최후를 각오하고 조직에 보내는 유서를 쓰시였다.

《안심하십시오. 나는 죽을것입니다. 그러나 조직은 살것입니다. 나의 재산의 전부인 2원을 보냅니다. 조직의 자금으로 써주십시오.》

조직에서는 성원들을 발동하여 비상구출작전을 벌리였다.

도천리의 조직원들은 대표단을 무어가지고 정안군부대 본부에 찾아가서 아무런 죄도 없는 량민을 불법체포한데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고 즉시 석방을 요구하였다.

도천리조직원들의 항의투쟁이 마침내 은을 내였다. 정안군부대

본부에서는 부대이동을 구실로 김정숙동지를 14 도구경찰서에 넘겼다.

도천리구장인 정동철은 김정숙동지를 그 경찰서에서 13 도구경찰서로 이송시키도록 교섭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 경찰들의 호송하에 도천리부락을 지나신것은 한낮이 조금 지난 때였다.

신도 없이 맨발로 경찰들의 총부리에 떠밀리우며 걸어가는《무산집새애기》의 결박당한 모습을 보게 된 도천리마을사람들은 비분의 눈물로 그이를 배웅하였다. 한 할머니는 짚신을 들고 길바닥에 달려나와 김정숙동지의 피흐르는 발에 신겨주면서 호송하는 순경들을 호되게 꾸짖었다.

《이놈들아, 우리 옥순이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생사람을 잡아가느냐? 네놈들이 우리 옥순이를 공산당이라구 잡아간다는데 옥순이같은 사람이 공산당이면 나도 공산당을 따라가겠다.》

정동철은 그 길로 김정숙동지를 뒤따라가서 13 도구경찰서장에게 석방교섭을 들이댔다. 경찰서장은 500명분의 량민보증서를 작성해오면 김정숙동지를 《량민》으로 인정하고 석방시키겠다고 약속하였다. 경찰서장이 그와 같은 엄청난 량의 보증서를 요구한것은 차후 상급에서 문제시하게 되는 경우 책임을 회피할 증빙문건을 남겨두기 위해서였다. 하늘에서 별을 따다 바치라는것만치나 실행하기 어려운 요구였다. 그러나 정동철은 그들이 요구하는 보증서를 작성해가지고 가서 서장의 책상우에 올려놓았다. 서장은 눈알이 튀여나올 지경으로 놀랐다. 《역적》이나 《공비》로 지목된 《불온분자》를 《량민》으로 인정하는 보증서에는 아무나 함부로 손지장을 누르려 하지 않는것이 보편적인 대중심리였다. 경찰서장

은 정동철과의 《우정》때문에 체면상 량민보증서를 받아오면 석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것은 절대로 실행될수 없을것이라고 생각하였던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하시였다.

《500명의 도장과 지장이 주런이 찍혀있는 량민보증서, 실로 그것은 하나의 기적이였다.

그와 같은 일이 어떻게 생겨날수 있었는가? 200여호밖에 안되는 도천리마을에 그렇게 많은 지하조직원이 있었을수도 없다. 아무리 조직이 발동되였다 해도 조직원보다 몇배나 더 많은 그 숱한 비조직원들이 모두 남의 풍에 떠서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는 보증서에 함부로 도장을 누를수는 없었을것이다.

그 뭇사람들로 하여금 량민보증서에 서슴없이 도장을 누르게 할수 있은것은 김정숙에 대한 인민들의 다함없는 사랑이였고 지지였다. 달리 말하여 강권이나 금권보다도 더 위력한 인민의 절대적신뢰와 지지가 그런 기적을 낳게 한것이다.》

해방후 언제인가 도천리에서 지하조직성원으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평양에 올라왔다가 위대한 수령님의 댁을 찾은적이 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손님들을 위해 교즈를 빚으시였다.

그날의 화제는 자연히 도천리-신파시절로 흘러갔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동지들의 도움으로 사경에서 구원되던 때의 일을 감회깊이 회고하시면서 눈물을 지으시였다. 그러시면서 요방자에 잡혀가 감금당했을 때 얼마든지 탈출할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노라고 말씀하시였다.

《사실 보초 하나쯤 제끼고 내뛰는거야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렇지만 그렇게는 못하겠더군요. 제가 갇혀있던 집의 늙은내외의 가긍한 정상을 생각하면 어떻게 보초를 제끼고 달아날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도망가기는 쉽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빠져나가면 이 집 늙은이들은 어떻게 되고 나를 좋은 녀자라고 보증해나선 정구장은 어떻게 되고 도천리의 지하조직과 인민들은 또 얼마나 큰 피해와 시달림을 당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니 내 한몸이 희생되더라도 조직을 지켜내고 인민을 지켜내야 하겠다는 각오가 생기였습니다. 저는 그날밤 편안한 마음으로 그 집웃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일신을 바치려고 마음먹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두려운것도 없고 주저할것도 없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것이 바로 도천리-신파시절의 《무산집새애기》의 모습이였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쓰시였다.

《나는 이따금 이런 질문을 던져보군 한다. 어떻게 되여 김정숙은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후원속에서 어려운 지하공작을 해낼수 있었을가?

만일 김정숙이 인민에게 참다운 사랑을 바치지 않았더라면 그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인민은 그를 돌아보지도 않았을것이다. 인민을 위해 자기를 깡그리 바치지 않는 사람은 위기일발의 순간에 인민의 진정한 도움을 받을수가 없다. 김정숙은 인민에게 사랑을 바친것만큼 자기가 그처럼 아끼고 품어준 인민들로부터 응당한 보답을 받은것이다. 그러고보면 500명의 인장이 찍힌 량민보증서는 그가 인민의 참된 충복임을 증명하는 영원한 증서라고도 해야 할것이다.》

청봉밀영에서

장백현 7도구골짜기를 따라 동북쪽으로 깊숙이 들어가느라면 일망무제한 천고의 원시림이 펼쳐지는데 이 대원시림속에 청봉밀영이 자리잡고있었다. 청봉밀영은 조선인민혁명군의 후방밀영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주체28(1939)년 1월 상순 녀대원들과 부상자들과 함께 이 밀영에 오시였다.

그런데 련대군수관인 엄광호는 이 밀영을 책임지고있으면서 농사를 지어 부대의 식량예비를 마련하며 부대가 동기군정학습을 진행할수 있게 병실도 예견성있게 지어놓을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과업을 잘 수행하지 않고있었다. 예비병실 하나 제대로 지어놓지 않았고 식량도 넉넉히 마련해놓지 않았다.

김정숙동지를 비롯하여 밀영에 새로 온 녀대원들과 부상자들은 박달나무도 얼어터지는 엄동설한에 병실부터 꾸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2월초 어느날 밀영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남패자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에 대한 학습토론이 진행되였다.

엄광호는 대원들의 토론을 듣고있다가 혁명의 전략전술이란 주관적욕망에 의해서가 아니라 객관적정세와 환경에 적응해야 하며 따라서 올겨울과 같이 정세가 어렵고 불리할 때에는 적들과 정면으로 대결할것이 아니라 일단 물러서서 유리한 정세가 조성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리론》을 늘여놓았다.

한 녀대원이 그에게 왜 사령관동지의 방침대로 국내에로 나아가 조선혁명을 새로운 앙양에로 일으켜세워야 한다는것이 주관적욕

망으로 되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했다.

엄광호는 대뜸 낯색이 달라지면서 혁명이란 누가 생각한대로 되는게 아니라 객관적정세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고 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더는 참으실수 없었다. 결연히 자리에서 일어서신 김정숙동지께서는 복잡한 정세하에서는 적들과 싸우지 말고 뒤로 물러서서 때를 기다리는것이 상책이라고 하는것은 도피주의이며 투항주의라고 하시며 원쑤를 때려부시기 위해서는 피도 흘려야 하며 중첩되는 난관을 과감히 뚫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엄광호는 자기 체면을 세워보려고 레닌의《일보전진 이보퇴각》이요 뭐요 하면서 책상까지 탕탕 두드려댔다. 지어 그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국경지대에로의 진출에 대해서까지 《무모한 행동》이니 뭐니 하면서 비방중상해나섰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지금 사령관동지께서는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조선혁명을 일대 앙양에로 이끌어나가기 위하여 몸소 부대를 이끄시고 국경일대에로의 진군을 단행하고 계신다고 하시면서 엄광호의 발언은 사령관동지의 혁명로선과 배치되는 매우 불건전하고 위험한 견해라고 하시며 그의 기회주의적이며 투항주의적인 반혁명적정체를 폭로하시였다.

그후 엄광호는 북대정자에서 혁명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하시였다.

《그때 김정숙동무가 앞장에 서서 엄광호의 패배주의를 되게 비판하였습니다. 그는 사령부의 로선이나 작전적방침과 어긋나는

그릇된 사상에 대해서는 추호의 타협도 하지 않고 견결하게 투쟁하였습니다.》

목숨을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는것 이것은 김정숙동지의 한생을 관통하고있는 변함없는 신조였으며 확고한 의지였다.

600벌의 군복에 깃든 이야기

언제인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김정숙동지에 대해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아주 이악한 녀성혁명가였습니다. 혁명임무수행에서 그만큼 이악하고 그만큼 충실한 녀성혁명가는 없었습니다.》

김정숙동지에게 있어서 사령관동지께서 생각하고 바라시는것이면 가능, 불가능을 초월하여 반드시 수행해야 할 명령이였다.

주체 28(1939)년 김정숙동지께서는 대부대선회작전을 앞두고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600벌의 겨울군복을 제작할데 대한 새로운 임무를 받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적들의 대규모적인 《토벌》작전에 대처하여 백두산동북부의 광활한 지역에서 대부대선회작전을 펼치실 구상을 하시였다. 겨울철에 벌릴 이 대부대선회작전을 위해서는 겨울군복을 시급히 제작하는것이 필요하였다. 엄동설한속에서 진행될 대부대선회작전의 성과여부는 겨울군복을 보장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데 적지 않게 달려있었다. 사실상 몇명밖에 안되는 재봉대원들로 변변한 재봉도구도 없이 한달안에 600벌의 군복을 만든다는것은 보통상식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였다.

그 과업을 받으신 김정숙동지께서는 대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나는 이리로 오면서 이런걸 생각했어요. 사령관동지께서 주신 과업을 열흘 앞당겨 스무날동안에 해낼수는 없겠는가 하고말이예요.》

이에 대해 누구도 선뜻 대답하지 못하였다. 사실 한달동안에 수행하자고 해도 아름찬 과제였던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김정숙동지의 다음 말씀을 듣고나서 곧 호응해 나섰다.

《나는 우리에게 군복을 만들데 대한 과업을 주시던 사령관동지께서 동무들이 군복을 어떻게 제작하는가 하는데 따라 부대의 동기활동의 성과여부가 결정된다고 하시던 말씀을 두고 많은걸 생각했습니다. 사령관동지께서 군복제작문제를 두고 근심하시는데 한달기한을 주셨다고 그 기일만 지켜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마음먹고 이악하게 달라붙으면 한 열흘쯤은 단축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스무날을 목표로 삼고 한번 냅다밀어봅시다.》

재봉대원들은 밤낮없이 계속 일하였다.

군복제작이 마지막고비에 이르렀을 때 재봉바늘의 귀가 터졌다. 하나밖에 없는 바늘이다보니 너무 닳았던것이다. 녀대원들은 이제 몇벌밖에 남지 않았는데 손바느질로 마저 끝내자고 하였다.

그러나 김정숙동지께서는 아무리 정성들여 해도 재봉기로 하는

것만 하겠는가고 하시면서 바늘귀에서 실이 빠져나가지 않게 한손으로 조절하며 그냥 재봉기를 돌리시였다.

쉬는 시간은 물론 잠자는 시간도 거의 없다보니 녀대원들은 지치고 피로에 몰려 재봉을 하다가도 졸군 하였다. 이때면 김정숙동지께서는 노래를 부르시며 대원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군 하시였다.

마침내 겨울군복제작이 완전히 끝났다. 그 순간 녀대원들은 김정숙동지를 부둥켜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겨울군복제작을 열흘이나 앞당겨 끝내고 돌아온 김정숙동지와 녀대원들을 반가이 맞아주시며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재봉대동무들이 수고했습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것이 많은 조건에서도 모든 곤난을 무릅쓰고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잠도 안자고 기세를 높여 일했다는 보고를 여러번 받았습니다.

동무들이 군복제작을 앞당겨 끝내주었기때문에 부대는 아무런 지장이 없이 여유있게 새로운 작전의 길에 오르게 되였습니다.》

만두에 대한 추억

주체36(1947)년 겨울 어느 일요일이였다. 아침부터 내리던 눈이 한낮이 되여서야 멎더니 저녁부터 바람이 일었다.

창문가에 서시여 바람에 흩날리는 눈발을 이윽토록 바라보시던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만두를

좋아하신다고 하시면서 오늘 저녁은 만두를 만들어올리자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풀기가 나게 밀가루반죽도 하고 만두속도 맛있게 만드시였다.

저녁에 댁에 들어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늘 저녁에는 무엇을 했는가고 물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밝은 미소를 지으시고 장군님께서 좋아하시는 만두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환하게 웃으시며 **《만두! 그것 참 좋구만.…》**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리시고는 만두는 여럿이 모여앉아 먹어야 더 맛있다고 하시면서 댁에서 생활하던 사람들모두를 가까이 부르시였다.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모여앉았다.

식사를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전에 산에서 싸울 때 명절날이면 이런 만두를 만들어먹었는데 그게 큰 명절음식이였다고, 정숙동무가 혼자 미는 밀가루반죽을 셋이서도 겨우 밀었다고 감회깊이 교시하시며 즐겁게 웃으시였다.

만두와 관련해서는 항일혁명투사들이 오늘도 잊지 못해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다.

어느 전투끝에 많은 고기와 밀가루를 로획하게 되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저녁식사를 마치고 가시면서 혼자말씀처럼 래일아침에 대원들에게 만두국을 해먹이면 좋겠구만라고 뇌이시였다.

그리시다가 잠시 생각을 해보시고 하긴 수백명이나 되는 대원들에게 일여덟송이씩 먹이자고 하여도 숱한 만두를 빚어야겠는데

언제 그 많은걸 다 빚겠소라고 종전의 말씀을 취소하듯 뒤를 붙이시였다.

후날 김정숙동지께서는 사령관동지의 그 말씀이 무조건 만두를 빚어서 아침식사를 보장하라는 명령보다 더 가슴에 맺히더라고 회상하시였다. 그러니 잠이 오실리 만무하였다.

밀가루반죽물을 앞에 놓고 김정숙동지께서는 생각을 많이 하고 또 해보시였다.

만두를 빚는데서 제일 시간이 많이 먹는것은 반죽물을 얇게 미는 공정이였다. 보통의 방법으로는 녀대원들모두가 밤을 꼬박 새워도 불가능하다는것이 명백하였다.

그러나 반드시 하자고 마음먹은 사람에게는 길이 나지는 법이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밤알만 한 반죽덩어리에 밀가루를 흠뻑 묻혀 단번에 서너개씩 겹쳐놓고 밀어내는 방법으로 능률을 3～4배나 더 높이는 방도를 끝내 찾아내시였다.

다음날 아침 김이 문문 나는 푸짐한 만두국을 마주한 대원들은 환성을 올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놀라시면서 어떻게 밤새 그 많은걸 다 빚었는가, 동무들이 유격대식기적을 창조했다고 거듭거듭 치하하시였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가시면서 작식대에 다시한번 감사를 주시였다.

감자지짐과 떡에 대한 감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는 감자떡을 보면 항일무장투쟁을 할 때에 있은 일이 생각납니다.

어느해인가 우리는 두달나마 낟알구경을 못하고 감자와 풀뿌리로 끼니를 에운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령부작식대임무를 수행하던 김정숙동무는 나에게 매끼 통감자를 삶아주기가 딱하였던지 이따금 감자를 갈아 지짐도 지져주고 떡도 해주었습니다.

그 감자지짐과 떡이 얼마나 맛있던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정말 김정숙동무는 그처럼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나에게 온갖 지성을 다하였습니다.》

항일의 나날 김정숙동지께서는 사령부의 작식보장사업을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업으로 여기시고 숭고한 지성을 바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필요한 작식도구를 늘 갖추고계시였으며 식량과 부식물, 양념감을 떨구지 않기 위해서 애쓰시였다.

그러다나니 김정숙동지께서는 항상 다른 대원들의 배낭보다 부피나 무게가 곱절이나 큰 작식배낭을 메고 간고한 행군을 하시였다.

언제인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소부대가 왕청현 백초구쪽으로 행군하던 도중 적《토벌》대와 맞다들어 급히 산릉선으로 오를 때였다.

남보다 큰 작식배낭을 지신 김정숙동지께서는 미처 릉선으로 오

르지 못하고 적들의 추격을 받게 되시였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적들을 맞받아나가시며 싸창으로 놈들을 쐬갈기시여 김정숙동지를 구원하시였다.

김정숙동지의 작식배낭의 비밀은 주체29(1940)년 10월초 황구령 전투후 알려지게 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적들이 숙영지를 포위하고 달려드는 위험한 순간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아침식사를 드시지 못한것을 생각하시여 수령님의 식사가 들어있는 작식배낭을 등에 지고 전투에 참가하시였던것이다.

작식배낭을 펼쳐보았을 때 배낭에는 은수저와 갈매나무숟가락, 고뿌, 내의, 세면도구, 비상용약품, 바늘과 실, 비상용식량, 된장, 식찬그릇, 가성소다용나무재 등이 들어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어찌다 생기는 고기나 순대, 남새 등을 샘물이나 눈속에 정히 보관하시고 위대한 수령님께 오래동안 드리기 위해 애쓰시였다. 그리고 그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끼니를 번지시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시였다.

언제인가는 부대에 쌀이 떨어져 맨 감자만 먹고 지낼 때가 있었다. 전우들이 며칠째 감자로 끼니를 에우게 되자 김정숙동지께서는 그것을 몹시 안타깝게 여기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어떻게 하면 전우들의 입맛을 돋구겠는가를 줄창 궁리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감자를 갈아서 대원들에게 지짐도 해주시고 산나물을 뜯어다가 볶아서 소를 넣고 떡도 해주시였다. 대원들은 그때부터 감자음식을 달게 들게 되였다.

혁명적동지애, 뜨거운 정

주체29(1940)년 초겨울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온밤 행군하던 소부대는 어느 골짜기에서 잠시 숙영하게 되였다.

숙영명령이 내리자 련속되는 전투와 행군에 지친 대원들은 우등불곁에서 곧 잠들어버렸다.

그 시간에 김정숙동지께서는 골짜기로 내려가시여 장군님의 옷을 살얼음이 진 개울물에 빠시였다. 빨래를 끝냈을 때 김정숙동지의 모자밑으로 나온 머리칼이며 눈섭에는 성에가 하얗게 불려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있었다.

그런데 옷을 우등불가에서 말리우고있을 때 비상소집구령이 내리고 출발명령이 떨어졌다. 적정이 나타났던것이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서슴없이 젖은 옷을 개여서 자신의 품속에 넣으시였다.

소부대는 곧 행군길에 올랐다. 골짜기를 벗어나자 초겨울바람이 맵짜게 불어왔다. 새벽추위는 살을 에이는듯 했고 뼈속까지 스며들었다.

다음숙영지에 이르러 깨끗이 손질한 마른 옷을 개여들고 사령부천막안으로 들어가시였을 때 김정숙동지의 얼굴은 추위에 파랗게 질려있었다.

깨끗한 마른 옷과 추위에 언 김정숙동지의 얼굴을 보신 장군님께서는 낮으나 격하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누가 동무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소?》

《…》

김정숙동지께서는 아무 말씀도 없이 그 자리에 서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의 심정에 대하여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이렇게 쓰시였다.

《옷가지를 몸에 띠고 말리웠다는 말을 난생처음 들은 나는 아연해서 김정숙을 사령부로 불렀습니다. 너무나 얼어서 얼굴이 파랗게 질린 그를 보니 눈물이 날것 같았습니다. 생전에 우리 어머니도 해보지 못한 일을 그가 했다는 생각을 하니 나로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수 없었습니다.

친어머니도 해주지 못한 일을 스스로 걸머지고 나서서 자신을 희생시킨 김정숙의 동지애, 생각해보면 그것은 자기 사령관에 대한 혁명적인 동지애인 동시에 인간 김일성에 대한 뜨거운 정이기도 하였습니다.

나는 정숙동무, 나를 위한 동무의 정성에는 나도 머리를 숙인다, 그것만은 늘 고맙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동무가 어쩌자고 그런노릇을 하는가, 그러다가 촉한이라도 만나면 어떻게 할텐가, 동무가 자기를 희생한 값으로 내가 덕을 보게 된다면 내 마음이 편하겠는가,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김정숙은 가볍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고생이야 고생이랄게 있습니까. 장군님만 무탈하시게 된다면…〉

비록 정숙이앞에서는 성을 냈지만 나는 그를 돌려보내고나서 눈물을 흘리였습니다. 왜 그런지 그 순간에는 어머니생각이 났습니다. 김정숙이 나를 위해 기울이는 정성속에 어머니가 못다주고 간

사랑도 겹쳐져있는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더 말씀을 못하시고 천막밖으로 나가시였다. 천막밖에서는 소담한 함박눈이 펑펑 내리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눈발속으로 천천히 걸으시며 2년전 쌍산자전투때 있은 사실에 대하여 회상하시였다.

자신께서 직접 기관총을 잡으시고 적들을 쏘아눕히시던 치렬한 전투였다. 숨을 돌리며 식사할 틈도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옆구리가 뜨끈해났다.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보시니 난데없는 만두가 들어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 전장을 돌면서 대원들의 손에 만두를 쥐여주고있었다.

또한 어느 전투에선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창 전투를 지휘하고 계실 때 누군가 주머니에 무엇을 넣어주는것을 느끼고 돌아보시니 김정숙동지였다. 그것은 잣을 알알이 까서 종이에 싼것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그에 대하여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하시였다.

《어느해인가 우리가 식량이 떨어져 몇끼씩 굶으면서 전투를 계속하던 때였습니다. 한창 전투를 지휘하고있는데 누군가 나의 주머니에 무엇을 넣어주는것이였습니다. 돌아다보니 김정숙이였습니다. 전투가 끝난 다음 주머니의것을 꺼내서 펼쳐보았더니 잣을 알알이 까서 종이에 싼것이였습니다.

나는 김정숙에게 어디서 얻은 잣인가고 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미소만 지을뿐이였습니다. 후날 다른 녀대원들이 하는 말이 그가 직접 잣나무에 올라가 따온 잣이라는것이였습니다.》

그뿐이 아니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힘겹게 행군을 하다가 잠시 휴식하거나 숙영하게 되여도 위대한 수령님의 젖은 신발부터 말리워드리고서야 자신의 신발을 말리우시였으며 털장갑도 떠드리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 작식일을 하시느라고 누구보다 바쁘신 속에서도 틈이 생기면 부지런히 뜨개질을 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올릴 털장갑과 털양말을 뜨군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하시였다.

《산에서 털실을 구한다는게 쉽지 않은 일이였습니다. 그때는 바늘 한쌈을 얻자고 해도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숙은 적들과 싸우느라고 사철 밖에서 자고 먹고 행군하는 나를 걱정하여 솜외투도 지어주고 배띠개도 만들어주고 조국이 해방될 때까지 한해도 빠짐없이 털양말을 떠주었습니다.

그가 나를 위해 고생하는것이 미안해서 나는 언제인가 그에게 털실은 어데서 어떻게 구했는가고 물은적이 있습니다. 김정숙은 웃기만 할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이한테는 털양말이 있는가고 물었더니 그 말에도 역시 대답이 없었습니다. 내가 물러서지 않고 자꾸 캐여묻자 마지못해 〈장군님은 큰일을 하시는분이니 그런건 몰라도 됩니다.〉 하는 말만 하였습니다.》

명주솜외투에 깃든 이야기

어느해 여름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어느날 사람들로부터 총알이 명주솜을 잘 뚫지 못한다는 말을 들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후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명주솜을 구하시기 위하여 무진 애를 쓰시였다.

그러던 어느날 한 녀대원이 김정숙동지께 명주솜을 구하여 무엇에 쓰려는가고 물은 일이 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의 물음에 선뜻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잠시동안을 두시였다. 그러시다가 생각깊은 눈길로 그를 바라보시며 명주솜을 둔 외투를 입으면 총알이 뚫지 못한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명주솜외투는 가볍고 따스하다고 해요, 이런 명주솜외투를 지어 사령관동지께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숙동지의 지성을 알게 된 녀대원들은 명주솜을 구하려고 여러곳에 수소문해보았으나 워낙 중국동북내륙지방에서는 누에를 많이 치지 않는터여서 명주솜을 구하기가 조련치 않았다.

날과 달이 흐르는 속에 어느덧 녀대원들의 머리속에서는 명주솜에 대한 생각이 점차 희미해져갔다.

그러나 김정숙동지께서는 신심을 잃지 않으시고 애쓰시여 얼마후 끝내 위대한 수령님의 외투를 짓는데 필요한 량의 명주솜을 마련하시고야말았다.

그로부터 얼마후 첫 눈송이가 뽀얗게 흩날리던 어느날 김정숙

동지께서는 애써 모으신 명주솜으로 두툼하면서도 가벼운 솜외투를 지어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 일을 감회깊이 회상하시면서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하시였다.

《내가 산에서 여러해동안 입고다니던 솜외투도 실은 김정숙이 지어준것이였습니다. 그가 어디서 총알이 명주솜을 뚫지 못한다는 말을 들은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들은 다음부터 그는 기회가 생길때마다 명주솜을 모아두었다가 나에게 솜외투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날을 두고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한뜸두뜸 정성스럽게 바느질을 해서 만들어낸 외투가 내몸에 꼭 맞는것을 보자 그는 기뻐서 어쩔줄을 몰라하였습니다.

나는 숙영지에서 밤을 새우거나 잠을 잘 때면 휴대하고 다니던 노루가죽을 땅바닥에 편 다음 그 솜외투를 덮군 했는데 그러면 몸이 훈훈했습니다.》

대사하치기전투에 대한 회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하시였다.

《김정숙은 여러번 나를 위기에서 구원해주었습니다. 그는 내 신변안전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육탄이 될 준비가 되여있었습니다.

우리가 대사하치기에서 전투를 할 때 내 주변에서는 아슬아슬

한 정황이 조성되였습니다. 한무리의 적들이 나한테로 은밀히 접근하고있었던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전투를 지휘하느라고 그런 정황이 조성된줄도 모르고있었습니다.

그날 김정숙이 아니였더라면 큰일이 일어날번했습니다. 그는 몸으로 나를 막아서며 달려드는 적들을 모조리 쏴갈기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번이 아니였습니다.》

주체 29(1940)년 6 월 하순 어느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친솔하신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가 소할바령을 향하여 행군하다가 안도현 대사하치기에 이르렀을 때였다.

앞은 개활지대이고 뒤에는 그리 높지 않은 고지가 있었다.

그곳에 이르시여 잠시 대오를 멈춰세우시고 지형을 살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원들에게 신속히 앞에 놓인 강을 건늘것을 명령하시였다.

강을 건느려고 할 때 별안간 고지에서 요란한 기관총소리와 함께 총알이 비발치듯 날아와 강가의 모래터와 강물에 푹푹 박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대오를 친솔하고 계신다는 기미를 알아차린 적들이 고지에 기관총을 걸어놓고 집중사격을 해대기 시작한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처럼 위급한 속에서도 대원들에게 기관총의 집중화력으로 적을 제압하고 고지로 반돌격해올라갈것을 명령하시였다.

전투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치렬해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산중턱의 바위우에 올라서시여 달아오른 싸창을 틀어쥐신채 전투를 지휘하고계시였다.

놈들이 쏘아대는 기관총탄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바위주

변에 수없이 날아와떨어졌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적탄이 날아올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전한 곳으로 지휘처를 옮기실데 대하여 몇번이나 말씀드리시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황을 한눈에 살필수 있는 그 자리를 뜨지 않으시고 계속 전투를 지휘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사령관동지의 곁에서 그이의 신변을 지키시며 주변의 정황을 예리하게 살피시였다. 바람결이라고만 하기에는 좀 이상하게 설레이는 갈밭에 시선을 돌리시는 순간 김정숙동지의 심장은 고동을 멈추는듯 하였다. 대여섯놈의 누런 그림자가 갈밭속에 몸을 감추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계시는 산중턱으로 총구를 쳐들고있었던것이다. 위기일발의 순간이였다. 준엄한 항일무장투쟁의 불비속을 헤치시며 기나긴 세월 하루와 같이 싸움터에 서계시던 장군님께서 위험한 고비를 넘기신적은 한두번이 아니였으나 이때처럼 경각을 당해보시기는 처음이였다.

《사령관동지!》

다급히 웨치시며 김정숙동지께서는 번개같이 몸을 솟구쳐 온몸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막아서시였다. 그와 함께 싸창을 들어 방아쇠를 당기시였다. 숨막히는 순간, 야무진 한방의 총성과 함께 앞의 놈이 총을 떨어뜨리며 쓰러졌다. 뒤이어 또 한방의 총성이 울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김정숙동지의 어깨너머로 쏘신 총소리였다. 김정숙동지의 싸창은 연신 불을 뿜었다. 갈밭으로 기여들던 간악한 원쑤들은 가차없이 전멸되였다.

김정숙동지께서 장군님을 몸으로 막으시려고 달려가신 걸음은

불과 몇발자국이였고 장군님을 몸으로 막으시며 적들을 쓸어눕힌 순간은 불과 몇초밖에 안되였지만 그 한순간, 그 몇걸음은 조선혁명의 승리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한 위대한 순간이였다.

거연히 바위우에 서시여 전투를 지휘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는 김정숙동지의 얼굴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있었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신변에서 위험이 사라졌다는 기쁨의 눈물이였고 건재하신 수령님을 우러르며 무한한 행복감과 안도감에 휩싸인 혁명전사의 순결한 눈물이였다.

간악한 원쑤의 총구앞에 서슴없이 가슴을 내대시며 한몸이 그대로 방탄벽이 되고 성새가 되시였던 김정숙동지의 그 열화같은 충정심에 받들리여 수령님의 안전은 믿음직하게 보위되고 조선혁명은 줄기차게 승리의 한길을 걸어나갈수 있었다.

화가도 그려낼수 없는 불멸의 기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언제인가 해방후 복잡하였던 정세를 회상하시면서 이런 내용으로 교시하시였다.

1946 년 어느날 밤에는 우리 집에 무장한 반동놈들의 습격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기관단총을 들고 밖에 나가려고 하니 김정숙동무가 절대로 못 나간다고 하면서 내앞을 가로막던 일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주체 35(1946)년 2월 중순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저택에서 밤이 깊도록 선전부문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방송사업이 나아갈 방향과 과업들에 대하여 가르치심을 주고계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다과를 권하시며 그 자리에 계시였다.

그런데 가까운 곳에서 자지러진 총소리가 울리더니 이어 전등불이 꺼졌다. 방안은 먹물을 뿌린듯 캄캄해졌다. 불의의 정황에 부딪친 선전일군들은 긴장해져서 어쩔바를 몰라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태연자약하신 어조로 **《놀랄것 없습니다. 몇놈의 쥐새끼들이 쏠라닥거리는 모양인데 우리 좀 쉬고 이야기를 계속합시다.》**라고 말씀하시고는 일어서시여 출입문쪽으로 향하시였다.

그런데 어느새 김정숙동지께서 두팔을 벌리고 문을 막아서시였다. 그이의 손에는 싸창이 쥐여져있었다.

《안됩니다. 안으로 들어가셔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없소. 무슨 일인지 나가서 알아나 봅시다.》**라고 하시며 문밖으로 나가시려고 하였다.

그러자 김정숙동지께서는 온몸으로 문을 막으시며 《절대로 안됩니다. 나가실수 없습니다. 이것은 경위대의 요구입니다.》라고 강경히 말씀드리시였다.

선전일군들의 눈앞에는 방금전 다과를 권하시던 부드럽고 상냥하신 김정숙동지가 아니라 싸창을 틀어쥐고 서리발시선으로 어둠속을 헤가르는 백두의 녀장군, 친위병이 서계시였다. 이 순간의 그이는 말그대로 장군님의 안녕을 지키는 성벽이시였다.

그날의 광경을 목격하였던 허정숙은 후날 이렇게 말하였다.

《정말 잊을수 없는 광경이였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이름있는 화가도 이날 위대한 수령님을 옹위하여 막아나서시던 이날의 녀사의 모습과 같은 그런 불멸의 기상을 그대로는 그려낼수 없을것입니다.》

그밤의 총소리는 우리 혁명의 수뇌부를 해치려고 기여들었던 테로분자들과 이 구역을 순찰하던 보안서원들사이에 벌어진 격투의 총성이였다.

여름날 얼음과 더불어 전하는 이야기

주체 36(1947)년 여름 가만히 앉아있어도 잔등으로 땀이 흐르던 삼복철의 어느날 점심참에 댁에 들어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척 놀라와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 들고나오시는 세면물소랭이에 둥둥 떠있는 얼음덩어리, 보기만 해도 땀이 식을듯 한 그 물에 손을 잠그시며 수령님께서는 교시하시였다.

《정말 시원하군, 어디서 이런 얼음이 생겼소, 이렇게 더운 때에 얼음이 어디서 났소?》

수건을 들고 위대한 수령님의 곁에 서계시는 김정숙동지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피여올랐다.

잠시후 식사를 하신 수령님께서 잠간 눈을 붙이시려고 방안에 들어서니 마치 동굴안에 들어선듯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러나 한켠구석에 큰 얼음덩어리를 담은 그릇이 놓여있는것을 보신 위대한 수령님의 눈굽은 오히려 뜨겁게 달아오르시였다.

그에 대해 한 녀성은 이렇게 추억하였다.

《그 얼음은 전해 겨울에 김정숙동지께서 대동강에서 몸소 가져다가 벼겨속에 차곡차곡 묻어 건사하셨던것이다.

지금은 웬만한 집이면 랭동기, 선풍기, 랭풍기 다 갖춰놓고 살지만 그때는 그런 물건들이 우리 수령님의 댁에도 없었다.

김정숙어머님의 정성이 그 모든걸 대신하였다.》

주체66(1977)년 12월 24일 자정무렵, 오늘은 웬일인지 김정숙동무 생각이 나서 잠이 오지 않는다고 뇌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해방후 나는 일감이 너무 많아서 하루에 2~3시간밖에 자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밤늦게 들어오면 정숙동무는 식사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나를 맞이하군 하였습니다.》

주체71(1982)년 7월에는 이런 교시도 하시였다.

《나는 새벽 3시전에는 집에 들어가본적이 없었는데 내가 매일 집에 늦게 들어가다보니 김정숙동무도 언제 한번 일찍 저녁식사를 하고 자본적이 없습니다. 그는 내가 아무리 늦게 들어가도 기다리고 있다가 나와 같이 식사를 하군 하였습니다.》

해방후 한 경위대원은 이렇게 회상하였다.

《어느날 새벽 2시경 보초근무를 교대하고 들어가려던 나는 세면장에 불이 켜있는것을 보고 그리로 다가갔다.

그런데 그때 김정숙어머님께서 세면장에서 나오시며 나더러 서

라고 손짓하시는것이였다. 그리고 나의 귀에 대고 장화에서 징박은 소리가 크게 들려요, 장군님께서 휴식하시는데 발뒤축을 들고 앞축으로 조용히 걸어다니세요라고 이르시였다.

그러시고 다시 세면장으로 들어가시는 어머님을 보던 나는 그만 눈이 둥그래졌다. 어머님께서 맨발로 걷고계셨던것이다. 그리고는 다시 빨래를 하시는데 어찌나 조용조용 하시는지 인기척조차 느낄수 없었다.》

이때뿐이 아니라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른새벽이면 우짖는 새들을 장대로 날리시며 위대한 수령님의 휴식을 지켜드리시였고 밤에는 밤대로 위대한 수령님을 위해 스스로《보초근무》를 서군 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헌신과 로고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자신의 고생을 혁명가들만이 누릴수 있는 긍지스러운 특전으로, 인생의 다시없는 락으로 여기시였다.

12월 24일이 전하는 이야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하시였다.

《김정숙은 해마다 잊지 않고 소박하게나마 내 생일상을 차려주었지만 나는 가정을 이룬 후 10년 가까운 세월을 살면서도 그에게 생일상조차 차려주지 못하였습니다. 자기 생일에 대해서는 말조차 번지지 못하게 하는것이 김정숙의 성품이였습니다.》

주체 34(1945)년 12월 24일을 김정숙동지께서는 함경북도를 떠나

평양으로 향하는 렬차에서 맞으시였다.

그날 아침 남먼저 일어나 물을 길어오시는 김정숙동지를 보고 한 녀투사가 달려나가 물바께쯔를 빼앗으며 왜 생신날에까지 이러시는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생일날 일을 하면 일년동안 일밖에 차례지는것이 없다고 하면서 아예 일손을 잡지 못하게 하지 않던가고 항의하듯 말씀드리였다.

그 말에 어머님께서는 지난날에는 하도 고역에 시달리다보니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했지만 우리야 해방된 조국땅에 로동이 기쁨이고 행복인 그런 사회를 건설할 사람들이 아닌가고 하시며 자신께서는 손에 총을 잡고 일제와 싸우면서도 어느 하루도 작식일을 하지 않은 날이 없었던탓인지 물을 긷고 불을 때고 밥짓는 일을 하지 않는 날에는 밥맛도 나지 않는다고 흔연히 말씀하시였다.

뒤늦게 투사들이 성의를 다했으나 그때 형편에서 겨우 반찬 몇가지 갖춘 소박한 음식상이 마련되였다.

어머님께서는 생신날 떡 한끼도 대접 못한다고 안타까와하는 투사들에게 자신은 오히려 그게 더 마음 편하고 좋다고, 앞으로 인민들이 잘살게 되였을 때 우리도 생일과 명절을 잘 쇠여보자고 하시였다.

해방된 조국에서의 첫 탄생일은 그렇게 지나갔다.

주체72(1983)년 12월 24일, 지방현지지도길에 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날 아침 숙소식당옆에 대기하고있던 일군들을 보시자 눈굽이 뜨거워지시였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김정숙동무의 생일이라고 이렇게 쉬지들 않고 나왔구만.》

그날은 일요일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의 심정을 헤아려주시며 그들모두와 주방의 료리사들까지 식탁으로 이끄시였다.

그날 저녁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원을 거니시면서 오늘 하루를 아주 유쾌하게 보냈다고, 김정숙동무의 생일을 처음으로 이렇게 크게 쇠여보았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정말 김정숙동무와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지니고 조국의 광복과 건국위업에 무한히 헌신하였으며 뜨거운 인간애와 강의한 혁명정신, 고매한 인민적풍모를 지닌 녀성혁명가의 전형입니다.

김정숙동무는 나를 위해서뿐만아니라 동지들을 위하여 한생을 다 바친 참다운 혁명가입니다.》

인연이 깊은 《녀성의 노래》

주체82(1993)년 9월 19일 과일군 과수종합농장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를 수행하던 일군들은 뜻밖의 일로 진땀을 뽑게 되였다.

신대분장을 돌아보시고 기념촬영장소에 이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람들을 둘러보시고나서 **《촬영준비를 잘하지 못하였구만.》**라고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이 영문을 몰라하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올 사람이 다 왔는가고 물으시였다.

오게 된 사람들은 모두 참가했다고 말씀드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 왔다, 그런데 어째서 녀성이 한명밖에 없소?》**라고 추궁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녀성들은 다 빼놓고 남자들만 기념사진을 찍어서는 안된다고, 녀성들을 오라고 하여 같이 기념사진을 찍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일군들이 주저하다가 갑자기 각곳에 흩어져 일하는 녀성들을 불러오자면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드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녀성들을 데려오지 않으면 사진을 찍지 않겠다고까지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이 다음분장에 가서는 녀성혁신자들을 많이 참가시키겠다고 말씀드려 겨우 그대로 촬영을 하였는데 수령님께서는 몹시 서운하신 어조로 기념사진을 찍는데 녀성들을 빼놓은것은 아주 잘못되였다고, 녀성들이 없이 남자들끼리는 살아갈수도 없다고 하시면서 관리일군들과 초급일군들을 모두 남자들로만 꾸린것은 잘못되였다고 엄하게 지적하시였다.

그날 저녁 위대한 수령님의 집무실에 들어서던 한 일군은 무춤서버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의자에 등을 기대신채 록음기에서 울려나오는 은은한 노래를 감상하고 계시였던것이다.

《어버이수령님, 피곤하시겠는데 좀 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피곤하지 않소.》

흔연히 말씀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책임서기동무는 저 노래를 좋아하오?》**라고 물으시였다.

그제서야 그는 록음기에서 울려나오는 은은한 노래소리에 귀를 강구었다.

…
공장의 녀성도 농촌의 녀성도
가슴마다 불타는 애국심 품고
씩씩하게 뭉치자 장군님 두리에
…

그의 눈앞에는 만경대혁명학원시절 그 노래를 합창했을 때 밝게 웃으시던 김정숙동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저도 이 노래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김정숙어머님께서도 이 노래를…》

그가 목이 메여 떠듬떠듬 말씀드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긍정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그래, 정숙동무가 저 노래를 무척 좋아했지. 저 노래는 정숙동무와 인연이 깊은 노래요. 하루종일 공장과 농촌의 녀성들을 찾아다니고는 저녁에 돌아와 저 노래를 부르며 이제는 녀자들도 남자들과 꼭같이 새 조선건설에서 한몫 하게 되였다고 기뻐하군 했소. 그때 정숙동무가 나를 받들어 녀성사업을 많이 했소.》

일군은 그제서야 위대한 수령님께서 《녀성의 노래》를 들으시며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였는지 알아차렸다.

오늘 우리 녀성들은 김정숙동지에 대한 고마움이 넘쳐나고 그리움이 사무칠 때마다 그이께서 그리도 사랑하셨다는 《녀성의

노래》, 노래가 나온것이 그리도 기쁘시여 작곡가를 만나 정말 반갑다고 축배잔까지 부어주시였다는 그 《녀성의 노래》를 절절히 부르군 한다.

인민주권 받들고 나가는 녀성들아
우리 힘에 조국터전 날마다 건설된다
공장의 녀성도 농촌의 녀성도
가슴마다 불타는 애국심 품고
씩씩하게 뭉치자 장군님 두리에
찬란한 우리 조국 완전독립 위하여
…

현실로 된 꿈이야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하시였다.

《조국해방전야에 내가 대일작전회의에 참가하려고 모스크바에 가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날 밤 나는 초대소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김정숙이 큰방에 책을 가득 가져다놓고 나에게 이 책들을 마음대로 골라보십시오, 이만한 책이면 사령관동지께서 일생동안 보아도 다 못 보실것입니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잠에서 깨여난 다음 동무들에게 꿈이야기를 했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대통령이 될 꿈이라는것이였습니다. 그들은 롱질을 해가며 한참동안 어마어마한 해몽을 하고나서는 꿈을 보면 내가 장차 운이 굉장하게 트일것 같은데 축하한다고 하였습니다.

그후 모스크바에서 돌아와 김정숙에게 꿈이야기를 했더니 그도 웃으면서 좋은 꿈이라고 하였습니다.

세월이 한달, 두달 흐르는 사이에 그 꿈에 대한 추억도 희미해졌습니다.

그런데 김정숙이만은 그 꿈이야기를 잊지 않고있었습니다. 나라가 광복된 다음 우리가 해방산기슭에 집을 잡고 살 때 그는 서재에 책을 가득 채워놓고 나더러 해방도 되였으니 이제는 책을 마음껏 보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기념으로 사진을 찍자고 하였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일하는 일군들에게 수령님의 서재를 잘 꾸려드려야 하겠다고 늘 말씀하군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밤늦게 퇴근하시여서도 여러가지 서적들과 신문, 잡지들을 보시며 필요한 자료들을 연구하시군 하시였다. 하지만 그때까지 저택에는 서재가 따로 없어 응접실을 서재로도 리용하고있었다.

그러던 주체 36(1947)년 4월 어느날 김정숙동지께서는 한 일군을 만나시여 위대한 수령님의 서재를 꾸릴 방도를 의논해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벌써 서재를 어느 방에 어떤 형식으로 꾸리겠는가 하는것을 다 구상하고 계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 구상을 일군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

면서 설계를 한번 잘 만들어보라고 이르시였다.

며칠이 지난 후 김정숙동지께서는 완성된 설계도면을 보시고 갖추어놓을 비품에 대해서, 책장과 책상의 위치와 그 크기를 방의 구조와 대비하시면서 하나하나 가늠해보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설계가 아주 잘되였다고 하시면서 그대로 서재를 꾸리면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기뻐하실것 같다고 하시면서 빨리 착수하자고 말씀하시였다.

그리고 서재를 꾸리는데 필요한 자재명세도 보아주시고 필요한 비품들을 정성들여 만들데 대해서도 강조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바쁘신 시간을 보내시면서도 서재를 꾸리는 일을 매일과 같이 보살펴주시였다.

며칠사이에 김정숙동지께서 구상하신대로 서재가 훌륭히 꾸려졌다.

서재가 꾸려지자 김정숙동지께서는 책장에 책들을 종류별로 꽂아넣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신문과 잡지 그리고 문건들을 차례차례 정리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찍으신 사진들을 년도순위로 한장씩 구분해놓은 다음 사진밑에 간단한 해설문을 적어넣는 방법으로 사진첩을 완성하도록 하시였다.

마지막으로 사진첩들을 정리할 때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사진첩에 붙이지 않고 따로 보관해두셨던 한장의 사진을 내놓으시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 김정숙동지께서 주체30(1941)년 3월 1일 타향에서 봄을 맞으시며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찍으신 잊지 못할 군복차림의 사진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날 일군들의 거듭되는 청에 못이겨 수난많던 어린시절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시는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여 투쟁하시던 이야기를 감명깊게 들려주시였다.

《장군님께서는 경험없는 저를 늘 하나하나 가르쳐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뚫고 승리를 이룩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언제나 강한 의지를 가지고 혁명군대오에 모범적으로 서있으라고 따뜻이 고무해주시였습니다.

그 말씀을 가슴깊이 새기고 전투나 지하공작임무수행에서 있는 힘과 지혜를 다하느라고 했지만 모든것을 장군님의 의도대로 원만히 수행하지 못하는것 같아서 안타까운 때가 한두번이 아니였답니다.》

그러시면서 산에서 식량이 떨어져 장군님께 식사를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던 때가 제일 안타까왔다고 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싸울수 있게 된 영예와 긍지는 헤아릴수 없이 컸지만 장군님의 신변안전과 건강에 대하여 조국과 인민앞에 책임지고있다는 무거운 의무감이 심장깊이 새겨져 언제 한번 마음놓을 날이 없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한장밖에 없는 사진이라고 하시면서 그 사진을 따로 잘 보관해두라고 이르시였다.

일군들이 항일무장투쟁시기의 다른 사적물이 있으면 그것도 넘겨주실것을 청드리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 청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오래동안 소중히 간직해오신 한자루의 권총을 넘겨주시였다.

《이건 장군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주신 총이니 앞으로 장군님의

혁명박물관에 내놓을수 있을것 같아요.》

그무렵 위대한 수령님께서도 앞으로 박물관이나 해당한 기관이 나오면 넘겨주라고 하시면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사용하시던 한문자로 **김일성**이라고 존함을 새긴 네모난 나무도장을 일군들에게 넘겨주시였었다.

서재를 다 정리하고나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 서재를 꾸린데 대하여 말씀드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서재를 돌아보시면서 서재도 잘 꾸리고 도서분류도 잘하고 신문, 잡지들도 리용하기 편리하게 배치하였다고 만족해하시였다.

그리고 김정숙동지와 함께 새로 꾸려진 서재에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서재에서 많은 책들을 보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도 이 서재에서 책을 보시고 중요한 자료들을 발취하여 보고드림으로써 수령님의 정책작성에 많은 도움을 드리시였다.

다듬이질소리

위대한 수령님의 건강과 안녕을 위하시는 김정숙동지의 지성은 참으로 하늘에 닿았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내의류들과 목달개를 언제나 깨끗이 씻어 말린 다음에는 꼭 다듬이질을 하시였다. 김정숙

동지께서는 말린 빨래중에서 면실로 짠 내의류와 목달개는 따로 깨끗한 보자기를 펴놓고 약간 축축하게 물을 뿜은 다음 올이 바르게 반듯하게 펴서 포개놓으시였다. 그다음 그것을 보자기에 싸가지고 방치돌에 놓고 다듬이질을 하시였다.

다듬이질이란 다듬이방치로 토닥토닥 두드려 옷의 주름살과 천의 결면을 반반하게 만드는것이다.

이런 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들어오시기 전에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통 새벽 두세시에 퇴근하셨기때문에 김정숙동지의 다듬이질소리는 깊은 밤에도 울리였다.

한 일군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 회상하였다.

《처음에 나는 빨래를 다림질하면 쉽고 더 반반하겠는데 김정숙동지께서는 왜 다듬이질을 하실가 하고 의문을 가지고있다가 어느날 그 리유를 알게 되였다.

하루저녁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목달개를 먼저 다림질하시더니 다시 다듬이보자기에 싸서 방치돌에 놓고 또 두드리시였다.

저는 다림질한것을 왜 또 두드리시는가고 물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저에게 다림질한것과 다듬이질한것과의 차이를 알아보자고 하시며 그냥 다려만 놓은 목달개와 방금 다듬이질을 한 목달개 두개를 번갈아 만져보라고 하시였다.

내가 두 목달개를 만져보니 다림질한것은 결면이 반들반들하면서 빳빳하고 다듬이질한것은 결면이 노근노근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다듬이질을 한 목달개를 손에 드시고 이것이 노근노근하여 살에 닿는 감이 포근하지요, 다림질만 하면 반반하기

는 한데 빳빳하여 목달개를 달면 목에 닿는 부분이 살에 자극을 줄수 있어요 하시며 그래서 다듬이질을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이 말씀을 받고 나는 김정숙동지께서 얼마나 구체적인데까지 마음쓰시는가를 다시금 깊이 느끼였다.

그후부터 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저택에서 밤에 다듬이질소리가 들리면 저절로 숭엄한 감정에 휩싸여 김정숙동지의 그 다함없는 충정심을 두고 생각하군 하였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이렇게 회고하시였다.

《김정숙은 해방후에도 지성을 다해 나를 받들어주었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로 나에게 세심하였는가. 며칠에 한번씩 갈아대는 목달개도 풀을 먹여서는 다듬이질을 하는 정도였습니다. 다듬이질을 해야 목달개가 노근노근해지고 목에 닿아도 뻣뻣한 감을 주지 않기때문입니다. 풀을 먹인 목달개를 인두나 다리미로 다리면 뻣뻣해서 피부가 상할수도 있고 목을 자유롭게 움직일수도 없습니다.

김정숙은 다듬이질도 내가 없을 때에만 했습니다. 내가 집에 있을 때에는 사색에 방해가 된다고 한번도 다듬이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다른 품격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하시였다.

《해방후 언제인가 녀기자들이 김정숙을 소개하겠다고 하면서 그를 찾아온 일이 있습니다.

그때 김정숙은 그들에게 〈전사의 일생은 수령의 력사속에 있습니다. 김일성장군님에 대해 더 많이 소개해주십시오.〉 하고 말해주었습니다.

나는 그 말속에 김정숙의 남다른 품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방직후에 있은 일이였다.

당시 청진에서 발행되는 《새길신문》은 《독립위해 악전고투 10여년, 희생된 동무 무한히 그리워 녀성해방의 진의를 인식하자, 김장군부인 귀국》이라는 표제밑에 김정숙동지의 청진도착에 대하여 제1면에 특집기사를 실었다.

《섬약한 녀성의 몸으로 씩씩하게도 총검을 비껴들고 만주광야를 활무대로 설한풍서를 무릅쓰고 풍찬로숙을 하면서 오직 조선해방을 위하여 조선이 낳은 혁명가 **김일성**장군과 함께 일본제국주의와 용감히 싸우며 직접 무장투쟁으로 조선혁명을 완수하려고 10여년동안 악전고투의 혈투를 계속하다가 김정숙(**김일성**장군의 부인)녀사… 지난 26일밤에 청진에 도착하였다.》

11월 28일 그이께서 계시는 숙소로는 흰눈을 하얗게 뒤집어쓴 《새길신문》의 기자들이 찾아와 기자회견을 요청하였다. 기자들은

김정숙동지를 만나뵙자 녀성의 몸으로 만주광야를 주름잡으시며 일제의 백만대군과 싸워이긴 이야기를 듣고싶어 찾아왔다고 말씀드렸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웃음을 담으시고 기자들을 둘러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저자신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장군님께서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던 이야기는 얼마든지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그이께서는 기자들에게 먼저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전략전술과 전법에 대하여 들려주시고나서 함께 싸우던 전우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였다.

퍼그나 시간이 흘렀으나 김정숙동지께서는 자신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말씀도 하지 않으시였다.

기자들이 《녀사의 생애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하고 말씀드렸을 때 그이께서는 《신문에야 마땅히 위대한 장군님에 대하여 써야지요. 전사들의 이야기는 수령의 력사속에 있는게 아닙니까. 그러니 장군님에 대해서 쓰세요.》라고 하시며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사양하시였다.

기자들은 하는수없이 몇살때 혁명의 길에 나서시였는가, 조선인민혁명군에는 언제 입대하셨는가, 어떤 전투들에 참가하셨는가 하는 물음을 연방 제기했다.

그이께서는 기자들의 질문에 짤막한 대답을 주실뿐 자신의 공적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야기하시지 않았다.

기자회견후《새길신문》은 1면에《열혈 14세 소녀의 몸으로 혁명운동에 투신》이라는 제목밑에 《김녀사의 반생》이라는 부제목을 달고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조선의 혁명가 **김일성**장군의 부인 김정숙녀사는… 간도 연길현 부암에서 14세 소녀의 몸으로 불붙은 혁명열을 못이겨 원대한 포부를 품고 가정을 뛰여나와 만주에서 일본군벌의 맹렬한 백색테로밑에서 독립을 위하여 혈투하는 **김일성**유격부대에 감연 참가하였다 한다.

직접 무기를 들고 선두에서 유격전에 출동하여 싸워 생명의 위험이 한두번이 아니였다고 한다.…》

신문은 《독립과 해방을 위해 녀성의 몸으로 반생을 투쟁, 따르자! 이 희생정신을》이라는 기사도 실었으며 김정숙동지께서 기자회견때 하신 말씀도 실었다.

《려로의 피로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의기로 왕방한 기자에게 김정숙녀사는 여러 동무를 대표하여 손을 잡으며 〈자매동포들은 얼마나 고생하였습니까.〉 하면서…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여러분도 아다싶이 조선해방이 아직 완전해결이 되지 않았으니 조선인민대중은 더욱 희생적노력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우선 전민족적대중단결을 하여야 하며 동시에 건설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조선녀성은 각성하여 조선의 현실을 정당히 리해하고 위대한 국가건설사업에 똑같이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권이 하루바삐 확립되여 조선완전독립이 실현되여 우리 녀성이 리상하는 녀성해방문제를 해결하여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선사정을 연구하고 알아서 힘있는데까지 조선건설사업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자회견내용이 실린 신문은 함경북도만이 아니라 평양과 전국각지에 배포되여 인민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늘 수령의 전사라고 하시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하시였다.

《김정숙의 한생은 나를 위해 바친 한생이였다고도 말할수 있습니다. 그는 나와 결혼한 다음에도 시종일관 나를 사령관으로, 지도자로, 수령으로 내세워주고 받들어주었습니다. 나와 김정숙과의 관계는 수령과 전사와의 관계, 동지와 동지사이의 관계였습니다.

김정숙은 자기를 늘 수령의 전사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날까지 나보고 보통 집안에서 쓰는 호칭을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부를 때에는 그저 〈장군님〉이라고 하든가 〈수상님〉이라고만 하였습니다.》

주체 35(1946)년 1월초 어느날이였다.

밖에서는 함박눈이 한낮까지 계속 내렸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눈이 멎자마자 마당에 나가시여 수북히 쌓인 눈을 치기 시작하시였다.

댁에서 함께 생활하던 친척녀성도 서둘러 밖으로 달려나가 김정숙동지와 함께 눈을 쳐나갔다. 이때 이웃에 사는 한 녀인이 김정숙동지를 찾아왔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잠시 일손을 놓으시고

그 녀인과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친척녀성은 김정숙동지께서 말씀하시는 동안에 얼마 남지 않은 눈을 다 칠 욕심으로 일손을 더욱 부지런히 놀렸다.

마침내 눈을 다 친 그는 눈가래와 삽, 마당비를 안아서 헛간에 들여다놓았다.

이때 수령님께서 오후 출근을 하시려고 마당으로 나오시다가 언뜻 헛간안을 들여다보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눈투성이가 된 눈가래와 삽을 보시고 웃으시며 이런것은 쓰고나서 잘 털어 제자리에 놓아야 보기도 좋고 다음에 쓰기도 편리하다고 깨우쳐주시였다.

그러신 후 눈가래와 삽에 묻어있는 눈을 터시려고 그것들을 손수 드시였다. 친척녀성은 그제서야 자신을 탓하며 황급히 위대한 수령님께로 다가갔다.

그때였다.

어느새 오셨는지 김정숙동지께서 얼른 눈가래와 삽을 받아드시며 공손히 말씀올리시였다.

《잘못되였습니다. 제가 곧 다시 하겠습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깨끗이 턴 도구들을 제자리에 보기좋게 놓으시였다.

그는 일을 쓰게 하지 못하여 그런 일을 당하고보니 김정숙동지 뵙기가 참 부끄러웠다.

그러나 다음순간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렇게 인자하게 웃으시며 하신 말씀이니 꾸중이라고 할것도 없는데 녀사께서 무엇이 그리도 죄송스러워 하실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날이 갈수록 그런 의혹은 더욱 짙어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녀사께서는 언제나 정중한 자세를 하시고 《예,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올리시는것이였다.

그런데 댁에서 지내고보니 위대한 수령님이시야말로 이 세상에서 더없이 소탈하시고 인자하시고 너그러우신분이여서 그이앞에서는 누구나 어려움을 잊고 스스럼없이 행동하게 되는것이였다.

그런데 위대한 수령님을 제일 몸가까이 대하시는 녀사께서 언제나 언행을 정중히 하시니 그의 짧은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리해가 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 이웃에 살던 한 녀성이 김정숙동지를 뵈오려고 댁으로 찾아왔다.

때마침 김정숙동지께서는 오후 출근을 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을 문밖에까지 나와 정중히 바래워드리고 계시였다.

차에 오르시려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문득 녀사를 돌아보시며 저녁에 손님이 올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자 녀사께서는 《알았습니다. 준비를 해두겠습니다.》라고 정중한 자세로 대답을 올리시는것이였다.

김정숙동지를 찾아왔던 녀성도 이 사실을 목격하고는 집안으로 들어가면서 녀사께 이렇게 말씀올렸다.

《세상에 우리 장군님처럼 인자하고 소탈하신분은 없으시고 또 이제는 슬하에 자제분들도 계신데 어쩌면 장군님을 그리도 어려워하십니까?》

뜻밖의 물으심에 잠시 말씀이 없으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나는 장군님을 우러러 혁명의 길에 나선 이후 이때까지 언제 어디서나 장군님을 우리 인민의 수령으로, 혁명의 수령으로 모셔왔어요.…

이것은 아마 앞으로도 내 생애의 마지막날까지 변함이 없을거예요.

나는 언제나 자신을 장군님의 혁명전사라고 생각합니다.》

담담히 울려나오는 말씀이였으나 그것은 천근무게를 가지고 두 녀성의 가슴에 충격의 메아리를 일으켰다.

사연깊은 시계

김정숙동지께서는 만경대로 자주 나가시여 조부모님들에게 효성을 다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조부모님들을 평양으로 모셔가려고 무척 마음을 쓰시였고 날씨가 추워지면 추울세라 새옷을 마련하여 보내주시였으며 색다른 음식이 생겨도 조부모님들부터 먼저 생각하군 하시였다.

어느날 저녁무렵 김정숙동지께서는 할머님께서 앓으신다는 기별을 받으시고 급히 만경대로 떠나시였다.

들길에는 벌써 어둠이 깃들었다. 자동차가 만경대에 접어들자 고향집으로 들어가는 보뚝길은 한껏 물을 먹고 수렁처럼 되여있어

더는 갈수 없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잉어와 과일이 든 보짐을 드시고 보뚝길에 나서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 고향집에 들어서시자 할머님께서는 《…별치도 않는데 공연히 알려서 또 네가 밤길을 달려왔구나! 가끔 앓군 하는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다 그 악독한 왜놈들때문에 생긴 병인데 그놈들이 다 망해 쫓겨갔으니 내 병도 이제 떨어질게다.》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가지고오신 잉어로 국을 끓여 할머님께 대접하시였다.

할머님께서는 수저를 드시면서 《참 별맛이구나.… 너의 지극한 효성에 병이 당장 나을것만 같다.》고 말씀하시였다.

한번은 김정숙동지께서 시계방에서 벽시계를 사가지고 가신적이 있었다. 만경대고향집에서는 그때까지 벽시계조차 걸어놓지 못하고 사시였다.

할머님께서는 시계를 들여다보시면서 《내가 그렇게도 부러워하던것을 사왔구나. 너의 시아버지가 중학교에 다닐 때 시간을 몰라 어림짐작으로 조반을 짓군 했는데 그때 벽시계가 얼마나 부럽던지… 네가 내 속마음까지 알아주는구나.》 하며 눈물을 지으셨다.

주체 36(1947)년 9 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금강산에 가셨을 때 김정숙동지께서는 기념품상점에서 할아버님께 드릴 지팽이를 사시였다.

지금도 만경대고향집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토방구석에 놓여있는 그 사연깊은 지팽이를 보며 조부모님들께 기울이신 김정숙동지의

지극한 효성에 감동을 금치 못하고있다.

이렇듯 효성이 지극한 김정숙동지이시였기에 만경대고향집에서는 다심하신 장손며느님께서 오기를 늘 기다리였고 그이께서 오시는 날이면 명절처럼 흥성이고 화기에 넘치였다.

어느날 리보익할머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 값이 좀 나가더라도 어디서 좋은 녀자시계를 구할수 없는가고 물으시였다. 한평생 벽시계조차 걸어보지 못하고 살아오신 할머님께서 갑자기 녀자용시계를, 그것도 꼭 좋은것으로 구해달라시는 바람에 수령님께서는 의아해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녀자용시계를 마련해가지고 할머님께 드리시면서 물으시였다.

《할머니, 이 시계를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십니까?》

할머님께서는 시계를 받으면서 말씀하시였다.

《너희들이 산에서 아무것도 없이 결혼했다는데 그게 속에서 내려가지 않고 산에서 온지도 퍼그나 되는데 이 할미가 상을 차려준게 있나, 옷 한벌 해준게 있나, 그래서 증손이 어머니한테 시계라도 채워주려고 그러네. 증손이 어머니가 시계를 차고다니는걸 보면 내 마음이 좀 풀릴것 갈구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하시였다.

《 김정숙은 일생동안 고생만 하다가 갔습니다. 일생동안 고생만 시키다가 보내는것이 너무도 가슴아파서 그와 영결할 때는 손목에 시계를 채워서 보냈습니다. 시계를 채워보낸다고 그가 한평생 나를 위해 바친 지성을 보상할수 있겠습니까. 또 그런다고

그를 잃은 상실의 아픔을 덜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그의 손목에 시계를 채워주었습니다. 아무런 사연도 없는 보통시계라면 그런 궁리를 하지도 않았을것입니다. 그 시계가 사연이 깊은 시계였습니다.

어느해였던지 우리 할머니가 필요해서 그러는데 값이 좀 나가더라도 어디서 좋은 녀자시계를 하나 구할수 없겠는가고 하였습니다.

한평생 벽시계조차 걸어보지 못하고 살아온 할머니가 갑자기 녀자용시계를 찾는데다가 그것도 좋은것으로 구해달라고 하기에 나는 이상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후 녀자용시계를 사가지고 할머니한테 갔습니다. 할머니, 이 시계를 어디다 쓰려고 그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너희들이 산에서 아무것도 없이 결혼을 했다는데 그게 속에 걸려 내려가지 않고 산에서 온지도 퍼그나 되는데 이 할미가 상을 차려준게 있나 옷 한벌 해준게 있나, 그래서 시계라도 채워주려고 그랬다면서 정숙이가 시계를 차고다니는걸 보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하였습니다.

김정숙이 이 세상을 하직하면서 차고간 시계는 바로 이런 사연을 가지고있는 시계였습니다.》

할머님의 뜨거운 사랑이 깃든 손목시계를 김정숙동지께서는 몹시 애용하시였다.

주체38(1949)년 9월 김정숙동지와 영결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가장 충직한 혁명전우의 손목에 그 시계를 그대로 채워보내시였다.

뜨거운 동지애를 전하는 모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하시였다.

《나는 굶어도 좋고 얼어도 좋고 아파도 좋다, 그러나 동지들이 배고프지 않고 춥지 않고 아프지 않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다, 내가 죽는 대가로 동지들을 살릴수 있다면 나는 아무런 미련도 없이 웃으면서 죽음의 길을 택할것이다 하는것이 바로 김정숙의 인생관이였습니다.

김정숙의 동지애가 얼마나 진실하고 열렬한것인가를 알려면 한장의 모포에 깃들어있는 사연만 들어보아도 충분할것입니다.》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에서 김정숙동지와 함께 지냈던 서순옥은 그이를 한생토록 잊지 못했다.

연길에서 살고있던 서순옥이 언제인가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오려고 평양에 찾아왔다. 그때 그는 모포 한장과 쌍안경을 가지고왔다.

서순옥은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에서 사령부작식대원으로 일하던 녀성이였다.

서순옥은 최희숙이 요방자라는 고장에 지하공작을 나갔다가 데리고와서 입대시킨 녀대원이였다. 입대당시의 그의 나이는 열대여섯살밖에 되지 않았다. 서순옥은 김정숙동지의 사랑을 남달리 많이 받았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숙영지에서 늘 자신보다 몇살아래인 서순옥을 자신의 모포로 덮어주시였고 자신의 몸으로 그를 안아 추위를 막아주시였다.

서순옥이 가져온 모포는 바로 김정숙동지께서 애용하시던것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훈련기지에서 그와 헤여질 때 함께 덮으셨던 한장밖에 없는 그 모포를 기념으로 안겨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리별에 앞서 그냥 붙들고 우는 서순옥의 배낭에 모포를 넣어주시면서 《자, 기념으로 가지고가거라. 새것은 아니지만 너를 친동생처럼 사랑해온 이 언니의 온기가 스며있다는 걸 잊지 말아달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때 그 모포보다 더 소중한 물건이 있었다면 김정숙동지께서는 그것도 서슴없이 주시였을것이다.

서순옥은 반세기가 지날 때까지도 그 모포를 귀중히 간직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 혁명동지들에게 부어주신 뜨거운 사랑의 상징으로 그이의 온기가 슴배여있는 그 모포는 주체 81(1992)년 8월 조국을 방문한 서순옥이 위대한 수령님께 기념품으로 삼가 올려 지금은 조선혁명박물관에 소장되여있다.

주작봉마루에서

주체 75(1986)년 4월 13일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과 함께 대성산혁명렬사릉에 오르시였다.

항일혁명투사들의 반신상을 보고 또 보시며, 이름도 불러주시고 위훈도 되새겨주시며 걸음을 옮기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정숙동지의 동상앞에서 걸음을 멈추시였다.

그 누구보다 하실 말씀이 많으시련만 그저 묵묵히 바라만 보시였다.

한참후에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여기서 기념사진을 찍읍시다.》**라고 하시였다.

촬영가가 샤타를 누르려는 순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김정숙동무의 동상이 잘 보이는가고 나직이 물으시였다. 그가 잘 보인다고 말씀드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좋다고, 그러면 어서 사진을 찍자고 이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인가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세상에 나라와 인민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운 이름있는 충신들이 많고많지만 김정숙동무처럼 한생을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혁명동지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싸운 참된 충신은 없을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영원히 잊지 못합니다.》

하기에 오늘도 조선인민은 대성산혁명렬사릉에서 영원한 친위전사의 모습으로 밝은 미소를 짓고계시는 김정숙동지의 동상을 찾고 또 찾는다.

위대한 수령님을 받들어 항일혁명의 빛나는 승리를 안아온 열혈의 투사들과 함께 젊으신 모습 그대로 계시는 김정숙어머님앞에서 조선인민 누구나 삼가 경모의 인사를 드린다.

오직 위대한 수령님만을 받드는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다 바치신 김정숙동지의 고귀한 한생은 이 땅에 생을 둔 모든 사람들이 한생토록 따라배워야 할 생의 귀감으로 되고있다.

2. 조선의 어머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어머님의 한생은 짧았지만 참으로 값높은 삶이였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한가정의 어머니이기 전에 수령님의 참다운 전사, 가장 친근한 동지이시였으며 조국의 딸, 인민의 딸이시였습니다. 일찌기 어린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신 우리 어머님은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수령님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정숙동지에 대하여 회고하시면서 나는 우리 어머님을 나 개인의 어머니가 아니라 수령님의 가장 충직한 혁명전사, 조국과 인민의 해방을 위하여 가장 열렬히 싸운 조선의 어머니로 생각하고있다고 교시하시였다.

주체 41(1952)년 12 월 어느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작문을 지으시였다.

《어머니,

이렇게 써놓고보니 돌아가신 어머님이 사무치도록 그리워집니다.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이 커갈수록 우리 어머님은 이 세상에서 정말 위대하고 훌륭한 어머님이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나의 눈앞에는 이제는 나라도 해방되였으니 좀 편히 쉬시라고 권하는 일군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조국을 찾고 기쁨에 겨워하지만 이날을 보지 못한채 백두밀림의 이름모를 나무밑에 묻힌 동

지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터진다고 하시면서 잃었던 조국을 찾았다고 혁명이 끝난것은 아니다, 혁명선렬들의 뜻대로 절세의 애국자이신 **김일성**장군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새 나라를 세우는 건국사업에 힘차게 떨쳐나서자고 손을 쳐들고 호소하시던 어머님의 숭엄한 모습이 안겨오는듯 합니다.

어머님은 진정 한평생을 아버지장군님을 충성으로 받들어모시고 혁명과 동지들, 인민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신 강의한 조선의 어머니, 참다운 훌륭한 혁명가였습니다.

나도 어서 커서 어머님처럼 아버지장군님을 받들어 힘껏 일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어머님께서 못다 이루신 념원을 이 강산에 활짝 꽃피우겠습니다.

아, 어머니, 나의 어머니!》

누구에게나 생을 주고 삶을 이끌어준 어머니가 있다.

훌륭한 위인의 뒤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다는 말이 있듯이 위인의 탄생과 성장은 위대한 어머니의 품을 전제로 한다.

세상에는 자식을 훌륭히 안아키운 어머니에 대한 전기들이 많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안아키우신 김정숙동지의 생애는 혈육적모성애를 수령과 그 위업에 대한 헌신성, 책임감과 결합시켜 자제분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실 훌륭한 후계자로 키우시기 위해 웅심깊은 사랑과 헌신, 정성을 깡그리 바친 위대한 어머니의 귀감이였다.

하기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머님을 그리시며 기

회가 있을 때마다 어머님의 한생에 대하여 자주 회고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그 회억의 갈피갈피를 헤쳐본다.

《회령은 우리 어머님의 고향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회령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탄생하시여 유년시절을 보내신 유서깊은 혁명의 성지입니다.》

주체43(1954)년 7월 8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회령땅을 처음으로 찾으시였다.

봄계절이 퍼그나 지난 때여서 어머님께서 그토록 생전에 자주 들려주시던 백살구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회령의 풍치를 그대로 감상할수는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저 멀리 장백의 산발을 굽어보시며 팔을천의 맑은 물이 유유히 감돌아흐르는 오산덕마루에 오래도록 서계시였다.

순간 그이를 모시고 함께 온 일군들은 눈시울이 젖어드는것을 금할수 없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생전에 그렇게도 그리워하신 고향땅을 끝내 찾으시지 못한 사연이 되새겨졌기때문이다.

해방후 어느날에 있은 일이였다.

누군가가 김정숙동지께 언제면 고향에 가시겠는가고, 이제는 친척들도 만나봐야 하지 않겠는가고 말씀올린적이 있었다.

그때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은 조선의 태양이시다, 친척들을 찾는 일은 내 개인의 일이고 **김일성**장군님을 잘 모시는것은 나라와 혁명의 운명문제이다, 나도 무척 고향에 가보고싶다, 그리운 오산덕의 고향집에 찾아가보고싶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자신을 누른다고 말씀하시였다.

어느날엔가는 아드님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신적도 있었다.

《어머님의 고향은 어딥니까?》

《회령이지.》

《고향에 한번 가보자요.》

《이다음 네가 큰 다음에 내 고향 회령에도 가고 네 고향인 백두산에도 가보자.》

《어머님, 약속했어요.》

하지만 녀사께서는 아드님과 하신 약속을 지키지 못하신채 세상을 떠나시였던것이다.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머님인들 왜 고향이 그립지 않았겠습니까, 피어린 항일전의 나날 어느 한시도 잊어본적이 없는 사랑하는 고향이였을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님은 장군님의 새 조국건설로선을 받들고 오직 혁명사업에 대하여서만 생각했지 절대로 사사로운 일은 생각하지 않으셨다고 하시면서 생전에 회령에 가보시지 못한 어머님을 두고 늘 마음쓰시였다.

언제인가 김정숙동지를 형상한 예술영화를 새로 창작할 때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영화의 주제가인 《빨찌산녀전사의 노래》를 친히 지도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가사가 진실하다고, 가사에 어머님의 시

련에 찬 생활을 그대로 가식없이 담았다고, 《어렸을 때 부모 잃고 동생도 잃고 머슴살이 천대속에 헤매던 이 몸》이라는 노래구절은 꾸밈이 없다고 하시면서 혁명의 길에 나서지 않고서는 견딜수 없었던 어머님의 절절한 심정이 가슴뜨겁게 안겨온다고 교시하시였다.

주체 98(2009)년 2 월 24 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회령을 찾으시였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김정숙동지의 동상과 고향집, 사적관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숙동지의 동상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머님의 동상을 보니 어머님이 더욱 그리워진다고 하시면서 어머님께서 너무도 일찌기 우리곁을 떠나시였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날 어머님의 동상앞에서 사진을 찍으시였다.

어머님의 고향집에 이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고향집에 오니 감회가 깊어진다고 하시면서 나는 어머님이 그리워질 때마다 회령에 와보고싶었지만 할 일이 너무 많아 시간을 낼수가 없었습니다, 1970 년대에 왕재산혁명사적지건설을 지도하면서 렬차를 타고 회령땅을 여러번 지나다녔지만 그때에도 시간을 낼수 없어 여기에 들리지 못하였습니다, 2001 년과 2002 년에 로씨야련방과 로씨야련방 원동지역을 방문하러 갈 때와 조국에 돌아올 때 렬차로 두만강을 건넜지만 지척인 어머님의 고향집에 들릴수가 없었습니다라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어머님께서도 고향인 회령에 와보지 못하시였다고 하시면서 회령고향집은 어머님에 대한 깊은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유서깊은 집이라고 감회깊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머님께서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여나 어린시절을 보내시였다고, 지금 사람들은 이런 집에서 위대한 혁명가가 탄생하였다고 하면 잘 믿지 않을것이라고 하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사적관을 돌아보시면서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수령님을 위하여, 조국의 해방과 혁명의 승리,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생을 다 바치신 김정숙동지의 한생을 가슴뜨겁게 회고하시였다.

진정 김정숙어머님의 인생사의 첫 페지가 깃들어있는 회령은 혁명의 진리를 심장깊이 새겨주는 우리 인민의 마음의 고향이며 혁명의 성지이다.

군복입은 어머님의 모습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어머님은 일찌기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한평생 총을 잡으시고 위대한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위하시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신 걸출한 녀성혁명가, 항일의 녀성영웅이시고 위대한 어머니이십니다.》

주체85(1996)년 12월 어느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느 한 대학을 찾으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항일유격대군복을 입으시고 삼지연의 봇나무앞에서 항일혁명투쟁의 나날을 회고하시는 김정숙동지를 형상한 유화를 보시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시하시였다.

어머님께서는 일찌기 어리신 나이에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손에 총을 잡고 싸웠습니다. 나는 항일혁명투사들로부터 어머님의 투쟁이야기를 자주 들습니다. 어머님은 한몸의 위험을 무릅쓰시고 백두산의 산발들과 압록강을 넘나드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신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시여 조국해방의 위업을 이룩하는데 크게 기여하시였습니다. 지난 항일무장투쟁시기 어머님은 끝없는 충정심과 높은 사격술로 위대한 장군님을 정치사상적으로 옹호보위하시였습니다. 항일무장투쟁시기 어머님을 항일유격대원들은 백두산의 녀장수라고 부르며 존경하였고 우리 인민들은 자랑스러운 조선의 딸이라고 높이 칭송하였습니다.

항일전쟁사에 《불굴의 처창즈》라는 전설이 창조된 처창즈유격구방위전투때에 있은 일이였다.

주체24(1935)년 10월 어느날 적들은 하늘에 비행기를 띄우고 포까지 쏘면서 달려들었다.

예견하지 못한바는 아니였으나 막상 까마귀떼처럼 달려드는 적들을 보자 전투를 지휘해야 할 지휘관들도, 대원들도 과연 적과 싸워 이길수 있겠는가 하는 위구심에 사로잡히게 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런 속에서도 전투정황을 예리하게 살펴보시다가 적장교놈들을 골라 하나하나 쏘아잡아 적들의 지휘체계를 마비시키시였으며 고동하다리목에 《토벌대》의 무리를 몰아넣고 집중화력을 들씌워 눈 깜짝할 사이에 적들을 요정내기도 하시였다.

다음날 전투에서도 필사적으로 발악하는 적대오의 후미를 타격하고 앞대가리를 잘라버리는 방법으로 놈들에게 혼란을 조성하도록 하시여 처창즈유격구방어전투승리에 크게 기여하시였다.

그후 류수촌전투때 김정숙동지께서는 분과 초를 다투는 긴박한 정황속에서 성벽을 무너뜨릴 기발한 방안을 내놓으시여 전투승리의 돌파구를 열어놓으시였고 내도산방어전투때에는 도처에 우등불을 피워올려 아군의 력량이 많은것처럼 적들을 기만하면서 유리한 위치에 매복해있다가 무모하게 달려드는 적들에게 순식간에 무리죽음을 안기도록 하시였다.

한 항일혁명투사는 당시를 회상하면서 그것은 바로 김정숙동지께서 일상적으로 유격전과 관련되는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들을 열심히 학습하신 덕이라고, 그이의 온몸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군사사상과 군사예술이 푹 배여있었다고 하였다.

하기에 김정숙동지께서는 자신을 항일의 녀성영웅으로 떠받드는 대원들에게 자주 이런 말씀을 들려주군 하시였다.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수 있는것은 사령관동지께서 우리 혁명의 진두에 서계시기때문입니다.

사령관동지의 선견지명있는 작전과 전술이 있었기에 우리 조선인민혁명군은 지금까지의 많은 전투들에서 적들을 무리로 쓸어눕히면서 승리에 승리를 거듭할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령관동지만 계시면 그 어떤 대적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한다는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사령관동지께서 구상하시고 펼치시는 전투마다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의 위용을 떨쳐나아갑시다.》

송기떡에 대한 추억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혁명투쟁의 나날 어머님께서는 추위도 배고픔도 피로도 다 참으시며 동지들을 위하여 할수 있는것은 다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김일성**종합대학시절 어은동에서 군사야영을 하실 때였다.

그이께서는 다른 야영생들과 다름없이 수수한 취사복을 입으시고 식당근무도 서시였다.

어느날 저녁식사가 끝난 후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늘 저녁은 참 잊을수 없는 저녁이라고 하시며 이런 내용으로 교시하시였다.

우리 어머님께서 계실 때 유격대에서 작식대일을 하던 녀투사들이 자주 집에 찾아와 산에서 만들어먹던 산나물채나 송기떡같은 것을 해놓고 어머님과 같이 식사를 하군 하였습니다. 그때 녀성혁명투사들은 산에서 생활하던 이야기를 많이 하였는데 그들은 작식대에서 간혹 색다른 음식을 할 때마다 자신의 몫으로 남겨놓았던 음식마저 대원들에게 다 내주고 맹물로 요기를 한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주체51(1962)년 8월 28일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전에 우리 집에 녀성항일혁명투사들이 자주 오군 하였는데 그들은 밥상에 마주 앉으면 늘 처창즈유격구에서 송기떡을 맛있게 먹던 일을 감회깊이 회상하군 하였다고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펼치시였다.

사실 김정숙동지께서 처창즈에 계신 기간은 1년도 못되였다.

그러나 김정숙동지께서는 한생을 두고 처창즈를 잊지 못해하시였다.

어느날 김정숙동지께서는 항일유격대 작식대원들에게 처창즈의 식량기근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시였다.

무엇이든 먹어야《토벌대》와 싸우는 인민혁명군을 돕겠는데 먹을것이 없으니 참으로 안타까왔다.

차라리 풀이라도 무성한 여름철이라면 산판에 올라 산나물이라도 뜯어먹겠는데 온 강산이 흰눈으로 덮여있으니 그렇게 할수도 없었다.

날이 갈수록 굶어서 숨지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다.

그때 가만히 앉아있었다면 처창즈사람들은 다 굶어죽고말았을 것이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를 악물고 눈덮인 산판에 오르시였다.

처창즈의 어른, 아이 할것없이 모두가 산에 올라 눈을 헤치고 풀뿌리를 캐고 도토리를 주었으며 지어는 나무껍질과 마른 머루순까지 걷어다 먹었다. 그러다보니 목구멍에서는 피까지 나왔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죽물로 아침식사를 에운 동지들을 전투장으로 떠나보내신 김정숙동지의 마음은 몹시 무거우시였다. 하루종일 고지에서 적들과 싸우고 돌아오는 동무들에게 저녁에도 죽을 내놓게 될것을 생각하니 안타깝기 그지없었다. 그래서 김정숙동지께서는 송기를 벗겨다가 배낭속에 얼마간 남겨두었던 밀가루를 섞어 송기떡을 만들어《특식》으로 내놓을것을 결심하시고 아침부터 산판에 올라 송기를

벗겨다가 송기떡을 만드시였다.

그날 저녁 유격대원들은 그 송기떡을 유쾌한 분위기속에서 맛있게 들면서 작식대에서 자기들의 식사보장을 위해 온갖 정성을 다하니 부쩍 힘이 솟는다고 하였다.

그날 밤 작식대원과 함께 자리에 누우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오늘 밤은 잠들것 같지 못하다고, 지금도 송기떡을 맛있게 들며 기뻐하던 유격대동무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막 들리는것만 같다고 하시며 해방의 그날에 우리 열흘이건, 백날이건 푹 쉬면서 오늘에 있은 모든 일들을 후대들에게 옛말삼아 이야기해주자고 하시였다.

작식대원이 오늘 자기 몫으로 남겨두었던 송기떡마저 동무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송기죽물로 끼니를 에웠으니 배가 고프겠다고 말씀올렸다.

그러자 녀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사람들이 편안하고 모든것이 여유가 있을 때 남을 돕거나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지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어려울 때에 동지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바치는것이라고 봅니다.》

그러시면서 저 하늘의 별들이 언제나 변함없이 빛나는것처럼 나도 저 빛나는 별처럼 살겠다고, 태양의 빛을 받아 빛나고있는 저 별처럼 **김일성**장군님의 뜻을 받드는 길에서 우리 함께 한생을 빛나게 살아가자고 말씀하시였다.

처창즈의 송기떡!

한방울의 물에 우주가 비낀다고 바로 그것이야말로 동지들을

위해 바치는 그 모든 수고와 지성에 대해 계산하거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김정숙동지의 동지애와 친어머니사랑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처창즈의 송기떡에 대한 회고담을 마감지으시면서 우리 어머님께서는 자신보다도 언제나 대원들을 먼저 생각하시였고 그들의 기쁨속에서 자신의 기쁨을 찾으시였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미래를 꽃피운 사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김정숙동무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하시며 남을 위해 자기를 깡그리 바치는 삶, 그것이 바로 김정숙동무가 걸어온 인생이였다고 하시였습니다.》

주체71(1982)년 12월 24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무력부(당시)의 책임일군들을 부르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 65돐을 맞으며 새로 창작된 혁명영화 《미래를 꽃피운 사랑》의 내용에 대하여 해설해주시면서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혁명영화 《미래를 꽃피운 사랑》은 어머님께서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아동단원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장차 조선혁명을 떠메고나갈 혁명의 후계자로 키우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혁명활동을 잘 형상하였습니다, 특히

혁명영화 《미래를 꽃피운 사랑》은 어머님의 혁명활동을 실지 있은 사실에 기초하여 생동하게 형상하였기때문에 어머님께서 얼마나 간고한 시련속에서 혁명의 미래를 키우시였는가 하는것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으며 눈물나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일군들은 후날 이 영화를 보면서 그것을 더 잘 알게 되였다.

주체 24(1935)년 11월초였다.

유격구를 해산하고 광활한 지대에로 진출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전략적방침에 따라 그해 5월에 진행된 유격구해산사업은 11월초에 이르러 처창즈유격구의 해산으로 완료되게 되였다.

그런데 가장 심각하게 제기된것은 아동단원들에 대한 처리문제였다.

부모있는 아동단원들은 부모들을 따라 적구로 내려보내면 되겠지만 의지가지할데 없는 아동단원들이 문제였다.

그런데 일부 지휘관들은 그들을 다 적구로 내려보내자고 주장하고있었다. 이것을 알게 된 아동단원들은 모두가 죽어도 부대를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떼를 쓰다가 유격대원들이 행군준비를 하는것을 보고서는 김정숙동지의 품에 안겨 발버둥을 치면서 목놓아울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지휘관들에게 우리는 이제부터 어려운 행군을 하여야 하며 적들과 맞다들면 전투도 해야 합니다, 이런 형편에서 아동단원들을 데리고 다닌다는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아동단원들을 다 데리고 떠나야 합니다, 그 애들이 어떤 애들입니까, 그 애들이 갈 길은 오직 혁명의 길뿐입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김정숙동지께서는 20여명의 아동단원들을 데리고

위대한 수령님의 품을 찾아떠나게 되시였다.

허나 그 길은 예상했던것보다 더 준엄하고 시련에 찬 길이였다.

총탄이 비발치는 련속적인 전투, 혹심한 추위와 굶주림…

때로는 전투마당에서 없어진 아이들을 찾느라고 해종일 험한 산발을 헤치기도 하셨고 때로는 병마에 시달리는 아이들을 보살펴주시느라고 꼬박 밤을 지새운적도 있었다.

행군대오가 내도산에 이르렀을 때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앓고있는 아동단원들을 어느 마을녀인의 집에 눕혀놓고 그들의 입맛을 돋구어주기 위해 바위소의 얼음을 까고 산천어를 잡아오시였다.

마을녀인은 아동단원들에 대한 김정숙동지의 그 지성에 감동되여 얼었던 그이의 손발을 찬물에 담그어 녹여주며 눈물을 흘리였다.

그러나 일부 지휘관들은 그이의 심정을 다는 리해하지 못하고 헐벗은 아동단원들을 이 엄동설한에 끌고다니면서 고생시키겠는가, 힘겹게 부대를 따라다니는 아동단원들이 불쌍하지 않는가고 하면서 그들을 내도산인민들에게 맡기고 떠나자고 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내도산에서 진행된 부대지휘부회의에서 아동단원들을 내도산에 떼여놓고 가는것은 희생된 동지들에게 면목이 없는 행동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혁명가들인 우리가 어찌 아동단원들을 돌보는 일을 부담이라고 생각할수 있단 말입니까. 절대로 저 아이들을 떼여놓고 갈수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가 아동단원들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후에도 김정숙동지께서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는 한 동무들은 외롭지 않으며 장군님의 품에 안길 날이 꼭 있

을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날을 믿으며 모든 시련을 굳세게 이겨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후 아동단원들은 꿈결에도 그리던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기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장군님!》하고 목메여 부르며 달려오는 아동단원들을 꼭 껴안으시고 친자식처럼 쓰다듬어주시였다.

력사적인 상봉의 그 순간, 위대한 수령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시였고 아동단원들도 울고 지휘관들과 대원들도 모두 울었다.

참으로 처창즈에서부터 마안산에로의 아동단원들의 행군, 그것은 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하나의 기적이였고 사랑의 서사시였다.

만강에서의 연예공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어머님께서는 수령님의 보살피심속에서 혁명의 진리를 배우며 혁명투사로 자라나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일제에게 부모를 빼앗긴 어머님을 뜨겁게 보살펴주시고 혁명의 길로 이끌어주시였으며 항일의 녀장수로,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워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를 그대로 예술영화로 옮기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하여주시던 때에 있은 일이다.

영화의 연출대본을 보아주시느라고 꼬박 한밤을 지새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영화예술부문 일군들을 몸가까이 부르시고 예술영화 《피바다》 연출대본을 보면서 내가 어렸을 때 수령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떠올라 온밤 잠을 이룰수가 없었다고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였다.

우리 어머님께서 세상을 떠나신지 몇해후인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있은 일들을 회상하시다가 우리 어머님도 빨찌산때에는 《피바다》의 갑순이역을 곧잘 하시였다고 하시면서 그때 숱한 사람들이 을남이를 끌어안고 피타게 부르시는 어머님의 노래를 듣고 원쑤놈들에 대한 증오심에 불타 유격대에 들어오던 일이 지금도 눈앞에 선하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들려주신 이 이야기는 만강에서 있은 일이였다.

만강은 무송과 장백의 경계에 위치한 심심산골 산재부락으로서 해발 900m에 달하는 높은 산들이 첩첩히 둘러싸여있는 함지박처럼 움푹 패인 골짜기안에 자리잡고있었다.

주체 25(1936)년 8월 24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원들을 이끄시고 만강에 있던 적들을 순식간에 습격소탕하신 후 승리의 개가드높이 만강부락에 들어서시였다.

그리시고는 만강인민들을 혁명투쟁에로 적극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시면서 손수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피바다》를 유격대원들의 연예공연무대에 올리도록 하시였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연을 앞두고 김정숙동지께서 녀대원들

과 함께 노래련습을 하고계시는 장소로 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정숙동지께 《〈토벌〉가》를 불러보라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머님께서 부르시는 노래를 조용히 다 들으시고나서 이 노래는 지내 씩씩하게 불러도 재미없지만 너무 쓸쓸하게 불러도 안된다, 그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말고 듣는 사람들의 심금을 틀어잡아야 한다, 그러자면 감정을 잘 잡아야 한다, 이 노래에서는 원쑤에 대한 증오가 끓어올라야 하고 조국에 대한 사랑이 끓어넘쳐야 한다, 이 두 감정이 잘 어울려서 표현되여야 듣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도 주먹을 부르쥐고 일어나 싸울 생각을 하게 될것이다, 노래를 통하여 만강사람들에게 원쑤에 대한 끓어넘치는 적개심을 불러일으켜주어야 할뿐아니라 그 노래소리에서 조국을 느끼고 도탄속에서 신음하는 인민의 가쁜 숨소리를 듣게 해야 한다, 그래야 열렬한 애국심을 품게 될것이며 너도 나도 조국광복을 위한 싸움터에 떨쳐나오게 될것이라고 차근차근 일깨워주시였다.

그날 밤 무대에 오르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담아 노래를 부르시였다.

…
애처롭다 슬프도다 원쑤의 손에
불에 타고 몸이 찢겨 원통하게도
네 아버지 원한 품고 돌아갔구나
…

사람들은 김정숙동지께서 부르시는 노래를 숨을 죽이고 들으면

서 눈물 지었고 눈물속에서 원쑤에 대한 증오로 몸을 떨며 두주먹을 부르쥐였다.

해방후인 주체37(1948)년 10월 어느날 김정숙동지께서는 만강에서의 연예활동과정을 회상하시면서 만강에서 제일 인상깊었던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써주신 각본을 가지고 **《피바다》**와 **《한 자위단원의 운명》**과 같은 연극들과 노래와 춤을 비롯한 다채로운 연예공연을 하던 때의 일들이라고, 특히 연극 **《피바다》**는 만강사람들에게 지울수 없는 인상을 안겨주었으며 그들을 혁명의 길로 힘차게 떠밀어주었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온 마을을 피바다에 잠그고 늙은이, 어린이들을 닥치는대로 불속에 태워죽인 일제야수들의 천인공노할 만행장면과 아버지를 참혹하게 빼앗기고 검은 연기가 타래쳐오르는 광야에서 정처없이 헤매며 통곡하는 을남이 일가의 참혹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자 만강사람들은 원한의 눈물을 뿌리였고 천백배로 복수할 일념을 안고 투쟁의 길에 떨쳐나 용감히 싸우는 어머니와 아들딸들의 미더운 모습이 펼쳐지자 마을사람들은 그에 무한히 감동되고 고무되여 혁명투쟁에 나설 새로운 결심을 다졌다고 감회깊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이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와 보살핌속에서 진행된 만강에서의 연예공연은 이곳 인민들에게 투쟁만이 살길이라는 생활의 진리, 투쟁의 참뜻을 깊이 심어주었으며 그들을 조국광복회에 굳게 뭉쳐 강도일제를 반대하는 성스러운 투쟁에 떨쳐나서도록 힘있게 고무하였습니다.》

어찌보면 그토록 천만사람의 심금을 울린 갑순이의 노래는 다

름아닌 어머님의 심장의 노래였으며 원한의 피바다를 해방의 꽃바다로 만들어야 한다는 결심품고 투쟁의 길에 나선 갑순이의 성장은 김정숙동지의 녀성혁명가로서의 성장의 한 단락이라고도 말할수 있었다.

진달래에 대한 추억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진달래는 우리 어머님께서 제일 사랑하시던 꽃입니다.》

주체 51(1962)년 9월 14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일군들과 함께 보름달구경을 하시였다.

유난히 크고 밝은 달을 이윽토록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깊은 생각에 잠기시였다가 오늘 이렇게 동무들과 같이 모여앉아 유난히 밝은 보름달을 바라보며 한가위이야기를 하게 되니 지난날의 잊지 못할 일이 떠오릅니다, 어느해인가 나는 산소에 가서 어머님 분묘앞에 진달래를 심어놓은적이 있었습니다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진달래는 어머님께서 제일 사랑하시던 꽃이라고, 동무들이 항일혁명투사들의 회상기를 보아서 알겠지만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조국진군의 길에 오르신 어머님께서 5호물동을 건너 조국땅에 첫걸음을 옮기셨을 때 감격의 눈물을 흘리시며 제일먼저 품에 안은것이 붉게 핀 조국의 진달래였다고, 그때 수령님께서는 어머님께서 드리시는 진달래꽃을 받아드시고 조국의 진달래는 볼수록 아름답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고, 어머님께서는 그때의 일을

두고두고 잊지 못하시여 정원에 늘 진달래를 곱게 피우시며 지난날을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고 하시였다.

5호물동의 진달래,

그것은 주체 28(1939)년 5월 18일에 있은 일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솔하신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는 남패자에서 북대정자에로의 력사적인 고난의 행군을 성과적으로 마친 후 항일혁명의 새로운 앙양기를 열어놓기 위하여 또다시 국내에로 진출하였다.

압록강을 건너온 민족의 장한 아들딸들을 반겨맞이한 조국의 진달래는 5호물동가에 온 천지를 덮을듯 활짝 피여있었다.

그 진달래를 보자 항일유격대원들은 모두 환성을 올리였다. 어떤 녀대원들은 두팔을 크게 벌려 진달래를 무더기채로 안고 울고 웃으며 감격해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도 낯설고 물설은 이국땅에서 어느 하루도 잊어본적이 없고 꿈결에도 달려와안기고싶던 조국땅에 우리가 왔다고 하시면서 한가슴에 진달래를 안아보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 진달래꽃묶음을 드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꽃묶음을 받아드시고 조국의 진달래는 볼수록 아름답다고 하시며 감회깊은 눈길로 조국의 산발을 이윽토록 굽어보시였다.

이날 김정숙동지께서는 대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였다.

진달래는 엄혹한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면 제일먼저 피여 봄을 알리는 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로부터 진달래를 그처럼 사랑했고 진달래와 깊은 인연을 맺고 살아왔습니다, 진달래를 보니

고향에 대한 생각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내 고향 오산덕기슭에도 봄이 오면 이렇게 아름다운 진달래가 활짝 피군 하였습니다, 아마 동무들의 고향에도 지금쯤은 진달래가 만발하게 피였을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물동가에 핀 진달래는 엄혹한 겨울을 이겨내고 강산을 덮었던 눈도 다 녹기 전에 이렇게 가지마다에 꽃송이를 피웠다고, 아마 봄이 오리라는것을 믿지 못하였더라면 이 진달래도 영영 눈속에 묻혀버리고 말았을것이라고, 진달래가 봄이 오리라는것을 믿었기에 이렇게 찬서리와 눈보라도 꿋꿋이 이겨내고 붉게 피듯이 우리 민족도 **김일성**장군님이 계시기에 조국광복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것을 믿기에 일제의 가혹한 탄압속에서도 민족의 절개를 굽히지 않고 싸워나가고있다고, 오매에도 그리던 조국땅에서 붉게 핀 진달래를 한아름 안고 조국산천을 바라보니 하루빨리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일제의 발굽밑에서 신음하는 부모형제들을 해방하여야 하겠다는 생각이 더욱 굳어진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우리 혁명의 길이 아무리 험난하다 해도 찬서리와 눈보라를 이겨내고 억세게 피여 봄을 먼저 알리는 진달래처럼 간악한 일제를 쳐부시고 광복의 봄을 알리는 〈진달래〉가 됩시다.》

하기에 김정숙동지께서는 해방직후 저택정원에 진달래를 정성껏 심어가꾸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머님께서 생전에 그처럼 사랑하시던것을 생각하시며 어머님의 분묘앞에 진달래를 옮겨심으시였던것이다. 그이께서 다음해에 가보시니 꽃이 아주 곱게 피여났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때에 본 진달래꽃을 평생 잊을수가 없으시였다.

그날부터 위대한 장군님의 가슴속에는 그리운 어머님의 모습과

함께 소박하고 부드러운 아름다운 진달래가 영원히 지지않는 꽃으로 소중히 간직되게 되였으며 그것은 언제나 그이의 마음속에 따뜻한 정과 그윽한 향기를 안겨주었다.

잊을수 없는 그 나날에 있은 사연들을 되새겨보시며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시였던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나는 얼마전에 늘 가슴깊이 간직하고있는 진달래에 대한 뜨거운 감정을 노래에 담아보았습니다라고 하시면서 친히 노래를 하나 부르겠다고 하시였다.

이윽하여 그이께서 부르시는 은은하면서도 절절한 노래소리가 조용히 울리기 시작하였다.

해빛이 따스해 그리도 곱나
봄소식을 전하며 피는 진달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꽃송이
진달래야 진달래야 조선의 진달래

오가는 비바람 다 맞으며
산허리에 피여난 붉은 진달래
긴긴밤 찬서리에 피고 또 피여서
진달래야 진달래야 조선의 진달래

때 늦은 봄에도 사연을 담아
해빛 밝은 강산에 피는 진달래
못 잊을 어머님의 그 모습이런가
진달래야 진달래야 조선의 진달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는 노래를 지어보자고 해서 지은것이 아니라 어머님과 진달래꽃의 깊은 사연을 잊을수가 없어서 마음속에 품고있던 진달래에 대한 따뜻한 정을 노래선률에 담아보았을뿐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나는 어머님께서 생전에 사랑하시던 진달래꽃을 볼때마다 생각이 깊어지군 한다고, 진달래의 생리에는 혁명가의 인생철학이 있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자연이나 인간도 미래에 대한 믿음과 지향이 강하면 철을 앞당겨 언땅우에서도 꽃을 피우며 모진 시련과 고난도 달게 여기고 이겨낸다고, 미래를 확신하고 미래를 위해 바치는 생은 가장 강하고 참되고 아름다운것이라고 하시면서 오늘과 같은 명절이나 의의깊은 날에는 지난 시기 조국의 해방과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고귀한 청춘을 바친 혁명선렬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남긴 빛나는 업적과 숭고한 념원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한다는 뜻에서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하시였다.

절대불변의 신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보위하는것이 조선혁명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은 우리 어머님의 절대불변의 신조였습니다. 하기에 어머님은 수령님의 신변호위사업을 첫째가는 임무로, 신성한 의무로 여기시고 수령님의 신변안전을 목숨으로 지키시였습니다.》

주체 50(1961)년 9월 어느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중구역 남문동(당시)에 있는 한 동무의 집을 찾아가시였다.

그 전날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서거하신 날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동무도 어렸을 때 어머니를 잃었다니 나이들수록 어머니생각이 더 날것이라고, 어머니품이란 참 이상하다고, 어머님께서 세상을 떠나신지 오래되였지만 어머님에 대한 생각은 날이 갈수록 더 간절해진다고, 지금도 어머님께서 돌아가신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것만 같다고 하시였다.

잠시후 창가에 다가가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머님께서는 수령님을 끝없이 존경하고 신뢰하시였으며 수령님을 견결히 옹호보위하시였다고 하시면서 수령님의 안녕을 위해서라면 적탄도 가슴으로 막아나서시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이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940년 봄 홍기하전투때에는 한몸의 위험을 무릅쓰시고 적들을 딴 방향으로 유인하여 수령님의 안녕을 보장하시였고 1940년 여름 안도현 대사하치기전투때에는 수령님을 향해 총을 겨누고있는 적들을 발견하시자 온몸으로 수령님을 막

아나서시면서 싸창으로 놈들을 쐬갈기시여 수령님의 신변에 드리운 위험을 가시였다고 교시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을 새겨듣는 그 동무의 눈앞에는 조선혁명박물관에 전시되여있는 총탄에 뚫린 양재기가 떠올랐다.

주체 29(1940)년 3 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부대선회작전의 마지막시기를 빛나게 장식한 홍기하전투는 조선혁명의 사령부를 해치려고 날뛰던 마에다《토벌대》를 완전히 전멸시킨 항일전쟁사에 널리 알려진 전투이다.

적아간에 치렬한 격전이 벌어지고있던 때에 뜻하지 않은 정황이 조성되였다. 적의 한무리가 사령부가 자리잡고있는 고지의 뒤릉선으로 은밀히 기여들고있었던것이다. 이것을 발견하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사령부가까이에서 맞불질을 하면 적들의 눈먼 총알이 사령부쪽으로 날아갈수도 있다는 생각에 미치자 적들을 반대쪽릉선으로 유인하기 시작하시였다.

총을 쏘시다가는 달리시고 달리시다가는 또 총을 쏘시며 적들을 유인하신 김정숙동지의 희생적인 투쟁으로 마침내 사령부에 조성되였던 위험이 가셔지게 되였다.

전투후 김정숙동지께로 달려간 대원들은 그이의 배낭우에 얹혀있는 양재기에 총알자리가 두군데나 난것을 보고 소스라쳐 놀랐다.

그때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번 전투때 사령부에 조성되였던 위험이 우리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해 생긴것 같아 얼굴이 뜨거워진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전투정황속에서 사령부호위임무를 수행한다는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위대원들은

있을수 있는 정황을 항상 예견하고 만전을 가하여야 합니다. 사령부호위임무수행에서는 천번중 단 한번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항일의 나날에 위대한 수령님의 신변을 위협하는 위기일발의 순간이 결코 한두번만 있은것은 아니였다. 그러나 그때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천번중 한번의 실수도 없이 위대한 수령님을 굳건히 보위하시였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시며 어머님께서는 우리 오누이에게 늘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모시고 수령님께 충정 다하라고 당부하시였습니다, 나는 늘 어머님의 뜻을 이어 수령님을 더 잘 모셔야 하겠다는것을 다짐하군 합니다라고 교시하시였다.

《타향에서 봄을 맞으면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어머님께서 1941 년 3 월 1 일 타향에서 봄을 맞으며 수령님과 함께 찍으신 사진은 참으로 뜻깊은 사진입니다.》

주체 91(2002)년 1 월 어느날 전선시찰의 길에 오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느 한 부대를 시찰하시다가 군인회관홀에 모셔져있는 사진앞에서 걸음을 멈추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서 타향에서 봄을 맞으며 어머님과 함께 찍으신 사진은 언제 보아도 좋습니다, 저 사진은 그야말로

명사진입니다라고 하시며 사진앞에서 오래도록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시였다.

봄물이 오르기 시작한 자작나무, 그옆에 서신 수령님곁에 어머님께서 정겹게 웃으시며 찍으신 사진.

그 사진은 위대한 수령님과 김정숙동지의 결혼사진이나 같은것이였다.

그 사진에서는 어머님의 머리모양새를 알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 대하여 김정숙은 다른 녀대원들과 꼭같이 중발머리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 머리모양새를 도저히 알수 없습니다, 머리칼을 군모안에 모조리 뭉그려넣었기때문에 알수 없게 되여있습니다, 그게 다 사연이 있습니다라고 회고하시였다.

사실 사진을 찍던 그날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도 녀대원들도 그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

소부대를 데리고 훈춘방향으로 행군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상하게 발이 후끈후끈해나는것을 느끼시였다.

처음에는 행군을 많이 해서 그런가보다 하고 무심히 생각하시였는데 걸음을 옮기실적마다 발바닥에 무엇인가 따뜻하고 부드러운것이 와닿는 감촉을 느끼시였다.

신발을 벗어보니 신발바닥에 머리칼로 만든 깔개가 깔려있었다. 그것은 바로 김정숙동지께서 자신의 머리칼을 잘라 만드신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결혼을 선포하시던 그때를 감회깊이 회고하시면서 나와 김정숙이 결혼하던 날 전우들은 우리를 위해 무엇인가 마련해보려고 하였으나 아무것도 구하지 못하였다고, 온 부대가

식량이 떨어져 끼니도 잇지 못하는 때에 어디서 무엇을 마련할수 있었겠는가고, 새 세대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그럴수가 있는가 하고 머리를 기웃거릴지 모르겠지만 그때의 형편에서야 달리야 될수 없지 않는가고 하시였다. 그러시며 모두가 그런 식으로 혼례를 치르었으며 오히려 그것을 멋으로 여기였다고 하시며 래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의 고난을 달게 받아들이며 참고 견디는데서 삶의 보람을 느끼는것이 바로 항일유격대원들의 락이였다고 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는 그게 늘 속에 얹혀내려가지 않았다고 하시였다.

돌이켜보면 김정숙동지는 타향의 그 봄날 사진에 비껴진 모습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가장 가까운 동지로서 언제나 수령님과 함께 계시였다.

언제인가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는 **《타향에서 봄을 맞으면서》** 사진을 볼 때마다 생각이 깊어집니다, 어머님께서는 우리 혁명이 제일 어렵던 시기에 위대한 수령님을 받들어모시기 위해 충성을 다하시였습니다, 나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혁명전사의 신념과 의리에 대하여 생각하군 합니다, 신념과 의리가 없는 사람은 혁명가라고 말할수 없습니다, 한번 결심품고 혁명의 길에 나선 사람은 천백번 죽더라도 변치 않는 신념을 가져야 하며 혁명의 수령에 대한 고결한 의리를 지켜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한 우리 혁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석같은 신념,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고 혁명가로 키워주신 수령님의 고마운 은덕에 기어이 보답하려는 뜨거운 혁명적의리, 바로 어머님의 충성심은 여기에서 나온것입니다, 이것은 혁명가의 제일생명이며 가장 고결한 풍모입니다, 나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어머님처럼 위대한 수령님을 잘 받들어

모시고 충성 다하리라 마음다지군 합니다라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계속하여 세상에는 녀성혁명가들이 많지만 우리 어머님처럼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한 투쟁에서 불멸의 공적을 세운 그런 혁명가는 일찌기 없었다고 교시하시였다.

《나는 백두산에서 나서자랐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는 백두산에서 나서자랐습니다. 설레이는 밀림과 휘몰아치는 눈보라, 이것이 백두산의 특유한 풍치입니다. 백두산은 참으로 아름답고 유서깊은 곳입니다.》

주체 77(1988)년 8월 어느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소백수골안의 백두산밀영을 찾으시였다.

그이께서 량강도를 현지지도하실 때마다 백두산지구의 혁명전적지와 사적지들을 돌아보군 하셨지만 사령부귀틀집이며 생가가 자리잡고있는 소백수골에 오시기는 그날이 처음이였다.

먼저 새로 발굴된 구호문헌들의 글발들을 하나하나 읽어보시며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령부귀틀집에 있는 유물들을 세심히 돌아보신 다음 생가앞에 이르시였다.

푸른 잎을 펼치고 솟은 나무우듬지며 그날의 기개가 비껴있는 바위츠렁들을 일별하기도 하시고 깊은 생각에 잠기시여 생가를 바라보기도 하시던 그이께서는 묵묵히 부엌으로 들어서시였다.

김정숙동지의 손길이 스며있으며 자신의 유년시절의 추억이 깃든 유적, 유물들…

그이께서는 문밖으로 나오셨지만 고향집뜨락에서 쉬이 발걸음을 떼지 못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연연히 백두산쪽으로 흘러간 산발들을 더듬으시며 이윽토록 서계시였다.

일군들에게는 주체 57(1968)년 7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산정으로 오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되새겨졌다.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으로부터 백두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늘 백두산은 아버님께서 강도 일제놈들을 때려부신 의의깊은 곳일뿐아니라 내가 태여난 고장이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나는 어린시절에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고 뜻깊은 곳이 백두산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득한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이 조종의 산으로 불러오던 백두산이 수령님께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시던 그때부터 혁명의 성산으로 되였습니다, 밀림속을 지나 이렇게 백두산을 눈앞에 바라보며 걸으니 고향집대문을 열고 뜰안에 들어서는것만 같습니다.

백두산밀영고향집은 위대한 장군님의 생가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 31(1942)년 2월 16일 아직은 주소도 번지도 없던 이 백두산밀영의 귀틀집에서 탄생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어느날 백두산밀영에서 대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나는 최근 몇달동안에 혁명조직과 동지들이 얼마나 귀중하며 그 품을 떠나서는 싸울수도 살수도 없다는 투쟁과 삶의 진리를 더

욱 절감하게 되였습니다.

여러 동무들이 백두의 천고밀림에서 백두산장군이 태여났다고 열렬히 축하해주고 극진히 사랑해주고있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나는 동무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우리 **김정일**을 훌륭하게 키워 장군님의 뜻을 이어나가도록 해야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게 다지게 됩니다.》

그후에도 김정숙동지께서는 녀대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였다.

《나는 백두산밀영에서 **김정일**에게 변변한 포단 하나 마련해주지 못하고 쌀이 없어 밀가루로 미음을 만들어주는것이 너무 가슴아파 눈물을 흘리던 동지들을 잊을수 없습니다. 그때 **김정일**이 배는 많이 곯았지만 동지들의 보살핌속에서 아무 탈없이 자랐습니다. 정말이지 **김정일**은 내가 낳았을뿐이지 그를 키운것은 동지들입니다. 사령관동지께서도 **김정일**은 동지들이 키웠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동지들이 더없이 고맙다고 여러번 말씀하시였습니다. 나는 동무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김정일**을 잘 키워 조국과 인민앞에 크게 내세울 결심입니다.》

하기에 김정숙동지께서는 아드님을 위대한 수령님의 후계자로 키우시는것을 그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사명과 임무로 받아안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백두산을 알아야 오늘의 조선을 알수 있다고 하시며 나어린 장군님께 백두산에 깃든 혁명정신과 혁명업적을 잘 알도록 하는데 특별한 주목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학창시절에 있은 일이다.

언제나 새 학습장을 쓰실 때면 맨 첫장에 《백두산》이라고 정

중한 필치로 써넣군 하시는 그이를 보고 한 동무가 사연을 물었다.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백두산은 내 고향이다, 백두산은 천지가 있고 나무도 많고 또 아버지원수님께서 왜놈들을 때려 눕힌 곳이다, 우리 어머님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늘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연필 쥔 나의 손을 잡으시고 《백두산》이라는 글자를 익혀주시였다라고 교시하시였다.

김정숙동지의 아드님에 대한 사랑은 곧 백두산에 대한 사랑이였고 백두산에 대한 사랑이자 곧 아드님에 대한 사랑이였다. 김정숙동지의 그 고결한 사상감정은 풍만한 자양이 되여 위대한 장군님의 넋속에 그대로 흘러들었고 항일의 녀장군의 그 백두산기질은 위대한 장군님의 천품으로 되였던것이다.

만경대의 혁명정신을 이어주시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백두산과 만경대가 다 나의 정든 고향이라고 하는것은 백두산과 함께 만경대에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조선을 빛내여나갈 원대한 포부가 싹트고 자라났기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우리 어머님이 조국에 돌아오시여 수령님의 혁명사업을 도와드리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자주 나를 데리고 만경대를 다녀오신것도 만경대의 혁명정신을 이어받게 하시려는 깊은 뜻에서였던것 같습니다.》

주체 61(1972)년 4월 22일 만경대고향집을 찾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여기 만경대에서 시원이 열리고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우리는 만대에 길이 빛내여나가야 한다는 귀중한 교시를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만경대혁명일가분들의 원대한 뜻과 뜨거운 숨결이 고이 간직되여있는 만경대고향집을 주체35(1946)년 1월 1일 위대한 수령님과 김정숙동지를 모시고 처음으로 찾으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증조할아버님이신 김보현선생님께서 장농에 고이 간수해두시였던 벼루로 《**김일성장군 만세!**》라는 글발을 쓰시였다.

그 벼루로 말하면 할아버님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지원**》이라는 글발을 쓰시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독립**》이라는 글발을 쓰신 사연깊은 벼루였다.

증손자분이 너무 대견하고 기특하여 김보현선생님께서는 무릎을 치시며 《옳다, 네가 만경대집의 혈통을 타고났구나.》라고 말씀하시였다.

그 말씀의 뜻을 다는 터득할수 없으시였던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김정숙동지께 그 뜻에 대하여 조용히 물어보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만경대집의 혈통을 잇는다는것은 대대로 나라와 인민을 위해 몸바쳐온 만경대집안의 피줄을 이어간다는 뜻이라고 하시면서 이 만경대고향집에서 나서 자란분들은 다 나라와 인민을 위해 원쑤와 용감히 싸웠다, 이제는 네가 어서 커서 아버님의 뜻을 이어 광복된 우리 나라를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바로 그렇게 하는것이 만경대의 혈통을 이어가는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후부터 김정숙동지께서는 아드님으로 하여금 만경대가정의 애국, 애족, 애민의 가풍을 빛나게 이어가게 하시려고 아드님을 앞세우고 자주 만경대에 찾아오군 하시였다.

그때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아드님께 증조할아버님과 증조할머님으로부터 아버님의 어린시절에 대한 이야기들,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린시절에 즐겨 찾으시던 군함바위며 씨름터, 학습터, 만경봉에 깃든 사연들을 가슴깊이 새기도록 해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나어린 장군님과 함께 김보현선생님과 리보익녀사의 일손을 도와 손수 씨뿌리기, 김매기, 거름내기도 하시고 부엌일과 방안거두기도 하시며 만경대일가분들의 소박하고 근면하신 품성을 따라배우도록 하시였다.

잊지 못할 그 나날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버님이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사상적풍모도 바로 만경대에서 싹트고 자라났으며 수령님께서 밝히신 자주정신도 바로 만경대에 뿌리를 두고있으며 수령님의 강의한 의지와 고매한 인민적품성도 바로 만경대에서 키워지고 형성되였다는것을 심장으로 체득하게 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어린시절을 그대로 따라배우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열망은 날을 따라 높아졌다.

그러던 어느해 가을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어리신 장군님을 앞세우시고 만경봉에 오르시였다.

오곡이 무르익는 풍요한 가을의 향기가 넘쳐나는 만경대의 일만경치가 아름다운 한폭의 그림처럼 안겨왔다.

장군님께서는 가을빛이 짙은 산발을 둘러보시다가 어머님께 다른

산들은 다 누렇게 되였는데 저기 남산과 만경봉은 푸르다고 하시며 그건 왜 그런가고 물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것은 소나무가 많기때문이라고 하시면서 소나무는 아무리 눈보라가 세차고 추위가 심해도 푸르청청하기때문에 사람들은 이 나무에 비하여 자기의 굳은 절개를 노래하여왔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김형직할아버님께서 지으신 시 **《남산의 푸른 소나무》**를 읊어주시였다.

남산의 저 푸른 소나무가
눈서리에 파묻혀서
천신만고 괴롬받다가
양춘을 다시 만나 소생할줄을
동무야 알겠느냐
…

김정숙동지께서는 시에 담겨진 뜻을 하나하나 설명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그 시에 대해서, 할아버님의 투쟁에 대해서 더 알고싶어하시는 장군님을 데리시고 봉화리에도 가시고 칠골에도 찾아가시였다.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때를 돌이켜보실 때마다 어머님에 대하여 그토록 잊지 못해 하신것이였다.

어느해 봄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과 함께 맑은물 흐르는 대동강가에서 만경봉을 부감하신적이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여기서 바라보니 만경봉의 풍치가 더욱 아름답다고, 유유히 흐르는 대동강이 만경봉의 풍치를 더욱 돋구어준다고 하시면서 이런 내용으로 교시하시였다.

나는 어렸을 때 어머님을 따라 자주 만경대에 가서 증조할아버님과 증조할머님으로부터 할아버지의 혁명활동과 아버님의 어린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듣군 하였는데 그때마다 어서 커서 아버님의 뜻을 이어 조선을 더욱 빛내여 나가리라 굳게 마음 다지군 하였다, 백두산이 내가 나서 자란 혁명의 요람이라면 만경대는 내가 직접 수령님의 어린시절을 따라배우고 일가분들의 교양과 영향을 받으며 혁명의 뜻을 키운 유서깊은 곳이다, 만경대는 나의 일생에 영원히 잊을수 없는 마음의 고향이다.

호위병의 임무를 수행하시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해방후 나라의 정세는 매우 복잡하고 긴장하였으며 도처에서 반동들이 악랄하게 준동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새 조국건설시기에도 항일혁명투쟁시기와 다름없는 자세로 수령님의 신변안전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시고 솔선 호위병의 임무를 수행하시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집무실로 나가실 때나 돌아오실 때가 되면 의례히 밖에 나오시여 주변을 살피시였으며 수령님께서 저택에서 밤늦도록 일하실 때에는 집주변을 순찰하군 하시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수령님을 호위하는 경위대에도 자주 나가시여 호위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토론해주시며 경위대가 자기의 사명을 다하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주체 85(1996)년 11 월 9 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군지휘성원들에게 어머님께서 우리 혁명에 쌓아올리신 가장 큰 공적은 위대한 수령님의 신변안전을 목숨바쳐 지킨것이라고 뜻깊은 교시를 주시였다.

일제의 군사적강점에서 벗어난 조국은 해방(1945년 8월)의 감격과 기쁨으로 설레였다. 나라의 방방곡곡 마을과 가정들에서는 일제놈들의 징병과 징용에 끌려갔던 사람들, 이국살이, 타향살이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돌아와 그립던 혈육들과 눈물겨운 상봉을 하고 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회령에도 다녀오고 친지들을 찾아보시라는 동지들의 권고를 받으실 때마다 이렇게 대답하군 하시였다.

《장군님께서 건국사업에 바삐 보내시는데 제가 어찌 집을 떠나겠습니까.

일제놈들은 쫓겨갔으나 그대신 남조선에 미국놈들이 둥지를 틀고있습니다.

지금 반동들이 끊임없이 날뛰고있지 정세가 매우 복잡합니다.

장군님께서는 이런 복잡한 환경속에서 밤잠을 잊으시고 일하십니다. 제가 장군님의 사업을 도와드리지 않고 어찌 자리를 뜨겠습니까. 저는 나라가 안정되기 전에는 친척들을 찾아떠나지 않겠습니다.

저에게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장군님을 보위할 하나의 임무만

이 있을뿐입니다.》

주체 35(1946)년 봄 어느날 새벽이였다.

평양의 온 거리가 깊은 잠에서 아직 깨여나지 않았는데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방안에만은 전등불이 켜져있었다.

새벽 보초교대를 시키러왔던 경위대의 지휘관은 저택의 창가에 비낀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우러러뵙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날의 거창한 사업을 설계하시는듯 쉼없이 무엇인가 쓰고계시였다.

그 지휘관은 늘 하는 버릇처럼 옷매무시를 바로하고 날밝을 때까지 주변을 돌아보려고 사위를 둘러보았다.

그런데 어느새 오셨는지 김정숙동지께서 그의 뒤에 조용히 서계시였다.

그가 서둘러 인사를 드리려고 하자 김정숙동지께서는 급히 입가에 손을 가져다대시며 소리를 내지 말라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예리한 눈초리로 저택 뒤산의 숲속을 주시하시는것이였다.

그이의 손에서는 소형권총이 번뜩이였다.

당시 저택 뒤산은 숲이 매우 무성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숲속을 주시하시다가 심중한 안색을 지으시고 창가에서 불빛이 흘러나오고있는 위대한 수령님의 방을 살펴보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 아무 말씀없이 주시하시는 그 불빛과 숲속을 번갈아보던 경위대지휘관은 그이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이 숲속에까지 비쳐가는것때문에 깊이 마음쓰고 계신다

는것을 알아차리게 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방의 불빛이 숲속에 비쳐가지 못하도록 차광막을 쳐드리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바로 이처럼 교대없는 친위전사가 되시여 해방직후의 그 어렵고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우리 혁명의 뇌수이시며 심장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을 드팀없이 지켜나가시였다.

꿈 이 야 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어머님의 한생은 혁명가가 자기 수령을 어떻게 받들어모셔야 하는가 하는 모범을 보여준 한생이였습니다.》

주체53(1964)년 9월 22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먼 북방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였다.

그날 아침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늘이 9월 22일이 돼서 그러는지 어제밤 꿈에 김정숙동지를 보았다고 하시면서 꿈이야기를 들려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느 공장을 현지지도한 다음 또 다른 곳을 향하여 한창 달리고있을 때였다.

예나 다름없이 이날도 맨 앞차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타고 달리시면서 로상에 이상이 없는가를 살피고 계시였다.

그런데 어느 한 비탈진 곳에 이른 앞차가 갑자기 멈추어섰다.

뒤따라오던 차들도 모두 멈춰서면서 웬일인가 하여 눈길을 돌리였다.

지난 밤에 내린 소낙비에 의하여 비탈진 도로가 뭉텅 끊어져나갔던것이다.

그러자 앞차에 탔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운전수와 함께 맨 먼저 삽을 들고 도로를 수리하기 시작하시였다.

그래서 뒤따르던 모두가 서둘러 삽들을 찾아들고 달려가려고 하는데 글쎄 어디에서 언제 왔는지 김정숙동지께서 열심히 삽질을 하시는것이였다.

김정숙동지의 흰 적삼이 땀에 푹 젖어있었는데 만시름을 털어버린듯 환한 웃음을 지으신 그이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대견하게 바라보며 말씀하시였다.

《네가 이렇게 아버님의 안녕을 위해 헌신하고있는것을 보니 여한이 없구나. 정말 고맙다.》

《어머님, 다 자란 이 아들이 있는데 응당 그런 걱정은 놓으셔야지요. 아버님의 사업과 생활에 사소한 불편이라도 끼쳐드린다면 이 아들의 뺨을 치세요.》

《원 참, 별소릴 다하는구나. 네가 뭘 잘못하겠기에 이 어머니가 귀하고 귀한 아들의 뺨을 치겠느냐.》

이렇게 모자간에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길을 다 수리해놓았던것이다.

뒤늦게야 그들에게로 다가가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있는가고 물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장군님, 저희들끼리 비밀이야기를 하고있었

는데 장군님께서는 모르셔도 됩니다.》라고 정중히 말씀드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말에 기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여 가까이 다가가 두분의 어깨우에 량손을 얹으시고 나도 방금 무슨 이야기를 하였는지 다 들었소, 경희오빠는 원래 어릴 때부터 나를 그렇게 보좌해주고있소, 신통히도 동무를 닮았소, 이젠 다 자라서 우리 당사업까지 직접 보고있으니 걱정일랑 아예 마오라고 하시였다.

그랬더니 위대한 장군님과 어머님의 얼굴에는 이 세상의 만시름을 다 잊은듯이 행복의 웃음이 함뿍 피여오르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너무도 대견하고 사랑스러우시여 이젠 길도 정상으로 다 복구하였으니 기념으로 사진이나 한장 찍고 가자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와 어머님께서도 정말 기념이 되게 사진을 찍자고 하시였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의 량옆에 나란히 서서 사진기의 초점을 맞추는데 갑자기 밖에서 세찬 바람소리가 들려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문득 눈을 떠보시니 꿈이였다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쩐지 아쉬운 마음이 좀처럼 없어지지 않으시여 일군들을 찾아가셨는데 모두 곯아떨어졌기에 깨우지 않고 돌아오셨다는것이였다.

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절절한 진실이였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시는 꿈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다가오니 어머님이 못 견디게 그리웠는데 꿈이야기를 들으니 더욱더 그리워집니다, 한번이라도 그리운 어머님을 만나뵈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어머님의 생전의 가장 큰 소원은 어버이수령님을 잘 모셔드리는것이였습니다, 나는 오늘까지 어머님의 높은 뜻을 단 한순간도 잊은적이 없습니다, 나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머님의 높은 뜻을 조금이라도 어길가봐 늘 자신의 생활을 검토하면서 채찍질을 합니다라고 교시하시였다.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를 받드는 길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어머님은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를 받들어나가는 길에서는 한치의 드팀도 없으시였습니다.》

주체50(1961)년 9월 20일 당시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리고계시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한 학생으로부터 김정숙동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으면 하는 청을 받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금도 매일 아침 신문을 받아볼 때마다 어머님께서 집에 신문이 도착하면 하시던 일을 미루시고 신문부터 읽으시던 일이 생각난다고 하시면서 우리 어머님께서는 아무리 바빠도 매일 신문을 빠짐없이 읽으시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중요한 기사들에는 밑줄을 그어가며 읽으시고 그것을 경위대원들에게 읽어보라고 주군 하시였습니다, 이것은 다 경위대원들로 하여금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당정책을 제때에 알도록 하시려는 의도에서였습니다라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계속하여 나는 지금도 어머님과 함께 주체 36(1947)년 가을 경성에 갔던 일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머님이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입으신 어혈로 하여 몹시 불편해하시기때문에 온천치료를 받아보라고 여러번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님께서는 수령님께서 밤낮이 따로 없이 일하시는데 어떻게 집을 떠나겠는가고 하면서 사양하시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수령님께서 함경북도를 현지지도하실 계획이라는것을 아신 다음에야 온천치료를 받아보겠다고 하시며 함경북도로 먼저 떠나시였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님께서 그때 함경북도에 먼저 내려가신것은 병치료보다도 그곳 실정을 알아보고 수령님께서 아무 불편도 없이 현지지도를 하실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라고 교시하시였다.

그날은 주체 36(1947)년 8월 27일이였다.

날씨는 몹시 무더웠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기차안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연설문을 읽기도 하시고 자료를 보시며 무엇인가 수첩에 적어넣기도 하시였으며 신문도 보시였다.

드디여 경성에 도착하신 김정숙동지께서는 려행의 피로도 푸실사이없이 그날로 군당과 군인민위원회 일군들을 만나 군안의 일반적형편을 알아보시였고 공장과 농촌에 가시여 그곳의 실태를 료해하시였다. 그 과정에 김정숙동지께서는 아직도 적지 않은 일군들이 관료주의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무슨 일이든지 집행할 때에는 장군님의 의도와 맞는가 안 맞는가,

인민들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겠는가를 잘 따져보고 집행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장군님의 지시와 어긋나게 집행하여 인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일들을 그만두어야 하겠습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계속하여 일군들은 언제나 장군님의 연설과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누가 뭐라고 해도 장군님의 의도와 맞는가를 재여보고 어떤 바람이 불어도 자기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견결히 싸워나갈수 있고 일을 옳바르게 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야기를 마감지으시면서 병치료를 뒤로 미루시고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던 어머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함경북도를 찾으시자 곧 그곳의 실태와 그동안의 사업정형을 보고올려 수령님께 크나큰 기쁨을 드리시였다고 교시하시였다.

룡악산의 취가 전하는 이야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령님께 바치신 어머님의 충실성은 절대적인 신념이였고 숭고한 도덕이였고 일상적인 생활이였으며 어머님의 한생은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으로 일관된 가장 값높은 한생이였습니다.》

주체 89(2000)년 12 월 24 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룡악산혁명사적지를 찾으시였다.

예로부터 경치가 아름다운 곳으로 널리 알려진 룡악산에는 취또한 많았다.

그날 룡악산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느 한 곳에 이르시였다.

그곳은 주체37(1948)년 5월 16일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머님과 함께 취를 뜯어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드린 곳이였다.

한동안 깊은 감회에 잠겨계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금도 어머님과 함께 수령님을 모시고 룡악산에 와서 취를 뜯어 점심식사를 하던 일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때에는 이곳에 취가 많았기때문에 밥과 고추장만 가지고오면 되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해방직후에도 봄철이면 룡악산에 나오시여 취를 비롯한 산나물을 뜯어다 항일혁명투쟁시기처럼 수령님께 반찬을 해드리군 하시였습니다라고 교시하시였다.

계속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어머님은 묘향산에도 여러번 가셨댔는데 그때에도 취와 참나물을 뜯어 수령님께 김치와 반찬을 해드리셨다고, 정말 수령님에 대한 어머님의 지성은 그 누구도 따를수 없었다고 교시하시였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고난의 행군때 있은 한홉의 미시가루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 인민들뿐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속에 널리 알려진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런데 그 한홉의 미시가루가 어떻게 생기게 되였는가 하는데 대하여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것입니다, 그 미시가루는 바로 어머님께서 청봉밀영으로 떠나기에 앞서 장군님께 드리라고 전령병에게 주신것이였습니다라고 교시하시였다.

그것은 바로 주체 28(1939)년 1월에 있은 일이였다.

그날 어머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 대접하려고 늘 배낭속에

간수하고 다니시던 그 한홉의 미시가루와 고추가루, 깨가루, 소금이 들어있는 봉지를 전령병에게 안겨주시면서 우리는 오직 사령관동지의 안녕만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한홉의 미시가루, 비록 그것은 적은 량이였다. 그러나 거기에는 어머님의 지극한 정성, 사령부작식대원의 임무를 다하시려는 어머님의 충정의 마음이 깃들어있었다.

룡악산의 취에도 위대한 수령님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한생을 살아오신 어머님의 고결한 헌신성이 뜨겁게 어려있는것이다.

어머님의 보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어머님은 언제 한번 편히 지내지 못하시고 수령님을 받드는 사업에 한생을 고스란히 바치시였습니다.》

주체52(1963)년 8월 26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과 자리를 같이하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얼마전에 나는 량강도에 갔다오던 길에 김책시에 들린 일이 있었습니다, 역구내에서 부두가 있는 곳을 바라보느라니 수령님을 모시고 어머님과 함께 김책시를 찾았던 때의 일이 떠올라 감회가 새로왔습니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 성진제강소를 현지지도하고 계시였는데 어머님께서는 인민들에 대한 상품공급정형을 알아보시려고

어느 한 상점을 찾으시였습니다, 그런데 상점의 식료품매대에 물고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원인을 알아보니 고기배가 적고 어구가 부족하여 물고기를 많이 잡지 못하는데다가 그것마저 장사군들이 먼저 다 받아가기때문에 국영상점에 내놓을것이 없다는것이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안색을 흐리시며 급히 부두가로 향하시였습니다, 부두가에는 낡아빠진 작은 고기배가 몇척 있었을뿐이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바다를 옆에 끼고있으면서도 인민들에게 물고기를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것을 보시고 몹시 가슴아파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날 어머님께서는 수령님께 실태를 그대로 보고올리면서 인민들에게 물고기를 많이 먹이려면 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것 같다고 말씀드리였다고 하시였다.

이런 일도 있었다.

그날은 주체 34(1945)년 11월 25일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아드님과 녀성투사들과 함께 선봉에 도착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도착하신 첫날부터 사업에 착수하시였다.

이튿날 김정숙동지께서는 녀투사들과 함께 선봉시내를 돌아보시였다.

부두쪽으로 향한 좁은 골목길에는 자름자름한 가게방들이 박혀있었다. 천과 신발, 학용품 등을 파는 가게들과 쌀을 파는 가게들이였다.

그이께서는 그 가게방들을 돌아보고 나오시면서 항일혁명투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동무들도 방금 가게방들을 돌아보고 느낀바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해방된 기쁨을 안고 건국사업에 투신하고있는 로동자들에게 입을 걱정, 먹을 걱정을 시키는것이 제일 가슴아픕니다. 오늘 동무들도 보았지만 쌀가게방에서 빈자루를 들고 한숨을 짓던 녀인들은 지난날 나라를 빼앗기고 온갖 민족적멸시와 생활난으로 죽지 못해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조국은 해방되였으나 그들의 생활에서는 별로 달라진것이 없습니다, 장군님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계시겠는가 하는것을 생각하면 장군님을 도와드리지 못하는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빨리 로동자들의 생활을 안정시킬 대책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날 부두가에 나가시였다.

저 멀리 수평선을 이윽토록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항일혁명투사들에게 감회깊은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선렬들이 흘린 피를 헛되이 하지 말고 이 아름다운 바다를 더 잘 리용하여 인민생활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인민들의 어려운 식량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물고기잡이대책을 빨리 세워야 합니다.》

계속하시여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웅기(당시)는 수산업을 발전시킬수 있는 전망이 큰것만큼 물고기잡이에 큰 힘을 넣어 먹는 문제도 풀고 수산업토대도 닦아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것이 장군님의 의도를 받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모두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힘차게 일해나갑시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한 어느 하루도 편히 쉬지

않으시고 터발을 가꾸시던 어머님의 모습을 그려보시며 이런 이야기를 하신적도 있었다.

어머님이 고무신을 신고 도마도밭을 가꾸실 때마다 치마와 고무신에 흙물이 발리군 하였습니다, 내가 흙물을 씻어드리려고 하면 어머님은 그만두어라, 농사짓는 사람은 흙물이 묻는것을 싫어하면 안된다, 옷에 흙매질을 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땅에 심은 남새를 가꾸겠니, 땅은 사람이 땀을 흘리는것만큼 열매를 맺게 해준다, 이 밭에 이제 도마도가 주렁지고 그것을 제손으로 따서 먹을 때 봄내 여름내 흙을 만지며 일한 보람이 크게 느껴질게다라고 하시며 물기가 질벅한 도마도밭에서 떠나실줄 몰랐습니다, 나도 어머님을 도와 호미로 김도 매고 나무가지로 받침대도 세워주군 하였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이여서 이마에는 땀이 비오듯 하였지만 어머님의 일손을 도와 정성들여 가꾼 도마도밭에 도마도들이 주렁주렁 달린것을 보면 어린 마음에도 기쁨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내가 기뻐할 때마다 사람은 일을 해야 밥맛이 나고 사는 보람이 있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머님께서는 이렇게 늘 인민들의 먹는 문제, 입는 문제를 더 잘 풀어주기 위하여 공장과 농촌, 어촌마을로 쉼없이 발걸음을 옮기시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인민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마련하여주는 일이라면 찬바람 불고 눈보라 치는 밤길도 마다하지 않으시였습니다, 참으로 인민을 위하시는 어머님의 사색과 로고는 끝이 없었습니다라고 교시하시였다.

삼일포의 메아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어머님의 신비한 사격술과 관련하여 수많은 전설같은 이야기들이 오늘도 우리 인민들속에 널리 전해지고있습니다.》

주체 87(1998)년 4월 15일 이날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일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최전연부대의 병사들과 함께 이날을 보내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군인들과 함께 부대회관에서 예술선전대공연을 보아주시였는데 공연무대에는 녀성독창과 방창 《못잊을 삼일포의 메아리》가 펼쳐졌다.

깊은 감회에 잠기시여 노래를 감상하고 계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노래가 위대한 수령님과 어머님의 사적내용을 잘 반영하였다고 하시였다.

이 노래는 김정숙동지의 탄생 65돐을 맞으며 창작된것이였다.

공연이 끝난 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금강산이 가까운 이곳에 와서 《못잊을 삼일포의 메아리》를 들으니 내가 어렸을 때 수령님을 모시고 어머님과 함께 삼일포에 갔던 일이 생각난다고, 그때는 해방된 조국땅에 단풍이 붉게 타는 좋은 계절이였다고, 참으로 아름다운 삼일포의 풍경이였다고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그날은 주체 36(1947)년 9월 28일이였다.

수정같이 맑고 정갈한 호수를 병풍처럼 둘러싼 산발들과 기암

절벽들, 호수의 한복판에 누운 소처럼 솟아있는 와우도, 그 너머 멀리 바라보이는 동해바다, 삼일포는 말그대로 한폭의 그림처럼 안겨왔다.

삼일포의 풍경을 부감하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동행한 일군들에게 삼일포의 경치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장군님을 모시고 이렇게 금강산에 오니 지난날 일제침략자들과 용감하게 싸우다 조국해방의 날을 보지 못하고 우리곁을 떠난 혁명동지들에 대한 생각이 더욱 간절해진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으시였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 우리 녀대원들에게 늘 금강산의 아름다운 경치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시였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들은 하루빨리 일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조국을 광복한 다음 장군님을 모시고 금강산에 가보자고 이야기하며 혁명적신념을 더욱 굳게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군님을 모시고 그처럼 와보고싶던 금강산에 오게 되였으니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계속하여 김정숙동지께서는 지난날 일제와 지주, 자본가들의 유흥지로만 되여있던 금강산을 비롯한 조국의 모든 명승지들을 근로자들을 위한 문화휴식터로 훌륭하게 꾸릴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바로 그때였다.

와우도뒤쪽에서 날아오른 물오리떼가 장군대앞에 내려앉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총을 가져오라고 하시였다.

한 일군이 올린 싸창을 받아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물오리를 조준하시고 방아쇠를 당기시였다. 야무진 총성과 함께 물오리 한마리가 물우에 둥둥 떠오르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정숙동지께 싸창을 넘겨주시면서 한번 쏴보라고 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별로 조준하는 기색도 없이 방아쇠를 당기시였다. 그러자 물오리가 날개를 퍼덕이더니 물우에 늘어지고말았다.

순간 일군들은 정말 항일의 명사수솜씨가 다르다고 하며 모두들 감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면서 동무들이 물에 떠다니는 물오리를 싸창으로 쏘아잡는것을 보고 저의 사격솜씨가 여전하다고 하는데 아직 우리 혁명이 끝나지 않았는데 장군님을 모시고있는 혁명전사의 사격솜씨가 변하면 되겠습니까, 나라가 광복되였으나 정세는 매우 긴장합니다, 지금 저 남녘땅에 기여든 미제는 남조선을 저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며 나아가서는 전조선을 침략하려고 기회만 노리고있습니다, 나라에 조성된 이러한 정세는 우리들로 하여금 원쑤들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보위하기 위한 준비태세를 튼튼히 갖출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바삐 남녘땅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우리 조국을 튼튼히 보위하자면 모든 사람들이 총을 잘 쏠줄 알아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한장의 사진앞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건군력사에 남기신 어머님의 공적은 참으로 큽니다.》

주체 86(1997)년 1 월 1 일 새해를 맞이한 설날에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전번에 어느 한 군

관학교에 가서 혁명사적관을 돌아볼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직후에 정규적혁명무력을 건설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로고를 바치시였는가 하는것을 보여주는 사진자료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하시면서 그 사진들가운데는 주체 37(1948)년 10월 14일 제1중앙군관학교 제2기 졸업식에 수령님과 어머님과 함께 나도 참가한 사진이 있었다고 감회깊이 교시하시였다.

그런데 웬일인지 력사적화폭속에 담겨진 김정숙동지의 영상은 머리를 수그리고 계시는 모습이였다.

일군들은 물론 그 사연을 알수 없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그 의혹을 풀어주시며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그 사진에 어머님은 머리를 수그리고있는데 그것은 울고 계시였기때문입니다. 내가 그때 어머님께 왜 우시는가고 물었더니 어머님은 이렇게 끌끌한 우리 군관대렬을 보니 항일혁명투쟁시기가 생각나고 먼저 간 혁명동지들이 생각나서 그런다고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추연한 눈길로 창밖을 점도록 바라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추억깊은 어조로 어머님께서는 평양학원과 군관학교들에 자주 나가시여 혁명무력을 강화하는데 심혈을 바치시였다고 하시면서 어머님은 정말 훌륭한 어머니였다고, 건군력사에 남기신 어머님의 공적은 참으로 크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해방직후의 어느해 겨울날에 있은 일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머님과 함께 이른아침 밤새 내려쌓인 뜨락의 눈을 쓸고계시였다. 이때 한 항일혁명투사가 들어서며 일손을 도와드렸다.

얼마후 눈을 다 치게 되자 김정숙동지께서는 그에게 오늘 아침에는 눈이 내려서 그런지 백두산생각이 더 난다고, 최후의 순간까지 싸우다 손에 손을 굳게 잡고 동상처럼 그 자리에 굳어졌던 박수환동무네들의 모습이 자꾸만 떠오르더라고, 그들이 흘린 피가 하얀 눈우에 뿌려져 수백개의 붉은 꽃송이처럼 얼어붙었던 광경이 눈앞에 삼삼하다고 목메여 말씀하시였다.

그것은 바로 주체 27(1938)년 1월초순 깜바허즈밀영에서 있은 일이였다.

적들이 박수환재봉대소조가 있는 귀틀집으로 불의에 달려들었다.

재봉대원들이 적들을 발견하였을 때는 밀영이 이미 포위되였을 때였다. 그들은 적들과 치렬한 총격전을 벌렸다.

어머님께서 총소리를 들으신것은 그곳으로부터 5리 떨어진 귀틀집에서 대원들과 함께 하루 군정학습을 끝낸 뒤였다.

이상한 예감이 드신 김정숙동지께서는 허리치는 눈길을 헤치고 진대나무를 넘으시며 총소리가 나는 곳으로 급히 달려가시였다.

어머님께서 재봉대원들이 있는 귀틀집이 내려다보이는 둔덕에 이르렀을 때는 총성이 멎고 검은 연기와 불길이 타래치고있었다. 귀틀집주변에는 적들의 발자국들이 어지러이 찍혀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한그루의 아름드리나무밑에 서로서로 손을 굳게 잡고 쓰러져있는 여섯명의 전우들을 발견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달려가 쓰러진 전우들을 와락 부여안고 흔들며 애타게 이름들을 부르시였다. 하지만 대답없는 전우들의 몸은 싸늘하게 식어가고있었다.

어머님께서는 오열을 터뜨리시며 슬픔을 누르지 못하시였다.

슬픔에 못이겨 주저앉은 대원들을 둘러보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래서는 안된다고 자신을 위로하시며 전우들의 원한을 천백배로 씻어야 한다는 자각으로 분연히 일어서시였다.

그리고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으시며 대원들에게 희생된 전우들은 청춘의 꽃나이에 조국의 광복과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모진 고난을 이겨내면서 우리와 함께 만리를 헤쳐온 귀중한 전우들이였습니다, 그들은 최후순간에 붉은 피로 나무에 《조선혁명 만세!》라는 구호를 남기였습니다, 적들은 저 구호를 없애버리려고 수많은 총탄을 쏘아 나무를 벌둥지처럼 만들어놓았으나 피로 한자한자 써놓은 구호만은 지워버릴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모두 저 혈서에 담긴 동지들의 혁명정신을 잊지 맙시다라고 말씀하시였다.

마디마디 복수의 피가 끓어넘치는 김정숙동지의 말씀에 슬픔에 잠겨있던 대원들이 하나둘 일어섰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분노로 타번지는 눈길을 들고 이렇게 웨치시였다.

《전우들의 심장은 비록 고동을 멈추었으나 그들의 혁명정신은 피로써 새겨진 〈조선혁명 만세!〉의 글발과 함께 영원히 우리의 가슴속에 남아있을것입니다.

동무들, 슬픔을 증오로 바꾸어 그들이 그처럼 바라던 조국광복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천백배의 힘과 용기를 내여 강도 일제

를 때려부십시다. 전우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말자!》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때를 돌이켜보시며 추위도 어쩌면 그렇게 모질던지, 눈도 얼마나 많이 오던지 하시며 말끝을 흐리시였다. 그러시는 김정숙동지의 눈가에 맑은것이 고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날 동지들을 위해 그처럼 눈물을 많이도 흘리신 어머님의 모습을 평생 잊을수 없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 함경북도에서 활동하실 때였다.

그이께서 계시는 숙소로 《새길신문》의 기자들이 찾아와 기자회견을 요청하였다.

그들은 어머님의 생애에 대하여 알고싶어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들에게 희생된 전우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동지들은 눈을 감으면서도 일제를 때려눕히고 조국광복을 하루바삐 이루어 광복된 조국땅에 인민들이 잘사는 민주주의 새 조선을 건설해달라고 부탁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그후 자신의 전투위훈담을 듣고싶다고 찾아온 기자에게도 자신에 대해서가 아니라 김확실, 최희숙, 안순화동지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시면서 그들의 위훈을 값높이 내세워주시였다.

희생된 전우들을 언제나 잊지 못해하시며 그들을 인민의 마음속에 세워주시는 김정숙동지의 고결한 혁명적의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가슴속에 그대로 새겨졌다.

어머님의 인정세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어머님은 언제나 인민들과 고락을 같이하시였으며 남들이 겪는 불행과 고통에 대하여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면서 그들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하여 마음을 많이 쓰시였습니다. 우리 어머님의 인정세계에는 정말 끝이 없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실 때인 주체 52(1963)년 8월에 있은 일이다.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생들과 **《일군이 되기 전에 인민의 충복이 되여야 한다.》**는 담화를 하시였다.

담화는 인민을 위해 한생을 다 바치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인민적풍모를 따라배울데 대한 내용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담화를 하시는 과정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였다.

어머님께서는 언제나 자신보다 먼저 남을 생각하시였고 슬픈 일, 불행한 일을 보시면 누구보다도 가슴아파하시였으며 인민들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

해방직후 조국에 개선하신 어머님께서 청진에 머물러 계실 때에 있었던 일이다. 청진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의지가지할데 없이 문전걸식으로 살아가는 한 녀인이 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녀인의 정상이 너무도 가슴아프시여 갈라터진 그의 손등을 쓸어주시면서 친부모의 심정으로 따뜻이 위로해주

시였으며 그에게 자신의 귀중한 군복을 입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날의 그 녀인의 가긍한 정상이 눈앞에 생생히 안겨오는듯 잠시 동안을 두시고 깊은 감회에 잠기시였다.

그 녀성은 바로 청진시 해방리(당시)에서 살고있던 녀성이였다.

하루하루 빌어먹으며 떠살이를 하고있던 그는 어느날 아침 김정숙동지께서 드신 숙소에 바가지를 들고 구걸을 왔다가 뜻밖에도 군복을 입으신 김정숙동지께서 문을 열고 나오시자 깜짝 놀라 황황히 도망쳤다.

김정숙동지께서 시녀맹일군을 시켜 며칠만에야 애써 그를 찾아내여 자리를 같이하셨으나 그가 지난날의 설음에 북받쳐 울면서 문밖을 뛰쳐나가는 바람에 이야기도 채 나누지 못하시였다.

다음날 김정숙동지께서는 그가 거처하고있는 곳까지 찾아오시였다.

그이께서는 너무도 황송하여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그에게 나는 동무의 가슴아픈 사연을 알고 **김일성**장군님의 따사로운 해빛을 받아안게 하려고 동무를 찾아왔다고 하시면서 동무를 좀 도와주자고 궁리해보았는데 지금 당장 손에 쥔것이 없어 생각다 못해 이걸 가지고 왔다고, 나는 오랜 세월 일제와 싸우다보니 빈손뿐이라고 하시며 손수 그 녀성에게 군복을 입혀주시였다.

그날 김정숙동지께서 그에게 동무같은 사람이 새 조국건설에서 기둥이 되고 나라의 주인이 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장군님께서 찾아주신 조국을 부강하고 살기좋은 나라로 꾸리기 위해 억세게 싸워나가야 한다고 일깨워주시였다.

그후 그는 김정숙동지의 보살핌속에서 어엿한 녀성일군으로 성장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때에 있었던 사실들을 감회깊이 회고하시면서 이야기를 계속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어머님께서 그 녀성의 친정어머니가 딸과 헤여져 회령땅의 어느곳엔가 살고있다는것을 아시고 그의 친정어머니를 끝내 찾아내여 모녀의 눈물겨운 감격적인 상봉을 마련해주시였다고 하시였다.

이윽하여 그이께서는 회령은 항일대전의 기나긴 나날에 어머님께서 한시도 잊으신적이 없고 가슴에 사무치도록 그리워하신 고향이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이러한 고향땅을 지척에 두시고도 자신의 일가친척을 찾을 생각은 뒤로 미루시고 이름없는 한 녀인의 가족부터 찾아주시였던것입니다, 우리 어머님은 참으로 세상사람들이 감복하는 자애로운 천품을 지니시고 모든것을 인민을 위해 고스란히 바치시였습니다라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평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해방후 우리 집에는 항일투사들과 전국 각지의 인민들도 많이 찾아왔고 수령님과 인연이 깊은 외국의 전우들도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님께서는 때없이 찾아오는 그들을 밝은 웃음으로 따뜻이 맞이하고 온갖 성의를 다하여 환대하여주시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어머님을 한번 만나뵙기만 하면 그 인정미로 하여 헤여

지기 힘들어하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언제인가 일군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였다.

어머님께서는 자신을 남다르게 생각하신적이 한번도 없으시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늘 여느 사람과 꼭같이 지내는것이 제일 마음편하다고 말씀하군 하시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언제나 수수한 옷차림을 하고 다니시였으며 농촌에 나가시면 농민들과 어울려 씨앗을 뿌리고 마당질도 하시였고 건설장에 나가시면 무릎까지 빠지는 감탕속에 뛰여들어 삽질도 하시였습니다, 그 누구도 이런분을 항일대전의 나날에 그처럼 이름 날리신 녀장수라고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애국미를 바치러왔던 김제원농민이 무거운 벼가마니도 손수 부리워주시고 세수물도 떠다주시는 어머님을 미처 알아뵙지 못한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체35(1946)년 12월 어느날에 있은 일이였다.

해방된 조국땅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덕분에 토지를 분여받고 첫해 농사를 잘 지어 평생소원을 풀게 된 김제원농민은 애국미로 헌납할 벼가마니를 가지고 수령님의 저택에 찾아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제원농민을 전국적인 애국미헌납운동의 선구자로 내세워주시였다.

평범한 농민의 애국적소행에는 지난날 일제와 지주놈들의 착취밑에서 피눈물나는 생활을 하여온 자기를 나라의 주인으로, 땅의 주인으로 되게 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에 보답하려는 뜨거운 마음이 깃들어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김제원농민의 그 애국지성을 받아안으시던

사실을 두고 후날 이렇게 회고하시며 나는 지금도 김제원농민을 만났을 때의 일을 잊을수 없습니다, 김제원농민이 애국미를 싣고 우리 집에 왔을 때 나는 그를 마중나가 먼길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는가고 인사를 한 다음 벼가마니를 함께 날랐습니다, 그러다보니 그와 여러가지 이야기를 허물없이 나눌수 있었습니다, 점심식사까지 하고 돌아갈무렵 그는 백두산의 녀장군인 김정숙녀사를 만나지 못하고 가는것이 섭섭하다고 하면서 못내 아쉬워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제가 처음부터 맞이하고 벼가마니까지 맞들어드렸는데 또 인사를 올려야 하겠습니다.》하고 다시 인사를 하였습니다, 한동안 송구스러워 어찌할바를 몰라하던 그는 자기의 실수를 용서해달라고 거듭 사과하는것이였습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숙동지를 미처 알아보지 못한것은 비단 김제원농민 한사람뿐이 아니였다.

주체 36(1947)년 7월 어느날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 손수 끓이신 돼지물을 돼지우리의 구유에 쏟고 계실 때 한 녀성일군이 찾아왔다.

당시 축산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떨쳐나선 녀성들의 모범적인 자료를 전국적으로 종합하여 크게 표창하게 되여있었는데 그 대상가운데는 평양시 해방산지구에서 돼지기르기를 제일먼저 시작했다는 김정숙이라는 녀성의 자료도 들어있었다. 그래서 이름석자만 알고 현지확인을 하려고 그 녀성일군이 찾아오게 되였던것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주인공이 다름아닌 김정숙동지인줄은 상상도 못했던 그였다.

녀성일군은 너무도 놀라와 정말 진짜 장군님의 부인이 옳은가고,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녀사가 옳은가고 재삼 확인하고나서 그이께 머리를 숙이며 말씀올렸다.

《저는 녀사께서 돼지를 기르신다는 이 한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장차 우리 수령님께서 령도하시는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인민의 세상인가 하는것을 느낄수 있습니다.

위대합니다. 너무도 소박하시고 소탈하시기에 그만큼 더 위대하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잠시 동안을 두시였다가 어머님께서는 색다른 음식을 드시는 일이 거의 없으시였고 우리들에게도 늘 검소한 음식을 만들어주군 하시였습니다, 어느때인가 누가 어머님께서 지은 밥을 보고 왜 흰쌀밥이 아니라 잡곡밥을 지었는가고 물어본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님께서는 그에게 지금 다른 사람들도 다 조밥을 먹는데 우리라고 흰쌀밥을 지어먹겠는가, 앞으로 나라살림살이가 펴이면 우리도 흰쌀밥을 지어먹겠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산에서 싸우실 때에는 나라가 해방되면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살아보자고 하시던 어머님이시였고 조국에 개선하시여서는 인민들의 생활이 넉넉해진 다음에 마음놓고 음식을 들겠다고 하시던 어머님이시였습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계속하시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참으로 우리 어머님은 언제나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으시고 인민들과 한치의 간격도 없이 생활하시였습니다, 나는 우리 어머님의 모습을 그려볼 때마다 어머님의 숭고한 념원과 뜻을 이어 한생을 인민을 위하여 다 바칠 굳은 맹세를 다지군 합니다라고 교시하시였다.

만경대혁명학원과 어머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만경대혁명학원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에도 어머님의 손길이 뜨겁게 어려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을 언제나 몸가까이 모시고싶어하는 혁명가유자녀들의 절절한 소망을 헤아리시여 만경대혁명학원에 수령님의 동상을 모실것을 직접 발기하시고 우리 나라에서 제일먼저 수령님의 동상을 학원에 모시도록 하시였는데 여기에는 혁명가유자녀들의 마음속에 부모들처럼 오직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는 신념의 기둥을 억세게 세워주시려는 어머님의 숭고한 뜻이 새겨져있습니다.》

주체 86(1997)년 1월 1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부터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감회깊은 어조로 만경대혁명학원에 모신 수령님의 동상은 력사가 오래고 의의가 큰 동상이라고, 만경대혁명학원에 모신 수령님의 동상은 우리 어머님께서 자나깨나 수령님을 몸가까이 뵙고싶어하는 학원학생들과 인민들의 절절한 소망을 헤아리시고 우리 나라에서 제일먼저 모시도록 하여주신 동상이라고 교시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해방직후 희생된 전우들의 자녀들을 찾아내여 위대한 수령님의 품으로 데려오는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우리는 품을 들여서라도 혁명가유자녀들을 다 찾아내여 학원에 데려다 공부를 시켜야 한다고, 나도 혁명가유

자녀들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하시며 내가 산에서 싸울 때 동지들의 고향과 주소를 수첩에 적어놓은것이 있는데 그것을 참고하면 유자녀들을 적지 않게 찾아낼수 있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후 중국 동북지방을 비롯한 여러곳에서 항일혁명투사의 유자녀들이 어버이수령님의 품을 찾아 평양으로 왔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아버지로 믿고 따르면서 자나깨나 뵙고싶어하였고 그 사랑을 몸가까이 느끼고싶어하였다.

유자녀들의 심정을 깊이 헤아리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유자녀들의 마음속에 오직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는 신념의 기둥을 세워주시기 위하여 학원에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모실것을 발기하시였다.

어느날 김정숙동지께서는 새로 일떠서는 학원교사건설장에 나가시여 동상의 위치를 보아주시며 학원일군들에게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만경대혁명학원에 장군님의 동상을 모시려고 하는것은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만대에 길이 전하며 혁명가유자녀들이 장군님의 영상을 언제나 몸가까이 모시고 장군님의 혁명정신을 따라배워나가도록 하자는데 있습니다.

장군님의 동상을 학원에 모시면 장군님을 늘 뵙고싶어하는 혁명가유자녀들의 간절한 소원도 풀어줄수 있게 될것입니다.》

마침내 주체 37(1948)년 10 월 24 일 만경대혁명학원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제막식이 진행되였다. 어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어머님과 함께 여기에 참가하시였다.

제막포가 가을바람에 날리며 천천히 내리워지자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이 밝은 해빛을 받아 빛을 뿌리며 숭엄하게 안겨왔다.

순간 학원학생들과 군중들은 《**김일성**장군 만세!》 환호를 터쳤다.

김정숙동지께서도 감격을 금치 못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목청껏 만세를 부르는 학원학생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손수건을 눈가로 가져가시였다.

동상제막식이 끝난 후 김정숙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만경대혁명학원에 장군님의 동상을 모신것은 학원학생들의 더없는 영광이며 행복이라고, 이제는 자나깨나 늘 장군님과 함께 있고싶어하는 학원학생들의 소원이 풀리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혁명가유자녀들을 장군님께 충직한 새 조선의 훌륭한 역군으로 키워 그들이 부모들의 뒤를 훌륭히 이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때를 감회깊이 돌이켜보시는듯 펑펑 쏟아져내리는 함박눈을 맞으시며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앞에 서계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만경대혁명학원 원아들에게 바쳐오신 수령님과 우리 어머님의 사랑은 끝이 없었습니다, 정말 수령님과 우리 어머님은 혁명가유자녀들을 따뜻한 사랑의 한품에 안아 먹여주고 입혀주고 혁명가로 키워주신 친아버지, 친어머니이시였습니다라고 교시하시였다.

어머님의 통일념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어머님처럼 조국통일을 바라신분은 흔치 않을것입니다. 항일투사들이 찾아와 이제는 백두산시절과는 달리 령토도 있고 주권도 서고 나라의 재부도 많은데 옷 한벌쯤이야 왜 못해 입으시겠느냐고 간절히 말씀해도 통일이 되여 모든 겨레가 다같이 잘 입고 잘 살 때 우리도 비단옷을 입고 잘 살아보자고 타이르시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늘 조국통일을 먼저 생각하시며 모든 행복을 뒤로 미루시였습니다.》

주체 70(1981)년 9월 22일이였다.

이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한 일군을 부르시였다.

급히 달려온 일군을 반갑게 맞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늘 나와 함께 지방에 가서 해외인사를 만나자고 하시였다.

순간 일군은 주저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날이 바로 어머님께서 서거하신 날이였기때문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누구보다도 크신 마음속아픔을 굳이 묻어두시고 그날 계획하신대로 일군들에게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이날 밤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이야기를 나누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머님께서는 늘 조국통일을 먼저 생각하시며 모든 행복을 뒤로 미루시였다고 가슴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남조선의 애국인사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안겨주시며 그들이 조국통일을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주체35(1946)년초 평양에 와서 근 한달동안이나 수령님의 저택에 머물러있으면서 김정숙동지의 극진한 환대를 받으며 그이의 인품을 감득하고 서울에 나간 려운형은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하였다.

《…나는 내 평생에 조선은 말할것도 없고 외국에서도 한다 하는 녀걸들과 녀성명사들을 많이 보아왔소. 그러나 백발백중의 명사격수로 이름떨친 녀장군이신데다가 정치적식견과 안목이 뛰여난 정치활동가이시지만 그처럼 현숙하고 상냥하고 소박하고 소탈하신분을 내 또 어디에서 만나보았겠소. 김정숙녀사 같으신분은 동서고금에 두분도 없을게요.》

려운형은 청년시절부터 나라 찾을 청운의 뜻을 품고 3.1인민봉기때 만세도 불렀고 동방민족의 자결권을 위한 국제회의에도 뛰여들어 식민지약소민족의 설음을 토로해보았으며 《상해림시정부》에도 찾아가보고 그 무슨 운동을 한다는 사람들도 만나보았으며 아시아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찾아다니며 제노라는 사람들을 만나본 당대 조선의 명사였다. 언젠가는 도쿄의 궁성에 들어가 《남작》의 작위를 주고 대만총독으로 임명하겠다고 하는 일본총리대신에게 설사 남작이나 총통보다 더 높은 벼슬을 준다고 해도 그것은 독립된 조선에서 머슴으로 사는것보다 못하다고 단호히 거절한적도 있는 려운형이였다.

이런 인생행로를 걷는 과정에 세상에 이름난 정치인들이나 영웅호걸들도 발밑에 굽어보는 도고한 자세가 몸에 배인 그였으나 위대한 수령님의 댁에서 보낸 근 한달기간의 생활을 통하여 김정숙동지에 대하여 완전히 감복되였던것이다.

하기에 그는 리화녀대에 다니던 두 딸을 미국에 류학시켜주겠다는 적들의 회유를 단호히 물리치고 그들을 평양으로 보내여 위대한 수령님과 김정숙동지께 맡기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십년전 어은동군사야영지에서도 어머님을 추억하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그날은 실탄사격을 하는 날이였다.

초급일군들이 위대한 장군님께 오늘만은 훈련에 참가하시지 말고 어머님의 묘소에 다녀오시라고 말씀드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머님묘소에는 후에 시간이 있을 때 가보겠다고 하시면서 오늘은 실탄사격을 하는 날이라고, 어머님께서 오늘 내가 실탄사격장에 나간다는것을 아시면 기뻐하시며 실탄사격을 잘할것을 바라실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조국통일이 이룩되지 못한것을 제일 가슴아파하시면서 친혈육을 찾는것도 뒤로 미루시고 미제침략자들을 하루빨리 몰아내고 위대한 수령님을 통일의 광장에 모실 날을 앞당기시려고 그토록 애쓰시던 어머님의 뜻을 한시도 잊을수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어느해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장령복모양의 옷을 지어주시면서 너도 빨리 커서 장군이 되여 미국놈들을 내쫓고 조국을 통일하여야 한다고 하시던 어머님의 말씀이 뜨겁게 안겨와 더욱더 굳은 결심을 가지게 된다고 교시하시였다.

룡남산에서 하신 당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어머님께서는 나에게 수령님을 잘 받들고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해야 한다고 자주 간곡하게 당부하시였습니다.》

평양시의 동북쪽에 자리잡고있는 룡남산은 지난날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았던 나지막한 야산이였다.

그러나 조국이 해방된 후 **김일성**종합대학이 일떠선 다음부터 룡남산은 누구나 다 아는 명산으로 빛을 뿌리게 되였다.

룡남산기슭에 조선에서 첫 인민의 대학으로 되는 **김일성**종합대학이 건설되고있던 주체 36(1947)년 어느날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아드님과 함께 대학건설장을 찾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건설장을 이슥토록 바라보시다가 위대한 장군님께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앞으로 여기에는 **김일성**종합대학이 하늘높이 일떠서게 된단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종합대학이란 어떤 곳인가고 물으시였다.

아드님의 물으심에 김정숙동지께서는 종합대학에 대하여 설명해주시면서 바로 이 대학에서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 나라를 훌륭히 건설해나갈 일군들을 키워내게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웅장하게 일떠서는 대학건물을 바라보시며 어머님의 말씀을 주의깊에 들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머니, 나도 이담에 여기서 공부하겠어요.》**라고 선언하시듯 다짐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호기심어린 눈빛으로 어머니는 어느 대학에 다니셨는가고 물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인자하게 웃으시며 어머니는 저렇게 하늘높이 솟아오르는 대학에는 못 다녔다, 그렇지만 어머니는 백두밀림에서 아버님께서 가르치시는 대학에 다니였다, 그 대학은 일제놈들을 때려부시고 조국을 찾기 위하여 공부하는 혁명대학이였다, 어머니는 바로 그 혁명대학에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배웠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밝게 웃으시며 내가 **김일성**종합대학에 다닐 때에는 어머니가 선생님이 되시면 좋겠어요라고 심중에 품고계시던 생각을 그대로 말씀드리시였다.

아드님의 말씀에 김정숙동지께서는 조용히 웃으시다가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드는 길에서는 자신께서도 학생이라고 하시며 또다시 당부하시였다.

《**김일성**종합대학은 우리 나라에 세워진 첫 인민의 대학이란다. 빨리 커서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하여 조선을 빛내여갈 훌륭한 사람이 되여야 한다.

그래야 밤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시며 일하시는 아버님께서 좀 허리를 펴실수 있을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머님의 당부를 가슴속에 깊이 새기시며 굳은 결의에 넘치신 어조로 말씀드리시였다.

《어머니, 나는 꼭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하겠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힘껏 돕고 아버지가 세워주신 우리 조선을 세상에서 제일 으뜸가는 나라로 빛내이겠어요.》

그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흐른 주체 48(1959)년 1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전 쏘련을 방문하신 기회에 200여년의 오랜 력사를 자랑하는 어느 한 종합대학을 참관하시였다.

이 대학에 대한 참관을 마치시였을 때 그 나라 일군은 그이께 이제 고급중학교를 졸업하시면 꼭 이곳으로 류학을 오시기 바란다고 말씀드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의 권고를 겸손하게 거절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나는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하겠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머님께서 하신 당부를 지켜 고급중학교를 마치시고 주체 49(1960)년 9월 1일 **김일성**종합대학에 입학하시였다.

그날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읊으신 시 **《조선아 너를 빛내리》**는 오늘도 어머님의 념원을 실현하여 조선을 이끌어갈 비장한 맹세로, 위대한 선언으로 이 땅에 울려퍼지고있다.

해솟는 룡남산마루에 서니
삼천리강산이 가슴에 안겨온다
이땅에서 수령님 높은 뜻 배워
조선혁명 책임진 주인이 되리
아 조선아 너를 빛내리

위대한 수령님 높이 모시고
주체의 한길로 억세게 나아가리
사나운 풍랑도 폭풍도 헤쳐

공산주의 그날을 앞당겨오리
아 조선아 나의 조선아
…

어머님께서 남기신 유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어머님은 한생을 총대와 같이 살아오시였습니다.》

주체47(1958)년 4월 어느날 만민의 다함없는 축원속에 뜻깊은 탄생일을 맞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삼가 인사를 드리기 위하여 한 일군이 저택에 찾아갔을 때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권총을 분해해놓고 무기청소를 하고계시였다.

일군을 반가이 맞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서둘러 권총을 결합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능숙하게 권총을 다루시는 모습을 우러르며 그 일군은 깊은 사연이 깃들어있는 총 같다고 자기의 속생각을 스스럼없이 말씀드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의 말을 들으시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시며 **《이 소형권총은 어머님께서 나에게 남긴 유산입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못 잊을 그날을 추억하시며 소형권총에 대한 이야

기를 들려주시였다.

해방후 어느날 어리신 아드님을 데리시고 경위대사격장을 찾으시였던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사격좌지에 이르시자 권총을 꺼내드시였다.

번쩍거리는 권총을 보신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어머님께 자신께서도 권총을 한번 쏘아보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시였다.

백두산에서 탄생하시여 항일의 총포성을 자장가로 들으시며 성장하신 빨찌산의 아들답게 남달리 총대를 사랑하시는 자제분의 비범한 성품을 못내 대견하게 여기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아드님의 청을 들으시고 잠시 생각에 잠기시였다가 권총에서 탄창을 뽑으시였다.

그러시고는 그 소형권총을 아드님의 손에 쥐여주시고 조준격발법을 배워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과녁이 없이 아무데나 대고 첫 사격을 해서는 안된다. 큰뜻을 가지고 첫 사격을 해야 한다.

어머니는 항일무장투쟁시기 첫 사격날에 장군님을 모시고 끝까지 혁명할 결심을 다지면서 일제놈들을 몰살시켰다. 나는 그날에 다진 맹세를 지켜 이 권총을 억세게 틀어잡고 장군님을 목숨바쳐 보위하여왔다.

너도 어서 커서 이 권총으로 아버님을 보위하고 높이 받들어모셔라. 나는 네가 아버님처럼 훌륭한 장군이 되기를 바란다.》

작은 가슴에 큰뜻을 안으신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그후 날마다 권총을 잡고 어머님으로부터 사격방법을 익히고 또 익히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어리신 장군님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무와

바위를 의지해서 총쏘는 자세도 가르쳐주시고 날아가는 새와 물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를 겨냥하는 묘리도 배워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렇듯 백두산위인들의 슬하에서 총대에 새겨진 큰뜻을 받아안으시였고 10대의 소년시절에 최고사령부의 작전대결에서 위대한 령장의 슬기와 담력을 키우시였다.

이러하신 그이께 있어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는 자애로운 어머님이신 동시에 자신을 백두의 슬기와 용맹을 한몸에 지닌 빨찌산의 아들로 억세게 키워주신 위대한 스승이시였다.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머님께서 서거하신 후 그리움이 사무쳐올 때마다 어머님으로부터 물려받으신 권총을 그러안으시고 슬픔을 힘으로 바꾸군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야기에 심취되여 깊은 감동에 잠겨있는 일군에게 나는 그때 어머니와 영결하면서 어머님의 유언대로 이 권총으로 수령님을 잘 보위하고 높이 받들어모시리라 굳게 맹세를 다졌습니다, 지금도 나는 어머님께서 서거하신 날이나 수령님의 탄생일이 되면 이렇게 무기청소를 하면서 그때 다진 맹세에 자그마한 티라도 앉지 않았나 하여 마음의 혁띠를 조이군 합니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나는 이 권총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있습니다. 이 권총은 수령님을 잘 보위하고 높이 받들어모시려는 나의 마음의 영원한 기둥입니다.》

잠시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권총을 붉은천에 싸서 권총갑에 넣으신 다음 함안에 정히 보관하시였다.

소형권총, 참으로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머님으로부터

물려받으신 고귀한 혁명유산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선군으로 개척하시고 승리와 영광에로 이끌어나가시는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하려면 언제나 총대를 사랑하고 총대와 숨결을 같이 해야 한다는 백두산녀장군의 숭고한 뜻과 의지, 고귀한 혁명의 진리가 바로 그 소형권총에 뜨겁게 깃들어있었다.

주체63(1974)년 봄 어느날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 일군에게 이 권총을 보여주시면서 이 권총은 어머님께서 나에게 물려주신것이라고, 나는 어머님이 생각날 때마다 어머님께서 쓰시던 이 권총을 꺼내보군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머님께서는 이 권총으로 수천수만발의 탄알을 쏘았을것이고 그 탄알에 맞아 꺼꾸러진 왜놈도 수없이 많을것이다, 나는 이 권총을 수십년동안 간수해오고있는데 세월이 오래 흐르다보니 권총이 낡아지고 총지갑도 헐었다고 하시며 원상대로 수복할데 대한 부탁을 하시였다.

후에 수복된 권총을 보시고 못내 기뻐하시면서 내가 어릴적에 어머님께서는 이 권총을 반질반질하게 닦으시였고 나에게 총쏘는 법을 배워주시였다고 말씀하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총관이 어려있는 소형권총을 가장 귀중한 혁명유산으로 물려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머님의 숭고한 념원대로 총대를 영원한 마음의 기둥으로, 어떤 경우에도 배반을 모르는 길동무로 삼으시고 성스러운 주체혁명위업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오시였다.

첫째가는 가풍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어머님은 나를 키우는데서 매우 엄격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어머님은 아들이 옳바른 길로 잘 성장하기를 바라시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추억은 저택의 작은 뜨락길에서도 이어졌다.

해방된 이듬해 어느날, 댁에 왔던 한 일군은 의아해졌다.

《티검불 하나 없는 깨끗한 길을 왜 또 쓰십니까?》

김정숙동지께서는 빙그레 웃음만 지으시였다.

잠시후 김정숙동지께서는 허리를 펴시며 나는 장군님께서 지나다니시는 길에 비단필이라도 깔아드리고싶다고, 한평생 얼마나 험한 길을 걸으신 장군님이신가고, 그걸 생각하면 가슴이 미여진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곁에 계시던 아드님에게 나직이 이르시였다.

《이것이 어머니 마음이다.

아버님을 잘 받들어모셔야 한다.》

며칠후 그 일군은 댁에 들렸다가 또다시 아연해졌다.

비가 오는것 같지 않은데 김정숙동지께서 우산을 들고 뜨락에 나와계셨던것이다.

의아해하는 그에게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얼굴을 쳐들고 가만히 있어보라요.

비가 한방울, 두방울 떨어지지 않나요.

장군님께서는 백두산에서 남들이 100년, 200년을 두고도 못 다 맞을 눈비를 다 맞으셨어요. 늘 어깨에서 눈을 털 사이없이 비에 젖은 옷자락을 말릴 사이없이 원쑤놈들을 족치셨지요.

그때는 원쑤들과 싸우며 밀림속으로 달리느라고 이런 우산을 받쳐드리지 못했지만 지금이야 왜 장군님께서 비 한방울이라도 맞으시게 하겠어요.

장군님은 우리들이 천이나 만도 대신할수 없는 귀중한 몸이예요.》

그때도 김정숙동지께서는 아드님께 다시한번 새겨주시였다.

《우리는 아버지장군님을 위하여 최대의 정성을 다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집안의 첫째가는 가풍이 되여야 한다.》

그때로부터 몇년후인 주체42(1953)년 10월 어느날, 아직 전쟁의 참혹한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던 어느 한 도로에서는 어린 학생들이 길을 닦고있었다.

그들가운데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계시였다.

이날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오늘 장군님께서 다니시는 도로를 수리하고나니 우리 어머님생각이 간절해집니다, 우리 어머님께서는 아버지장군님께서 늘 다니시는 길을 언제나 깨끗이 쓸고 비물에 조금이라도 패일세라 제때에 반듯하게 닦아놓군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길바닥이 말라서 먼지가 일 때에는 물을 길어다 골고루 뿌리시였으며 장군님께서 나가실 때나 들어오실 때면 꼭꼭 바래워드리고 마중하군 하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머님이 안 계시니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장군님을 잘 모시자고 하는데 마음뿐이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라고 교시하시였다.

인민의 아들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들은 흔히 어머니의 치마자락이 자식들을 감싸준다고 하지만 우리 어머님은 한없이 자애로우면서도 원칙적이고 엄격한 교양으로 나를 대바르게 키우시였습니다.》

주체88(1999)년 3월 27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일군들과 담화하시다가 우리 어머님은 나에게 절대로 눈먼사랑을 하지 않으시였다고 하시면서 지금도 나는 어린시절 나를 엄하게 교양하신 어머님의 웅심깊은 사랑을 고맙게 여기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인민과 똑같이 생활하고 인민을 언제나 존중해야 한다는 어머님의 간곡한 당부는 어느 하루, 한시도 장군님의 뇌리에서 떠난적이 없었다.

해방후의 어느날 한 경위대원이 어리신 장군님의 차림새를 보다가 놀라와하며 **김일성**장군님의 자제분이 기운 양말을 신으면 남보기 부끄럽다고 하면서 어머니에게 새 양말을 달래라고 말씀드린적이 있었다.

그런 일을 알게 되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어리신 장군님께 조용히 이런 말씀을 해주시였다.

《기운 양말을 신는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나는 어렸을 때 추운 겨울에도 양말없이 맨 짚신발로 다녔다. 발이 얼어서 터지고 피가 흘렀지만 발을 감쌀 천 한쪼박도 없었다.

어머니만 그런것이 아니였다. 일제놈의 세상에서야 부자집아이

들을 내놓고는 다 그랬다. 우리 인민이 지난날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것을 잘 알아야 한다.

조국이 해방되였지만 사람들은 아직 잘살지 못하고있다. 새 양말을 신은 아이들보다 기운 양말을 신은 아이들이 더 많은것을 보았지? 장군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남이 조밥을 먹을 때는 우리도 조밥을 먹고 남이 기운 양말을 신을 때에는 우리도 기운 양말을 신어야 한다. 남들이 기운 옷을 입고 기운 양말을 신을 때 새옷을 입고 새 양말을 신으면 그게 더 부끄러운 일이다.》

김정숙동지와 어리신 장군님의 이런 생활을 목격한 당시 쏘련의 쓰띠꼬브대장은 위대한 수령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였다.

《장군님, 세상에 왕자가 기운 옷을 입고 기운 양말을 신는것은 조선에서만 볼수 있는 경이적인 사변입니다.

자제분은 과연 **김일성**빨찌산의 아들답습니다.

저는 장군님과 김정숙녀사님의 빨찌산식생활이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백두의 설한풍속에서 탄생하시여 일찍부터 고난에 찬 생활을 이어오신 아드님에게 좋은 옷, 좋은 음식, 유족한 생활을 갖추어드리고싶은 심정으로 말한다면 이 세상의 그 어느 어머니보다 몇백배 더 강했을 김정숙동지이시였다.

그러나 김정숙동지에게 있어서 아드님은 자신만의 아드님만이 아닌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위업을 이어 조국의 아들, 민족의 아들, 인민의 참된 아들이 되여야 할 귀중한 몸이였기에 김정숙동지께서는 평범한 어머니의 사랑만이 아닌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부

어주시였던것이다.

김정숙동지께서 서거하신지 여러해가 지난 후에도 기운 양말이야기는 계속되였다.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양말을 깁는 자제분들의 모습을 보게 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가슴이 저려들어 이렇게 물으시였다.

《왜 부관더러 돈을 달래서 새 양말을 사신지 않고 꿰진 양말을 깁고있느냐?》

그러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말씀올렸다.

《인민들이 꿰진 양말을 기워신고 다니는데 제가 어떻게 새 양말만 사신겠습니까. 인민들이 다 새 양말을 신을 때에는 저도 새 양말을 사신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제분들을 품어안으시며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너희들이 수상의 아들딸들이 아니라면 크게 표창하고싶구나. 용타, 정말 용해.》

위대한 수령님의 뜻대로 인민의 참된 아들이 되기를 바라신 김정숙동지의 마음을 한평생 안고사신 위대한 장군님이시기에 그이께서는 **김정일**우에 인민이 있고 **김정일**은 인민의 아들이라는것을 드팀없는 생활신조로 삼으시였던것이다.

《나의 어머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어머님은 정말 훌륭한 어머니였습니다.》

주체 56(1967)년 4월초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평안남도 대동군에 있는 어느 한 저수지를 찾으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저수지관리사업을 잘 하지 않은데 대해 지적하시면서 그 시정방도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무거운 마음을 안으시고 평양으로 올라오시였다.

바로 그날 저녁이였다.

한 일군이 긴급하게 제기된 문제를 보고드리기 위해 그이께서 계시는 곳으로 찾아갔다. 조심히 문을 열고 들어선 일군은 뜻밖의 광경에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열정적으로 피아노를 치고계시였기때문이였다.

일군이 들어선것을 아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피아노건반에서 손을 떼시고 곡이 어떤가고 물으시였다.

일군이 곡이 훌륭하다고 말씀드리면서 한번 더 들려달라고 청을 드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피아노를 치시며 노래를 부르시였다.

들을수록 절절한 그리움이 가슴에 파고들어 심원한 음악세계에

끌려들며 깊은 명상에 잠겨있는 일군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노래가 마음에 드는가고 물으시였다.

일군은 가사도 좋고 곡도 좋고 다 좋다고 자기의 심정을 터놓으면서 노래제목이 무엇인지 처음 듣는 노래라고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노래제목은 《나의 어머니》라고 하시면서 이미 오래전에 지어놓기는 했지만 그저 어머님생각이 날 때면 이렇게 조용히 혼자 불러보는 노래라고 말씀하시였다.

사실 노래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김정숙동지의 서거 10돐이 되던 때에 어머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깊은 추억을 담아 몸소 지으신 불후의 고전적명작이였다.

주체48(1959)년 9월말 어느날 저녁이였다.

한 학생은 학교강당에서 울리는 피아노소리에 끌려 한걸음한걸음 그리로 다가갔다.

놀랍게도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깊은 사색에 잠겨 피아노를 타고계시였다.

무슨 노래인가고 묻는 그에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저 요즘 새 노래 선률이 떠올라 피아노를 한번 쳐보았을뿐이라고 하시였다.

몇달이 지나 12월 23일 밤 귀에 익은 부드럽고 은은한 피아노소리가 그를 또다시 학교강당으로 이끌었다.

그날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에게 아직 노래가 완성되지 않았다고만 하시였다.

잠시후 집으로 돌아가는데 햇솜같은 함박눈이 펑펑 내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손바닥에 그 소담한 눈송이들을 받아보시

며 **《지금 백두산에는 흰눈이 수북이 쌓였겠지.》**라고 조용히 뇌이시더니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우리 어머님은 백두산에서 이 눈을 맞으시며 나를 안아 키우시느라고 무척 고생을 하셨다.

해방후 어느해 눈내리던 겨울날 밤에 어머님은 나에게 꿰진 바지를 곱게 기워주시면서 이제 대학에 갈 때면 좋은 바지를 해주겠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어서 빨리 커서 유치원을 마치고 소학교, 중학교를 거쳐 대학생이 되여 마음껏 배워서 아버지장군님을 받들어가라고 말씀하셨다.

어린시절에 나는 세월의 눈비를 다 맞으시며 나를 품에 안아 키워주시던 어머님의 그 사랑이 무엇이였는가를 미처 몰랐지만 크면서야 그것을 알게 되였다.

여느때도 그러하지만 더우기 오늘처럼 눈내리는 겨울날 밤이면 나는 어머님의 사랑을 돌이켜보며 어머님께서 바라시던대로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모셔야 하겠다는 생각이 더 간절해지군 한다.

방금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피아노를 쳐본거다.》

그는 그제서야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머님에 대한 노래를 짓고 계시였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함박눈이 펑펑 내리던 그밤으로부터 반년 남짓이 지난 주체49(1960)년 7월 15일, 뜻깊은 고급중학교 졸업식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드디여 그 노래를 부르시였다.

세월의 눈비를 다 맞으시며
나를 품어 키우신 나의 어머니

만가지 소원을 헤아려보시며
조선의 고운 꿈 꽃피워주셨네

비와도 눈와도 먼길 떠나도
손잡아 이끄신 나의 어머니
순간을 살아도 빛나게 살라고
길러준 그 품을 내 어이 잊으랴

기쁘나 힘드나 부르고싶은
정답고 미더운 나의 어머니
그 은혜 못잊어 세월의 끝까지
수령님 받들어 한길을 가리라

어머니 어머니 나의 어머니
뜨거운 그 사랑 내 크며 알았네

노래 《나의 어머니》는 이렇게 세상에 나왔다.

그것은 단지 아들이 어머니에게 드리는 한편의 노래가 아니였다.

어머님의 뜻을 받들어 위대한 수령님을 받들어나가시려는 백두산아들의 엄숙한 선언이였다.

바로 그날도 해방후 어머님과 함께 수령님을 모시고 가시였던 저수지를 돌아보고 올라오시여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노래를 부르시였던것이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서시여 창가로 가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깊은 생각에 잠기시여 오래도록 창밖을 내다보시다가 그 일군에게 해방후 어느 일요일에 나는 어머님과 함께 수령님을 모시고 그 저수지에 간 일이 있었는데 어머님께서는 내 낚시에 고기가 물린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저수지들에서 물고기를 많이 기르면 우리 인민들이 물고기를 떨구지 않고 먹을수 있다고, 네가 앞으로 아버님을 도와 온 나라 저수지들에 물고기떼가 욱실거리게 하라고 말씀하시였다고 감회깊이 회억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나는 저수지를 돌아보고 오면서 잊을수 없는 그날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하였다고, 어머님께서는 아버님을 잘 받들라고 그처럼 간곡히 말씀하시였는데 내가 아직도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있다고, 그래서 노래 《나의 어머니》를 부르며 마음속으로 수령님의 사업을 잘 받들 결의를 다지였다고 교시하시였다.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김정숙어머님의 생전의 뜻을 언제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계시였다.

마지막당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어머님께서는 나에게 수령님을 잘 받들고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해야 한다고 자주 간곡하게 당부하시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돌아가시기 3 시간전에도 이런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시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어머님의 당부를 잊지 않고 어머님의 뜻을 이어 수령님을 잘 받들어모셔야 하겠다고 굳게 다짐하군 하였습니다.》

주체 90(2001)년 1 월 20 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군지휘성원들을 부르시여 혁명무력강화와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올해 12 월이면 내가 최고사령관이 된지 10 년이 된다고, 수령님께서 우리 어머님의 탄생일에 나를 최고사령관으로 임명하신데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있다고 감회깊은 어조로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를 받는 일군들의 생각은 깊어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김정숙동지의 유언을 받아안으신것은 주체 38(1949)년 9 월 21 일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날도 몸이 불편하시였지만 여느때처럼 아드님의 손목을 잡으시고 문밖에까지 나가 토산군에로 현지지도의 길을 떠나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정중히 바래워드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타신 승용차가 멀리 사라지자 시계를 보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아드님께 책가방을 메워주시며 어서 유치원에 가라고 이르시였다.

하지만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선뜻 걸음을 떼지 못하고 주춤거리시였다.

어머님의 병세가 심상치 않다는것을 이미 느끼고계시였던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오늘만은 유치원에 가지 않고 어머니곁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올리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아드님을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어머니를 생각하는 네 마음은 알겠다. 하지만 어머니의 병은 네가 공부를 잘하면 저절로 나을수 있다.… 그러니 다른 생각 말고 어서 가거라.》

어머님의 나직하면서도 엄한 분부를 들으신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떨어지지 않는 무거운 걸음을 옮기시였다.

어리신 장군님께서 유치원에서 돌아오시였을 때 김정숙동지께서는 깨끗이 손질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군복을 그이의 무릎우에 올려놓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이 옷은 아버님께서 조국을 해방하는 최후공격작전에로 떠나실 때 입으셨던 군복이다.》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어머님의 정성이 뜨겁게 스며있고 백두의 넋이 깃들어있는 아버님의 군복을 가슴에 꼭 안으시였다.

이윽토록 아드님을 바라보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아드님의 손을 꼭 잡으시며 이렇게 절절하게 당부하시였다.

《아버님은 나라를 찾아주시고 우리 인민들이 다 잘살수 있게 보살펴주시는 위대한분이시다.

너희들은 아버지장군님을 잘 모셔야 한다.

아버님께서 건강하셔야 우리 나라가 튼튼해지고 인민들이 더

잘살수 있게 된다.》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힘겹게 이어지는 어머님의 말씀과 병색질은 안색에서 여느때와는 다른 감촉을 느끼시며 《알겠습니다. 어머니!》 하고 대답올리시였다.

어머님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여갔다.

일군들이 현지지도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전화를 하자고 어머님께 말씀올렸으나 어머님께서는 장군님께서 저의 곁에 계셔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야 왜 없겠습니까, 장군님의 바쁘신 현지지도의 길을 한시도 지체시켜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저의 신상에 생긴 일은 어디까지나 사사로운 일입니다라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 자신이 앓는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못하게 하시였다.

의식이 점차 흐려지는것을 느끼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아드님을 가까이 부르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눈물이 어려있는 아드님의 두손을 꼭 잡으시고 아버지장군님을 잘 받들어모시며 아버님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야 한다고 또다시 절절하게 당부하시였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어머님의 이 당부가 마지막유언으로 될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병이 위독하여 병원에 가시였는데 다시는 돌아오시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때를 이렇게 회고하시면서 우리 어머님께서는 내가 어렸을 때 무릎우에 나를 앉히시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계승해나가야 한다는데 대하여 심오한 철학적인 론리로 일깨워주시며 뜨겁게 말씀하시군 하시였습니다, 우리 어머님

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내가 마지막으로 들은것은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3시간전이였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님께서는 나에게 수령님을 잘 받들어모시고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시고 비통하게도 3시간후에 돌아가시였습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그 시간은 9월 22일 새벽이였다.

어머님께서는 32살이라는 너무도 짧은 생애를 마치시였다.

사람들도 산천도 슬픔으로 몸부림치고 비장한 조포소리가 하늘땅을 울리는 속에서 장례식이 진행된 후였다.

자제분들을 데리시고 모란봉에 있는 어머님의 묘소를 또다시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너희들은 어머니를 잊지 말아야 한다, 어머니는 조선의 훌륭한 딸이였다, 그는 조선의 광복을 위하여 일찌기 손에 총을 잡고 10년세월 백두산에서 나와 함께 싸웠다, 아직도 백두산의 산발마다에는 너의 어머니의 피어린 자욱이 그대로 남아있다, 혁명의 길은 간고했지만 너의 어머니는 언제나 웃으며 싸웠다, 너의 어머니가 백두산줄기마다에 뿌려놓은 피와 땀은 헛되지 않았다, 오늘 우리 나라의 부강발전과 우리 인민의 행복한 생활속에는 수많은 혁명렬사들과 함께 너의 어머니가 바친 수고가 깃들어있다, 우리 인민은 그것을 잊지 않을것이다라고 절절하게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때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간곡한 가르치심을 명심하시고 우리 인민의 행복한 생활속에 깃든 어머님의 로고를 어느 한시도 잊지 않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에 입학하시던 그날에도

어머님께서는 지난날 산에서 싸울 때 꿈처럼 그려보던 인민의 대학이 오늘 여기에 건설된다고 몹시 기뻐하시며 너도 어서 커서 이 대학에서 공부하여 아버님을 잘 받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어머님의 말씀에는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나갈것을 바라는 혁명선렬들의 절절한 념원과 우리 인민의 높은 기대가 담겨져있었습니다라고 교시하시였다.

선군정치의 새 력사를 펼치시던 그무렵에는 인민군지휘성원들에게 어머님은 나에게 아버님의 뒤를 이어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성하여야 한다고 한두번만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나는 오늘까지 어머님의 그 유훈을 한시도 잊지 않고 그대로 일해왔으며 앞으로도 어머님의 말씀대로 일해나갈 결심이라고 교시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 아드님을 품에 안아키우신 기간은 일곱해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기간 아드님을 위해 바치신 김정숙동지의 공적을 어찌 한갖 수자로만 계산할수 있겠는가.

혁명의 폭풍우속에서 조선의 찬란한 미래를 안아 키우시여 주체혁명위업의 대를 이어놓으신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이 행성우에 흐르고 흐르는 인류사와 더불어 조선민족의 자랑으로 길이 빛나고있다.

김정숙녀사에 대한 추억

집필: 궁영숙, 박금순

편집: 류순영

낸곳: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문출판사

발행: 주체 106(2017)년 12월

ㄱ-72021230

전자우편(E-mail): flph@star-co.net.kp
http://www.korean-books.com.kp

ISBN 978-9946-0-1665-8

